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갱신하고  
변화시키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2017년 총회  
의 주제를 생각하며 준비합니다





# 목차

---

서론 .....	i
서문 .....	1
성경공부	
우리를 악몽에서 깨우소서 .....	5
하나님의 산 제물이 되기 .....	9
오직 “우리 모두(ALL OF US)”만 존재한다!.....	13
신학	
<i>UThixo O Phililayo</i> : 살아계신 하나님 .....	18
“갱신하고 변화시키는” 개혁 신학 .....	21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갱신하고 변화시키소서”.....	24
신앙고백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하기 - 살아있는 신앙을 실천하기.....	28
인종과 화해 .....	32
추악한 세상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기 .....	35
바르멘 선언과 라이프치히 선언.....	38
상황	
제국 <b>Empire</b> .....	42
들으라, 들으라. 하나님이 부르신다!.....	46
젠더 정의의 성경적 비전 .....	49
예배자료.....	52





# 서론

Chris Ferguson, WCRC General Secretary

크리스 퍼거슨 총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갱신하고 변화시키소서  
(Living God, renew and transform us)!**

모든 피조물이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갈망하는, 도적 떼에게 넘어간 세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커뮤니티.

필자는 2017년 6월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개최되는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의 26차 총회 주제를 다룬 훌륭한 연구논문집을 제공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다. WCRC는 모든 회원 교단과 회중이 2017년 총회 주제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갱신하고 변화시키소서”에 관심을 가지고 총회 사역에 깊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탁월한 신학 사상가와 교사와 리더들에게 협조를 부탁했다.

총회는 갈등하는 상황들의 교차로에서 개최된다!

첫째 상황은 장로교회, 개혁교회, 회중교회, 연합교회, 왈도파, 후스파, 및 기타 종교개혁 교회의 가족으로서 오랜 역사와 깊은 뿌리를 가진 새로운 커뮤니티으로 형성된 WCRC 자체의 상황이다. 2000년도 이후 현재의 조직 형태로 동행해온 WCRC는 더 깊은 코이노니아 안에서 가까워지고 일치를 방해하는 도전에 맞서면서 커뮤니티(연합체)이 되는 법을 여전히 배우는 중이다. 우리는 최근의 재정적 압박 때문에 결성되어 제네바에서 하노버로 이전했지만, 의도적으로 더 큰 에큐메니칼 가족 안에서 다시 연결되고 증거할 필요가 있으며 종교간 상황과 관계에 기여할 필요도 있다. 대부분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에 살고 있는 8천만 명의 그리스도인을 대변하는 WCRC는 내부적으로도 서로 거리를 좁힐 필요가 있다.

우리는 다양한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연합체로서 모든 지역·언어·문화적 다양성과 정체성을 존중하기 위해 가야 할 길이 멀다. 우리는 개혁되었고 항상 개혁하는 교회(Reformed church always reforming)의 일부이다. 우리는 연합에 헌신하면서 정의로 부름을 받았다. 역사적 도전에 맞서는 더 큰 에큐메니칼 운동에 동참하는 에큐메니칼 소명을 받은, 세상 모든 곳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들의 고백적 커뮤니티이다. 증거와 사역과 봉사과 선교를 모든 지역에서 감당하고, 정의를 신앙 문제로 보는 벨라 고백서와 아크라 고백서를 재천명한 세계적 연합체다. 경제적 불의, 인종적 불의, 생태적 불의, 사회적 불의, 성별적 불의 그리고 그 모든 것과의 공모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너무나 벗어나는 것이다.

2017년 총회는 개신교 종교개혁 500주년을 공동으로 기념하는 상황에서 개최된다.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2017년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연도가 아니다. 주로 언급되는 신학자도 마틴 루터가 아니며, 지리적인 관심을 가지는 지역도 독일이 아니다. 우리가 라이프치히에서 모이는 것은 우리만의 뿌리와 역사를 수용하고, 우리의 독특한 의견을 더하고,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우리의 독자적인 공헌을 재고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분명히 우리의 전통이 의도하진 않았어도 교회분열에 참여한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을 배제하고 그들에게 폭력을 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비판적 반추의 요점은 생명의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응답으로 전진하는 것이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것은 신학적 향수(鄉愁)에 잠기자는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을 현재시제로 옮겨오자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 여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주의 전통들과 신학과 고백적 신앙 태도를 현재 시제로, 즉 이 역사적 순간의 긴장과 갈등, 폭력, 고통, 매력, 경이 그리고 약속으로 표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두 상황은 세계의 평화와 정의가 사라지고, 인류가 전례 없이 이동하고 이주하며, 군사적 폭력이 점증하고, 인종차별이 규제되지 않고, 사회적 배제가 만연한 글로벌 상황과 폭발적으로 그리고 긴박하게 충돌하고 있다. 우리는 “전체”의 위기 가운데 살고 있다. 지구와 인간과 ... 창조 전체가 엄청난 생명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우리가 모두 이것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 덕분에 그것이 진정한 글로벌 위기라는 것을 깨닫는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랑하시지만 도적 떼에게 넘어간 세상의 심층부에서 살고 있다(요한 10:10).

우리의 주제는 이 충돌하는 상황들에 대해 다룬다. 그것은 폭탄이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길 거부한다. 신앙의 사람들에게 평범한 일이란 없다. 우리 커뮤니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여기(역자 강조)의 정의와 분리하기란 불가능하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것처럼, 경제·환경·성별의 정의 문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명령이다.

## 살아계신 하나님 (Living God)

우리의 출발점은 우리 상황의 심층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다. 그 부르짖음은 기도요 고백이다. 우리의 신앙 전통은 생명의 하나님을 향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한다. 우리는 생명이 파괴되고 위협당할 때 관여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성경적 전통은 공동체가 거짓 신들, 즉 전쟁과

사망과 정복의 이상들, 번영과 “맘몬”의 이상들에게 우롱당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렘 10:1-10).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인종·경제·환경·사회·종교·성별적 불의를 조장하는 시스템과 구조와 가치관과 교훈을 거부한다.

우리는 지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한다. 그러나 이 세상은 수많은 지배자에게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당연히 정복의 지배자들을 폭로하고 저항하고 **생명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 주제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생명의 하나님**과의 신학적, 영적 만남으로 우리를 초대한다. 이 초대는 우리가 대면하는 세 가지 상황(contexts)에 참여하는 것이다. 총회 주제의 첫 번째 실천(movement)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돌아서는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선다는 것은 생명을 품는 것이다. 생명을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그것은 모든 사람, 특히 가난하고 소외되고 배제되고 박탈당한 사람들의 생명과 모든 피조물을 변호하고 보호하는 것이다(눅 4: 16 이하, 마 25, 요 3:16-17).

### 갱신하고 변화시키소서 (Renew and Transform)

우리 주제의 다음 실천인 “갱신하고 변화시키소서”는 우리에게 현재 시제의 종교개혁을 수용하도록 요청한다. 로마서 12:1-2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이라고 요구한다. WCRC는 개인으로서만이 아니라 교회와 커뮤니티으로서 당연히 이것을 다뤄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변화를 위한 교회 갱신을 품도록 부름을 받았다. 이 변화 개념은 **메타모르포시스**란 헬라어 단어에 근거하고 있다. 그 의미는 사고와 행동과 이해의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변화, 즉 형식과 내용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 성경적인 변화의 개념은 단순한 정치적 개혁이나 심리적 개입보다 더욱더 근본적이다.

우리는 가족으로서 아크라 고백서를 통해 신자유주의적 시장자본주의의 특정한 구조와 체제와 제도가 하나님께 신실하기 위해선 변화되어야 할 불의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우리가 창조 전체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수용하기 위해선 무한한 성장과 축적의 개념과 구조와 영성을 거부하는 것은 신학적 당위이며 윤리적 의무이다. 우리 세계 문명과 세계 (무)질서의 일부로서 “이 현세대의 풍조”를 이루는 체제와 구조에 주의를 기울이려는 취지는 시대의 징조를 파악하고 **카이로스**를 분별하기 위한 것이다. 세계 상황의 변동과 생명에 대한 극렬한 위협 때문에 우리가 추악한 상황에서 살고 있다는 2004년 아크라 고백서의 확언이 더 타당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특히 우리의 현 경제 체제에 뿌리를 내린 채 다수를 희생시키는 소수의 이익을 위해 문화·종교적 사상과 관행이 지지하는 군사·정치 권력의 비호를 받는 창조훼손과 인류·사회적 불의의 원인이 탄탄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현실의 기초는 인종차별, 성차별, 계급차별, 카스트제도, 기타 모든 형태의 전반적 불평등이다.

세계 전역에서 변화에 관한 대화를 하지만 피상적인 부류에 그치곤 한다. 국제연합이 가진 지속가능형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란 틀은 경제·정치적 체제나 구조를 바꾸지 않은 채 세계를 변화시키려고 한다. 로마서 본문은 우리를 압제·예속하는 모든 구조와 체제와 태도와 행동들을 바꾸라고 요청한다. 시민 사회의 많은 이들이 현 신자유주의 시장 경제와 그 구조와 제도가 기후변동과 환경파괴와 관련된다는 것을 깨닫자는 아크라 고백서(Accra Confession)와 프란시스 교황의 **찬미받으소서(Laudato Si)**의 요청에 참여하고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나오미 클라인(Naomi Klein)은 “기후 변동은 탄소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문제”라는 불편한 진실을 말한 적이 있다. 하나님의 창조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제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빈곤과 불평등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는 경제 체제를 변화시켜야 한다. WCRC 가족들은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실함과 사랑에 매여 있는 것이라고 선언한 적이 있다. 그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신앙에 묶여 있는 것이다

세계도처의 그리스도인들은 소비주의의 거짓 신들에게서 영적으로 풀려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개혁주의 신학은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과 연대로의 부름이 아닌 개인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는 영성과 변영의 신학에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기도와 행동이 결합하여야 한다.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4:16 이하에서 당신의 사명을 공식적으로 증거하실 때 이사야 서를 읽으신 후 예언자와 희년의 전통에 확고하게 서시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누가복음 4:18-19)

예수님은 희년과 예언적 전통에 확고히 서 계신다. 인류사의 이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미가서 6:8을 떠올리며 우리에게 무엇이 요구되는지 깨닫는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의 상황과 신앙은 정의를 추구하고 불의에 저항하라고 강권한다. WCRC는 총회에서 아크라 고백서의 인도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는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것에 신실하게 저항하고



예수님을 따라 가난한 자들을 위한 기쁜 소식과 해방, 자유, 치유, 그리고 지구를 위한 정의의 선교[사명]를 수행하려는 노력으로 그 고백서를 현재 시제로 가져올 것이다. 이것은 창조 전체의 정의, 평화, 치유, 및 화해를 위해 협력하기 위한 에큐메니칼, 종교간, 시민사회의 연대를 요구한다.

또한, 이것은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가 전 기독교 가족들과 선한 의지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정의와 평화의 순례”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듯이 더 넓은 여정의 일부이다.

### 우리를 (Us)

이제 우리 주제는 개인과 교회와 세상, 즉 창조 전체를 포함한다. 우리의 존재와 행위의 중심에 하나님-생명을 두는 것은 WCRC를 변화시킬 것이다. 그것은 우리 교회들을 변화시킬 것이다. 우리 사회를 바꿀 것이다. 남녀 간의 관계를 바꿀 것이다. 모든 차이점을 존중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구 즉 피조물 전체를 포함한다.

인류와 교회의 분열을 극복하고 일치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확고부동한 소명이다. 물론 우리는 WCRC 가족으로서 종교개혁과 그것이 인류에게 끼친 세계변혁의 공헌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의도하진 않았지만 실제 결과로 발생한 분열과 분리와 폭력에 대해 회개한다. 칼뱅은 “그리스도의 몸이 분열된 것”에 대해 한탄했다. 그는 일치에 매우 헌신한 나머지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열 개의 바다라도 건너가겠다고 말했다. 언제나 개혁하는 개혁교회로서 갱신을 추구하는 WCRC

는 사실상 교회의 가시적 일치에 대한 방법을 갱신하고 그런 일치를 최상의 권위에서 발효된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WCRC 가족 안에서의 *코이노니아*나 다른 커뮤니티들과의 교체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가장 깊고 참된 일치. 개별 교회들이면서 보편 교회인 우리는 어떤 갱신으로 부름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선교에 방해받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동참하기 위해서는 어떤 갱신을 해야만 하는가?

우리가 신학적으로 반추해야 할 공유된 전통 자료와 다른 전통 자료는 무엇인가? 도적 떼에게 넘어간 세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서는 고백적인 커뮤니티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은사와 명령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 *카이로스*를 어떻게 명명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를 분열시키겠다고 위협하는 것을 극복하고 그 대신 정의를 증거하는 진로를 어떻게 함께 결정할 것인가? 우리는 가족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증거할 때 연민과 사랑과 연대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우리는 예수께서 고통으로 신음하는 창조 안에서 길ियो 진리요 생명이라는 고백을 어떻게 강력하게 제시할 것인가?

우리 상황들은 충돌한다. 교회, 역사, 현재 시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은 또한 우리 속으로 충돌해 오시며, 세상의 변화를 통해 만물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갱신을 강권하신다.

이 책자는 우리에게 이 폭발적인 기도와 고백과 주제를 받아들이고 WCRC 가족 모임을 준비하도록 요청한다. 저자들이 논쟁·반추·해설·참여·대화하기 위해 우리 주제의 핵심 요소들을 붙잡고 고심한 이 자료집을 통해 각 교단도, 바라기는 각 회중도, 세 가지 충돌하는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공동체를 세우며 정의를 추구하는 2017 라이프치히 총회 모임에 참여하는 준비작업에 활용하길 바란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Soli Deo Gloria)! 생명의 하나님께 영광을!







# 서문

Jerry Pillay, WCRC President

제리 필라이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 의장

2013년에 우리는 흥정역 성경 400주년을 축하했다. 필자는 이아인 토렌스 박사(Dr. Iain Torrance)가 발제한 논문을 매우 또렷하게 기억한다. 그는 500년마다 교회와 사회 양측에 대단히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역사적 사건들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이것이 수세기에 걸쳐서 성경번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주었고 이것을 당시 하나님의 위엄과 경외를 전달했던 성경 본문의 용례를 가지고 예증했다. 과거에 성경을 읽으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았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위엄과 권위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기보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대화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새 번역본들 때문에 이런 태도가 변했다. 여기서 성경의 번역과 이해가 수세기에 걸쳐서 변화되고 갱신되었다는 것을 반추한다.

역사상 그러한 주요 운동 한 가지는 교회를 갱신하고 변화시키려 한 16세기 종교개혁이다. 종교개혁이 수용했던 몇 가지 꽤 다르지만 겹치는 인간행동 영역은 교회와 사회의 도덕과 구조 개혁, 정치 문제에 대한 새 접근, 경제사상의 변화, 기독교 영성의 갱신 및 기독교 교리의 개혁이다(McGrath 2012). 종교개혁은 중요한 신학 주제들을 등장시켰다. 그중 몇 가지를 여기서 간략하게 논할 것이다.

종교개혁의 중심에는 성경으로 회귀하려는 추구가 있었다. 종교개혁을 통해 성경에 새로운 중요성이 결부되었다. 혹은 성경의 중요성에 대한 고대의 견해가 회복된 것인지도 모른다.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이란 개념은 개혁자들이 교회의 실천과 신념을 기독교 황금시대의 것들에 다시 맞추려고 했을 때 그들의 위대한 구호 중 하나가 되었다. 맥그레이스(McGrath, 2012)에 의하면, 이신칭의 교리가 종교개혁의 중요 교리였다면, *sola scriptura*의 원리는 그 형식적 원리였다. 종교개혁자들이 교황을 폐위시켰다면 그들은 성경도 폐위시켰다.

이 시점에서 종교개혁자들과 중세 신학의 차이점은 성경에 부여된 지위보다는 성경을 어떻게 정의하고 해석하느냐이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바로 이 성경 해석이 갱신과 변화의 핵심 요소가 된다. 그것은 종교개혁이 그 교회론적 의미만이 아니라 문화 전반에 관련하여 논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상기시킨다. 상황과 성경 해석의 문제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가 된다. 성경은 서구 문명의 핵심 문서로서 기독교 사상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교육과 문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우리가 성경해석에 이용하는 경향이 있는 “해석학적 렌즈”에 의문을 품으면서 오늘날 이것이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다. 더욱이 “누가 누구를 위해 성경을 해석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다.

제럴드 웨스트(Gerald West, 2009)는 남아프리카 상황에 관해 말하면서 성경이 압제의 도구로 범주화되긴 하지만 항상 해방 투쟁의 중심에 있었다는 요지를 주장한다. 예컨대, 그것은 아파르타이드 남아프리카를 건설하는 도구로 이용되긴 했지만, 남아프리카의 해방과 정의를 위한 대중투쟁의 핵심 본문으로도 동등하게 이용되었다. 위의 요점들은 개혁신학이 *sola scriptura*의 깊은 이해 부분에서 갱신과 변화를 추구해야 할 필요를 구축한다, 그 초점은 해석이 무엇이냐 뿐만 아니라 좀 더 의미심장하게 “누가” 해석하는가에도 달려 있다. 개혁신앙은 본문을 강자와 엘리트에 의해서 악용되는 것을 보호하고 그럼으로써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눌린 자들의 “목소리”에 숨통을 터 주고 표출시켜 줄 의무가 있다. 후자 그룹은 성경 해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은 어떻게 갱신과 변화의 원천이 될 수 있는가?

## 개혁신앙은 권력과 기득권의 영향으로부터 문서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종교개혁의 본질은 믿음으로만(*sola fide*) 의로워진다는 교리이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주제는 신약성경 전체와 기독교 예배와 기독교 신학에 중심적이다. “구원론”이란 용어는 기독교 신학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얻은 구속을 묘사하는 이미지들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 새로운 신학적 강조점은 개인 신앙에 대한 초점으로 이끌었고, 새로운 개인주의적 철학의 영향력이 커지는 데 기여했다. 개신교의 기초 특징은 인간이 공로가 아닌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교리였다. 각 사람은 행위가 순수한 마음과 하나님 신앙에서 나온 것인지 알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만 한다.

불행하게도 개인 신앙에 대한 새로운 신학적 초점은 새로운 중산층 장인과 소상공인의 경제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제 행태가 옛 교회의 전통법과는 마찰을 일으킬는지 몰라도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은 아니라고 상당히 순수하게 그리고 강하게 느꼈다. 그와 반대로,

그것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새로운 교리들은 지상적 소명을 잘 감당해야 할 필요성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역설했고, 근면과 노동을 강조했다. 새로운 교리들은 나중에 경제적 절차의 영성화와 “하나님께서 시장과 교환을 창조하셨다”는 신념으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슬프게도 이 강조로 공동체에 대한 보편적 관심과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의무에서 기독교의 초점이 떠나 버렸다. 그것은 빈곤을 퇴행으로 보고 가난한 자들이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자유주의 패러다임을 수용하였다(Pillay 2002).

비록 가난에 관한 이 견해가 수년 동안 심각하게 논쟁되고 도전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종교개혁이 제국주의적 자본주의, 과학, 기술, 그리고 개인주의화된 계산 정신에 나타난 남성적 수단-목적 합리성에 어떻게 관련되는지 평가해야 한다(Duchrow 2015). 이 *sola fide* 관점이 얼마나 갱신되고 개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우리가 계속 관여해야 할 문제다. 특히 부자가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가 더 빈곤해지는 세상의 역학을 보건대 그러하다. 개혁신학은 세상 안에서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의 편에 서는 일에 분명하게 헌신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과부 차림의(widow-dressing)” 신학 접근을 벗어나 가난한 자들의 역경에 깊이 동참해야 한다. 우리 신학적 입장이 삶을 개선하고 삶을 긍정하는지 질문해야 한다. 그것들은 사회-역사적 정밀도에서 성경을 따르는가? 본질적으로 그것들은 해방과 정의에 기여하는가?

게다가 우리는 인류와 지구에 대한 세계적인 위협이란 관점에서 종교개혁과 그 영향에 관해 긍정적으로 숙고해야만 한다. 우리는 기후변화를 경험하고 지구 황폐화를 목격하는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다. 개혁신학은 각성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실제 상황에 반응하는 의식으로 갱신되고 “지구를 돌보는” 필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아크라 고백서(Accra Confession, 2004)는 “지구를 위한 언약과 돌봄”에 신학 초점을 맞춘 의미심장한 시도이다. 그것은 경제 정의, 젠더 정의, 및 생태 정의의 문제를 개관했고 예언적으로 참여했다. 그것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 문제를 지적해 주었고 우리가 삶의 불의한 실체들에 반응하도록 촉구했다. 아크라 고백서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 우리는 이 문서가 어떻게 우리 WCRC 자신과 전체 세계를 위한 갱신과 변화의 기초가 될 수 있는가를 질문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개혁신학의 중요한 한 특징인 개혁교회가 계속 개혁한다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개혁주의 영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도 영향을 미친다. 영성이란 우리의 내면과 환경에 진정한 실재로 임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체험에 반응하여 우리 삶을 조성하는 패턴이다(Rice 1991).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우리의 의식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행동

모든 것에 중심이 되도록 사는 것이다. 그런 영성은 세상을 등지지 않고 세상을 지향한다. 그것은 삶의 위협에 주목하고 정의의 필요를 포용한다. 이렇게 개혁주의 영성은 세상에 생명을 베푸는 변혁적 참여를 준비하는 것에 맞추어진다. 영성은 공동체 안에 세워지고 공동체를 세운다. 이처럼 예수님과의 개인적 관계에 만족한 것처럼 보이며 제자도의 수평적 차원을 회피하거나 하찮게 여기는 어떠한 경건도 의심스럽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서 물러나는 것을 옹호하는 어떠한 영성도 그리스도의 정신에 반대된다.

## 결정적인 질문은: 우리가 세계적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빛의 은혜라는 개념에 대한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이다.

개혁신학의 중심에는 오직 은혜(*sola gratia*)의 메시지가 있다. 그것은 은혜만이 우리 구원의 원천이요 자양분이라는 것을 상기시킨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보존하고 영화롭게 하는 은혜를 베푸신 것이 모든 기독교 문서를 통합하고 모든 기독교 신실성을 가능하게 만드는 황금 실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든 일 - 우리의 개인적 성화, 우리의 이웃 사랑과 원수 사랑, 우리의 세계선교 열정, 우리의 자발적 복음제시, 우리의 심판 경고, 우리의 영원에 대한 약속,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위한 우리의 긍휼,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우리의 청지기 직, 사탄에 대한 우리의 싸움, 우리의 하나님의 복을 위한 우리의 기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우리의 사역 등을 포함하여 -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안에서 적절한 동기와 능력을 발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것은 은혜를 이용하여 죄에 대한 핑계로 대는 쪽으로 오용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에서 계시된 은혜의 원리들은 그 영에 이끌리는 사람들에게겐 개인 성화와 영적 부흥의 연료다.

이처럼, 은혜 교리들을 온화하고 포용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거룩한 담대함을 모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 언어, 백성, 나라에서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적 자비 앞에 있는 긍휼과 겸손을 권장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친절함이 우리 가운데 회개와 갱신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반사하는 방법과 사역에 헌신해야만 한다(롬 2:4; 벧전 3:15 참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은혜 메시지(혹은 그것에 대한 우리의 특별한 표현)

는 그것이 가져오는 기쁨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세상에 제공하는 소망 때문에 우리가 감탄하고 흠모하는 보석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비판적 질문: 여성의 사회적 역할, 인간의 성적 취향의 문제, 종교 간 접촉과 폭력,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종족주의, 난민 상황, 기후변동 등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세계 경험에 비추어 우리는 이 은혜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우리는 다른 견해와 신학적 신념과 인간 경험에 대해 어떻게 은혜와 환대를 표현하는가? 우리가 포괄적 공동체를 건설하고 다른 신앙인들과 관계 개선을 추구할 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갱신과 변화의 필요성을 각인시킨다. 이것들은 WCRC가 다뤄야 할 실제 상황이다. 그리고 이것들이 신학적 갱신과 변화를 가져올 것을 소망한다.

앞에서 언급된 이 모든 신학적 가르침은 사회에 거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것들은 정치, 사회 변동, 신학 발전 등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개념들 자체가 갱신과 변화가 필요하다. 그것들은 모두 상황적으로 주로 서구 세계에서 시작했고 알려졌고 출현했다. 그리고 나서 이것들이 세계의 다른 지역들에 전해지고 이식되었는데, 종종 현지 상황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어느 경우든 세계는 지난 500년 동안에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변했다. 오늘날 우리는 세계화, 빈곤, 기아, 난민, 경제적 부정의, 세속화, 정치 불안정, 기후 변동과 환경의 도전, 해방과 여성운동, 종교 다원주의와 종교적 폭력, 그리고 성 혁명의 와중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이 새로운 혹은 지속한 발전들에 비추어 개혁주의 신학과 전통과 실천을 갱신과 변화를 어떻게 추구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은 적절한 질문이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갱신하고 변화시키소서”라는 총회 주제는 적절하게 결정한 것이다.

이 주제는 세상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에 대해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반영한다. 부활 능력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극복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한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하고 구원하시기 위해 겪으실 수준에 대해서 말한다. 그것은 모두 사랑 때문이다! 이 주제는 우리를 예수님을 좀 더 닮도록 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서 사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반영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에 원하시고 뜻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어 세상을 변화시켜서 세상이 정의와 평화, 사랑, 및 풍성한 삶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만민에게 반사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기도이다. 그런데 갱신되고 변화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갱신”이란 말은 우리가 무언가를 상실했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거나 재개하고, 예전 상태를

회복하고, 보충하고, 소생하거나 재건하고, 새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 본연의 바람직한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함축한다. 그것은 진정한 변화로 가는 첫 걸음이다. 많은 의미에서 교회는 자신의 소명을 상실했고, 소홀히 했고, 망각했고 팽개쳤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생명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도록 부름받았지만, 교회의 주 목적에서 벗어나 버렸다. “변화시키소서”란 말은 안에서 밖으로 완전히 변하는 것을 뜻하며, 변모(transfiguration, 마태 17:2)나 변형(metamorphosis)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이는 송충이가 나비가 될 때 전혀 다른 것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가리킨다.

주제의 “우리”는 교회와 세상 모두 가리킨다. 우리는 불의와 타락과 사기와 사악으로 가득 찬 세상만큼 교회도 갱신되고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게 무엇을 하라거나 무엇을 하지 말라거나 말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말해야 한다. 어떤 의미에선 교회는 정의와 평화와 만민을 위한 생명의 충일함으로(요한 10:10) 충만한 *대안사회*로 가는 교두보라기보다 세상의 축소판이다.

갱신과 변화는 새로운 렌즈와 상황적 실재와 에큐메니칼 발전을 통해 개혁주의 핵심을 재고할 필요성을 우리에게 각인시킨다. 해방신학과 아프리카 신학과 흑인 신학은 우리가 다양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실재와 고난과 압제를 성찰할 때 “아래로부터의 신학” 방법을 수행하라고 우리에게 권유했다. 그것은 “가난한 자 편들기”와 여권 강화, 포괄성, 및 수용의 태도로 성경을 읽고 또 다시 읽으라고 우리에게 도전한다. 그것은 우리에게 정의 문제와 평화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도록 요청하며, 과거의 입장들을 재고하고, 재검토하고, 심지어 재해석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한다. 이런 일들은 실천하기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고정된 신념과 과거 이해를 흔들고 뿌리 뽑고 우리가 항상 믿어 왔던 토대 자체를 흔들 수 있고, 심지어 신앙에 위기를 일으킬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신앙 체험과 사랑 체험, 봉사와 타인 영접, 적대와 방어 대신 환대와 자비, 포괄성, 그리고 다양성 포용과 같은 새로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도 있고, 인간의 생명과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필요를 이해하는 데 새로운 문을 열어 줄 수 있으며, 연합(일치)과 정의에 새로운 빛을 비출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사랑과 은혜와 성결의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는 경지로 이끌 수 있다.

우리가 2017년 총회를 준비하면서 기도와 분별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갱신하고 변화시키소서* 주제에 대해 숙고할 때, 이 책에 실린 성경적 숙고가 바로 그런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한다. 우리 각자가 이 기도를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나”로부터 시작하시도록 초청하며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란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갱신과 변화가 필요한 모습으로 서 있나이다. 저부터 시작하소서.”



## 자료

McGrath, A. E., *Reformation Thought An Introduction*, Oxford: Wiley-Blackwell, 2012.

종교 개혁 사상. 알리스터 맥그래스 (역:최재건)  
기독교문서선교회, 2006.

West, G., *Religion and Spirituality in South Africa, Thabo Mbeki's Bible*, Pietermaritzburg: Unniversity of KwaZulu-Natal Press, 2009.

Pillay, Jerry, *The Church and Development: Towards a Theology of Development*, Cape Town: University of Cape Town, 2002.

Duchrow, Ulrich, *Liberation toward Justice*, Berlin: LIT VERLAG Dr. W. Hopf, 2015.

Rice, Howard L., *Reformed Spirituality An Introduction for Believers*,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1.



# 성경공부

## 우리를 악몽에서 깨우소서 예레미야10:1-16 성경공부

다리오 바롤린 Dario Barolin

### 도입

“살아계신 하나님...” 이 주제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에서 나온 기도로 시작한다.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의 창조 전체가 깨달음과 삶의 변화를 통해서만 갱신될 수 있다는 깨달음에서 나온 부르짖음이다.

이 기도문은 인류와 하나님의 창조 대부분이 경험하는 예속과 구타와 압제의 고통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간절한 필요에서 나온 것이다. 이 기도는 들으시고 행하시는 유일자에게 드러지며, 목적을 찾으려고 허공을 향해 부르짖는 외침이 아니라(출 2:23)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구체적 방향을 가지고 있다.

살아계신(living, alive)이란 말은 우리 본문에만 나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적용된 이 형용사적 용법은 구약과 신약에서 무수하게 찾을 수 있다.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신명기 5:26, 시편 42:3, 다니엘 6:20, 호세아 1:10(롬 9:26에 반복), 마태복음 16:16, 고린도후서 6:16, 디모데전서 4:10 등이다.

### 예레미야 10:1-16과 그 상황

예레미야 10:1-16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상숭배와 거기서 파생된 공동체적, 개인적 실천과 충돌하신다고 생각하게 한다.

이 단락은 도입부로서 공동체가 선택한 길과 그 진로가 자초한 죽음의 결말(8:4-7)에 대해 경고하는 일련의 시들도 구성된 더 큰 단위(8:4-10:25)의 일부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길을 무시하고(8:7), 하나님의 법을 뒤엎고(8:8),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8:9). 그 결과 하나님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독특하고 특별하게 연결했던 언약이 붕괴했다.

이런 연유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발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언약의 표시인 할례가 이제는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한”(렘 9:26) 그 백성을 양육하지 못하고 통합시키지 못하는 공허한 제의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여기서부터 단락 끝까지 그 시는 잘못된 유행인 우상숭배의 풍조를 뒤쫓는 같은 오류를 다루고 있다.

주님에 대한 신앙이 사회 조직에 확고하게 기초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신들을 추종하는 것도 특정한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조직을 포함한다. 근대 서구는 그 둘을 서로 분리하는 경향이 있으나, 성경 본문은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복잡한 이해를 담고 있다. 성경적 비전은 야훼 신앙과 사회 구조 사이의 지울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관계를

보여 준다. 노예제도에서 해방된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은 압제에서 해방하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헌신과(출 20:2) 정의 지향적 사회 구조를 고수하는 헌신에 기초한다(출 19-24).

그러한 언약에서 유래된 사회 구조를 거부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우상숭배로 귀착된다. 그 반대로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사회구조와 새로운 가치척도를 낳게 된다.

성경은 야훼와 사회체제 사이의 지울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는 관계에 대한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

### 우상의 헛됨

도입부인 이 단락은 예언적 형식구로 시작된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10:1). 그리고 이 단락은 10:18에 나오는 똑같은 형식구에 의해 도입된 새 예언적 담화와 함께 수미(首尾)쌍관 구조를 이룬다. 예언적 표현의 핵심적 부름이 2절에 나온다.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나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뒤따르는 구절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야훼와 우상들 사이의 대조를 끊임없이 부각하며 이런 방식으로 예언적 경고를 정당화한다. 사실 3-16절은 조직적으로 우상들과 야훼의 대립을 사이사이에 배치한다.

우상들:	3-5절
야훼:	6-7절
우상들:	8-9절
야훼:	10절
우상들:	11절
야훼:	12-13절
우상들:	14-15절
야훼:	16절

우상들은 특히 무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것들은 움직이지 못하고(4), 말하지도 걷지도 못하며 악한 일도 선한 일도 하지 못한다(5). 무엇보다도 우상들은 거짓이며 생기가 없다(14). 그것들은 인간의 노동으로 제작된 것이기 때문이다(3, 14). 그것들의 특징과 열매는 "헛것"이다(3, 8, 15). 비슷한 표현이 시편 115:4-7과 135:15-17에도 나온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항은 본문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이 실제로 금과 은(4, 9), 자색 옷과 청색 옷(9) 등으로 이런 우상들을 제조하는 법을 알리는 데 할애된다는 점이다. 이 우상들을 찬양하는 것은 그것들을 구성하는 재료를 찬양하고 그 **제품들을 신격화하는 셈이다.**

예언자는 우상들의 무능력, 즉 그것들의 "비존재성"을 지적하는데 많은 수고를 기울이지만 우상들이 해낼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점은 시인한다. 우상들이 관습과 법률을 낳고 유지하며(4) 교훈을 창조하기(8) 때문이다. 당연히 야훼를 대적하는 그것들은 헛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는 강력한 존재이며 자기 추종자들을 마비시킬 수 있는 이상한 힘을 가지고 있다(14).

열방의 길을 따르라는 유혹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새로운 현상이 아니었다. 사무엘상 8장에 똑같은 유혹이 백성의 지도자들에게서 발견되며 그 유혹이 백성의 삶에 초래할 결과에 관해 경고하는 예언도 나온다. 이런 요구는 우리 본문에서 뜬금없이 튀어나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바빌론이 유다왕국을 멸망시켰던 내러티브의 일부이다. 이것 때문에 유혹이 악화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권력과 신들을 보유한 제국이 야훼보다 더 강하게 보인다. 바로 이것이 예루살렘의 황폐함과 포로 압송에서 보인 바가 아닌가?

예언자는 현재의 황폐함이 야훼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이란 것을 입증하는데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들의 길이 정의에서 너무나 벗어나 이런 결과를 자초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그들의 신들과 풍속(3)과 그 신들의 교훈을(8) 따르는 선택을 하면 안 된다.

### 살아계신 하나님 야훼

야훼는 그 우상들과 다르게 등장하신다. 우상들의 특징은 무능력이지만, 야훼는 능력과 지혜를 갖추고 계신다. 선택된 길은 하나님을 창조자로 가리키는 반면(12), 우상들은 피조물이다(9). 야훼께서 소유하신 지혜와 창조적 이해는(12) 우상들의 어리석음과 우매함과 대조된다(8). 이 우상들은 말을 못 하지만(5) 야훼의 목소리는 폭풍을 일으킨다(13).

그런데 야훼의 능력은 지나간 창조 활동에 국한되지 않는다. 야훼는 뜬금없는 해결사(*Deus ex machina*)가 아니라 모든 창조에 형태를 부여하실 수 있으시다(16). 야훼는 역사 속에서 행동하시기에 야훼로부터 나오는 능력을 민족들이 체험할 수 있다(10). 창조자 하나님의 이미지는 역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창의적, 변혁적 행동의 일부로 역사를

이해하게 한다. 마찬가지로 이사야서 40-55장에 나오는 창조자 하나님의 이미지는 포로로 끌려간 백성에게 새로운 해방의 기회를 고취한다.

바로 이 실재 때문에 예언자는 우상들이 헛된 것과 대조적으로 "야훼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10)이심을 천명하게 된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대등한 척하는 모든 우상이나 권력과 갈등에 처하게 된다(겔 28:1-10 참조).

그 결정적 갈등은 11절에 나타난다. 히브리어로 쓰인 다른 모든 구절과 달리 이 구절은 아람어로 씌어졌으며 동심원 형태를 포함한 아름다운 시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 동심원 형태를 다음과 같이 시각적으로 배열해 볼 수 있다(한글 성경의 어순이 아니라 저자의 원문 순서를 따랐음 - 역주).

신들은  
하늘과  
땅을  
짓지 아니한  
땅하리라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그들은]

### 살아계신 하나님 vs. 우상들

우리는 방금 예레미야 10:1-16의 내러티브의 상황을 살펴보았다. 이것은 바빌론 제국이 자그마한 유다 왕국에 가한 압제 상황에서 나타난다. 이 상황에 부닥친 예언자는 사람들에게 야훼의 정당성에 대해, 무엇보다도 언약의 효력에 대해 설득하려고 필사적으로 애쓴다. 예언자는 자신의 하나님 즉 피압제자들과 포로들의 하나님이 제국의 우상들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희망이 사라지게 된다. 제국의 우상들을 경배하는 것은 백성의 자멸을 의미한다.

이 중대한 상황 때문에 우상숭배와 충돌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을 부르게 되지만, 권력구조나 제국은 그 상황을 악용하여 피압제자들의 신들을 길들이려고 자주 곡해한다. 중남미와 아프리카는 유혈과 파괴 가운데 종교가 군사력과 경제력을 정당화하는 것을 경험했다. 예레미야에게 임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상으로 보여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정복의 신 안에서 발견하기란 불가능하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행동들은 생명을 가져온다. 결코, 그것들로 죽음과 핍박을 정당화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의 강조점은 다른 민족들이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사실에 있지 않다. 물론 그는 그들의 종교를 조롱하긴 하지만 말이다. 예레미야의 관심은 그런 신들의 능력에 이끌림을 느끼고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다(2). 그들은 계속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야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야훼로부터 멀리 벗어난 행동을 했다. 그들의 입술로는

야훼를 부르지만, 그들의 마음과 사상은 다른 신들과 다른 가치와 다른 문화를 좇고 있었다.

이것은 우상숭배의 두 번째 측면을 드러낸다. 그것은 우리가 구축하고 전달하는 하나님에 대한 정신적 이미지를 가리킨다. 그것들은 너무나 빈번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별로 관련이 없다. 사실 인간 존재가 신성 전체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는 충동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나님을 강조하거나 축소하거나 제한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불가피한 정신적 활동을 의식해야만 하며, 하나님에 대한 축소되고 제한된 우리 비전을 참 하나님으로 둔갑시키려는 일을 피해야만 한다. 우리가 역사와 문화와 삶을 위해 빚어내는 이 불가피한 하나님 이미지들은 너무 취약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뵈올 때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예레미야 10:6)*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가끔 눈에 띄지 않고 지나치게 되는 세 번째 측면은 예레미야가 정죄한 신들과 똑같은 능력을 갖춘 신들로 변신하는 인간 제도에 관한 것이다. 그 신들은 문화와 가치를 창조할 수 있으며 심지어 자기를 위한 희생까지도 요구할 수 있다. 이 간략한 주석에서 이 우상들을 이루고 있는 구조에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 이 구조는 가장 값어치 있는 물질을 사용해 표현된 신성과 그런 물질들, 즉 금, 은, 자색 옷, 그리고 청색 옷(4, 9)의 신격화 사이에 일종의 시너지를 조성한다. 그것은 그 표방하는 신의 가치를 부각한다. 동시에 이 물질들 자체가 신격화되기 시작하고 보통 말하는 우둔함에 빠지고(14) 급기야 신들이 되어 그 자체로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가치와 문화를 지시하고 지배하게 된다.

이것은 골로새서 3:5에서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언급할 때 온전히 분명해진다. 여기서 언급된 우상숭배는 다른 신들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우리 존재의 궁극 목적으로 삼고 우리 삶의 신적인 존재로 둔갑시켜서 우리의 결정을 지배하고 우리 사회생활의 의미가 허무해지게 하는 것이다. 이 거짓 신들은 구원과 충만한 삶을 약속하면서 희생과 심지어 생명 자체마저 요구한다.

아크라 고백서(Accra Confession) 제10조는 똑같은 사상적 흐름에서 신자유주의를 똑같은 허세를 부리는 현대의 신이라고 지목한다.

*신자유주의는 가난한 자와 자연으로부터 끊임없는 희생을 강요하며 이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강변하는 이념이다. 신자유주의는 부와 번영을 창조하여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짓 약속을 하면서 생명을 지배하는 주권을 주장하고 우상숭배에 해당하는 절대 충성을 요구한다.*

## 살아계신 하나님은 곧 생명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역은 생명을 불러오며 죽음과 억압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세속화된*” 21세기 인류에게 가장 복잡하고 도전적인 형태의 우상숭배이다.

###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기

예레미야 10:1-16의 단락은 우리의 사회적 실천과 선포적 신앙 사이의 내재적 관계를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예언자는 자체 신들을 도입하여 그것의 능력을 정당화하고 피지배층에 대한 압제를 합법화하려는 제국 전체의 허세를 노출한다. 모순적인 점은 인간이 만든 이 우상들이 미혹과 술수의 능력을 갖춘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그러한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천명하는 것이다. 그것은 다른 가짜 신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의 경배와 찬미를 차지하려 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들이 존재하지 않으며 악도 선도 하지 못하는 인간의 창작물이란 사실을 알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존재하며 인간이 창조와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를 강력하게 왜곡시킨다. 그것들은 존재하며 하나님의 창조를 죽음으로 끌어가며, 대부분의 사람을 가난으로 예측시키며, 고통을 조장하고, 소수가 누리는 막대한 부를 “신이 베푸는 번영”이라고 드높인다.

인류는 위태롭게도 현대의 묘약인 소비주의에 그 마음이 마비되어 자멸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을 들어 살아계시고 영원하시며 우리를 정의의 커뮤니티언으로 변화시키고 갱신시키실 수 있는 참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또한 우리의 가부장적, 인종차별적, 인본주의적, 차별적 범주들을 “*할레받지 못한 마음*”의 명백한 신호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할레받지 못한 마음은 참되시고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변화를 받아 그러한 악몽으로부터 벗어나고 변화되어야 하며, 충만과 조화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기 위해 변화 받고 갱신되어야 한다.



## 연구주제

1. 우리의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결정들을 지배하는 최종적인 주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그런 결정들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2.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 상황에 대한 비전을 마지막으로 변화시키고 갱신하신 때는 언제였는가?
3.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사망과 압제의 상황들이 정당화되는가?
4. 우리 백성의 고통과 고난에 직면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자료

- Walter Brueggemann, *A Commentary on Jeremiah. Exile and Homecoming*, Grand Rapids, Eerdmans, 1998.
- E. Ray Clendenen, "Discourses strategies in Jeremiah 10:1-16," *JBL* (106/3), 1987), pp 401-408
- José Comblin, "El Dios de la vida" (2014)  
<http://teologianordeste.net/index.php/publicacoes/jose-comblin/66-el-dios-de-la-vida>  
(accessed 15 January 2016)
- José Severino Croatto, "La destrucción de los símbolos de los dominados," *RIBLA* 11, (1992), pp. 37-48.

*Transl. Liber Tradux*

## 결론

- 1 이 구절의 적절성을 나타내 주는 세부사항을 하나 찾는다면 *하다(to do)*와 *사라지다(to disappear)* 사이의 시적인 언어유희에서 찾을 수 있다. 두 단어의 발음은 아랍어로 거의 똑같다.

# 하나님의 산 제물이 되기

## 로마서 12:1-2

무사 W. 두베 Musa W. Dube

사도 바울의 걸작으로 간주되는 로마서는 제국의 권좌였던 로마에 있던 교회에게 써 보낸 서신이다. 바울은 로마의 교회에게 이렇게 쓴다. “그러므로 형제[자매]들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롬 12:1). 바울은 제국이 그 국민의 몸과 마음을 요구하며 국민이 제국의 이데올로기에 순응하기를 요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렇게 강조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12:2). 캐더린 그립(Katherine Grieb)이 지적한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세력권으로 이끄실 때 현 세대의 정사가 우리를 세상에 순응시키는 능력도 그 만큼 소실된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이 정사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그들의 몸은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다”(2002:119).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제국에 대한 절대적 저항을 촉구한다. 제국은 타자에 대한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제시하는 이유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 국민에게 계획적으로 종속과 착취와 폭력을 행사하는 통치체제이다. 제국은 군사력으로 수많은 국경을 강제로 침범하고, 현지인들을 그 문화에서 구원한다는 윤리적 주장을 펼치면서 여러 종류의 우월감을 사상적으로 주장하여 식민지 백성에게 자신들의 종교적, 경제적, 정치적 구조를 강요하는 구실로 삼는다. 하지만 제국은 피정복민의 노동과 자원을 착취하여 과도하게 재물을 징수하는 일에 더 많이 개입하고, 그럼으로써 글로벌 경제 불평등을 확고하게 조성한다. 박탈당하고 빼앗긴 대중은 경제적 난민이 되어 더 푸른 초원을 찾아 이주할 수 밖에 없게 되고 급기야 제국의 중심도시들까지 가게 된다. 제국의 환경은 이처럼 다양성을 축하지 않는 다문화적, 다종교적, 다인종적 상황이다.

주여,  
제가 알아야 할 때를  
상기시켜 주소서  
주님은 저에게  
당신의 교회를 변호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위해  
제 생명을 내려 놓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콜린 윈터 (Colin Winter) 감독 : Carden, 1998:185.)

제국의 착취 아젠다는 사람만 아니라 땅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땅을 황폐하게 만들곤 하는 강요와 저항의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제국의 주동자들과 지배층에게 넘어갈 때 박탈당한 자들의 재정착과 과밀 문제도 발생한다. 제국들은 자국을 위한 부의 축적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빈번히 대규모 토지를 상업적 프로젝트로 전환하는 와중에 그 백성의 생계에 필수적인 토지를 박탈한다. 과도한 이윤의 윤리에 이끌려, 제국의 취향에 맞추기 위한 상업 프로젝트가 넓은 지역을 정리하면서 그 프로젝트는 불가피하게 그 토지에 공해와 착취, 그리고 폭력을 낳는 반면에, 토착민들은 쫓겨나 척박한 과밀 지역에서 살 수 밖에 없게 되고 그럼으로써 환경에 대한 압박을 심화시킨다. 제국의 구조는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전 창조에 폭력을 행사하는 사회, 문화, 경제, 정치적 상황을 조장한다. 근대의 제국적 구조들은 지구의 3

제국의 착취라는 의제는 사람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도 또한 그 영향을 끼친다.

분의 2에 악영향을 미쳤다. 비록 많은 예전의 식민지들이 해방전쟁을 치르고 이겼지만, 그 경제, 정치, 문화적 구조는 여전히 예전의 식민지들과 연결된 상태로 남아 있고 그 관계는 계속해서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는 반면, 수많은 정착민 식민지에서는 현지인들이 자기 땅에서 영구적으로 추방된 상태에 있다. 게다가 우리는 새로운 제국주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것이 대중에게는 세계화 또는 신자유주의 경제질서라고 알려져 있다. 이것은 과도한 이윤 경쟁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공동체의 복지와 가족과 토지가 부차적 관심사로 밀려난다. 신자유주의 경제에서 국가는 사유화에 길을 내주고 만다. 이것은 사회적 복지 서비스와 수도, 전기, 목초지, 교육, 의료 등의 공공 자원을 이윤에 이끌리는 회사들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제국은 하나님의 피조 공동체 전체에 대해 폭력적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구를 돌보(care)라고 주셨지만  
우리가 우리 몫(share)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나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어 길 위에 있는 우리를 만  
나 주소서.  
주님은 자비롭게 베푸셨사오나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지 모르나이다  
그러니 우리를 도우사 정직과 신실을 위  
해 힘쓰게 하소서  
(브리넨 Brienens, 2000)

바울 시대의 로마는 동등한 명성을 누리던 제국이였다. 계시록 저자가 바빌론으로 묘사한 로마 제국은 “자기”를 위해 이익을 취하는 일곱 별 달린 용과 모든 사람과 성교하는 창녀와 같은 존재다. 학자들의 연구는 소수가 로마의 부를 장악하여 견딜 수 없는 빈곤이 만연했다고 강조한다. 수많은 증거에 따르면 로마는 폭력적이었으며 저항하는 국민을 잔혹하게 다뤘다고 한다. [식민지] 백성에게 세금을 징수하여 중앙으로 보낼 때 착취를 했다. 그 백성의 문화를 억압하고 황제 숭배를 강요했다. 황제는 경배할 대상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모두 신학적으로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황제에게 언드려 경배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공격 받는 처지에 있었다. 백성들은 체념하고 협조하거나, 은밀하게 저항하는 기교를 부리거나, 위협을 무릅쓰고 공개적인 저항을 감행해야만 했다.

정경 복음서들은 로마제국의 현존과 폭력과 착취에 관하여 선명하게 증거하고 있다. 예컨대, 헤롯과 같은 꼭두각시 왕들이 유대계 팔레스타인의 특색을 보여준다(마태 2장, 14:1-12). 로마제국의 군대와 백부장이 반란 진압을 위해 배치되어 있었고(마태 24:27-31), 로마제국의 착취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세금 징수원들이 활동하고 있었으며(마태 5:46, 9:10), 빌라도란 개인이 로마를 대변하는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파견되어 있었다(마태 27:1-23). 예수님은 로마제국의 권력 아래서 태어나시고 사시다가 죽으셨다. 사실 마태의 증거는 유대인의 왕으로 선포된 아기 예수가 즉각적으로 로마 제국의 구조에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예수님의 생명이 추격을 당했고,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데리고 이집트로 도피해야만 했다(마태 2:1-23). 예수님은 사역 기간 중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 관한 질문들을 받으셨고(마태 17:24-27) 가이사의 권력을 전복시키려 했다는 혐의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셨다(요한 17-18). 제국의 권력과 폭력을 아신 예수님은 노골적인 저항 기술과 은밀한 저항 기술을 모두 활용하셨다. 즉, 현존하며 곧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공개적으로 선포하셨고, 그럼으로써 [현실]을 지배하는 가이사의 왕국이 불법이라고 도전하셨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가르치셨다(마태 22:21). 이것은 가이사의 권력을 자동적으로 박탈하는 선언이다. 유대인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로마 점령군을 사로잡힌 자들에게서 쫓겨나야 할 귀신들로 규정하셨다(마가 5:1.20). 로마 총독 빌라도가 왕권에

대해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다양한 저항의 기술을 활용하셨다 침묵이나 주제 변경이나 당신의 왕권을 부정하지도 긍정하지도 않은 답변인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You said so. “네 말이 옳도다” : 개역개정)와 같은 은근한 표현을 활용하셨다.

주님은 제 손을 요구하셨습니다  
주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시기 위해  
나는 그것들을 잠깐 드렸다가  
그 일이 힘들어서 다시 손을 뺐습니다

주님은 불의를 고발하라고 제 입을 요구하  
셨습니다  
저는 고소당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속삭  
임만 드렸습니다.  
(남아프리카 : Carden, 1998:180)

팔레스타인의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다(마태 28:1-10). 부활 자체가 사람을 비인간화하고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특성을 비하하는 착취 구조에 반대하는 신적인 선언이자 행동이다. 부활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피압박자들과의 연대, 즉 창조 공동체 전체를 위한 풍요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고집을 확증한다. 부활은 여전히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생명을 잃더라도 다시 그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확증한다. 하나님은 자신을 산 제물로 봉헌하는 신자들과 교회를 변화시키고 갱신하신다. 하나님의 부활하는 백성은 악의 세력이 결코 훼손하지 못하는 산 제물이 된다. 그래서 산 제물은 하나님을 위한 투쟁과 하나님과의 연대 안에서 계속 드리는 봉헌이다. 하나님의 정의는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실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교회와 교회의 지체들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파괴될 수 없는 권능을 구현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갱신하고 변화시키신다. 그들은 일어난다. 마야 안젤루(Maya Angelou)가 자신의 저서 나는 요동하지 않으리(I Shall not be Moved)에서 말했듯이 말이다.

핑음을 향해  
사악함을 향해 그녀는 외쳤다  
아무도, 아니, 백만 명이라 하더라도  
감히 하나님인 나를 부정하지 못해  
나는 홀로 전진해, 그리고 만 명처럼 서 있어

내 우편에 계신 하나님은  
나더러 자유의 문의 걸쇠를  
영원히 잠아당기라고 강권하시네

안젤루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게 닦쳐던 사악한 세력을 묘사한 것이다. 노예로 전락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부인당한 “그들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노라 힐 휴스턴(Nora Neale Houston)이 말했다. 그들의 눈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 공동체 전원에게 보장하시는 정의를 갈망하고 있었다.



# 부활은 여전히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치겠다는 사람들의 증언이다. 그리고 그들이 비록 자신의 생명을 잃더라도 그들은 다시 회복되어져야한다.

그들은 끊임없이 “*쿰바야, 내 주여*”를 외치면서 계속해서 일어났다. 부활의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산 제물이 되는 것은 이처럼 세상의 파괴력에 취약성이 노출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변화의 능력 속에서, 즉 권력에 대하여 진리를 선포하고 좋은 땅에 뿌려져 크게 무성해져서 수많은 들새들의 집이 되는 겨자씨가 되게 하는 부활 능력 속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산 제물이 되는 것은 모든 파괴력에 대항하기 위해 끊임없이 다시 모이는 교회 즉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이다. 산 제물들은 악한 세력에게 굴복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에 이미 굴복했기 때문이다. 산 제물이 되는 것은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활동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빛을 구현하는 것이요 악한 구조가 계속 침범하여 하나님의 창조공동체를 망치고 있는 곳에 그 빛을 비추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산 제물이 되는 것은 창조공동체를 침범하는 악의 세력을 경계하고 저항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다. 브루스 말리나(Bruce Malina)와 존 필치(John L. Pilch)가 지적하듯이 “제물을 드리는 목적은 생명-효과, 즉 생명을 보존하거나 생명을 변화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것이다”(2006:276).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을 때 변화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주님은 내 생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나를 통해 일하시려고  
그러나 나는 참여하지 않으려고 작은 부  
분만 드렸습니다.

주여, 제가 주님을 섬기는 노력을 계산  
적으로 한 것을 용서하소서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편할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 편한 곳에서만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쉽게 만들어  
주는 사람들하고만 [섬겼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나를 용서하소서

나를 갱신하소서  
나를 쓸만한 도구로 파송하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십자가의 의미를 진진  
하게 받아들여지게 하소서  
(남아프리카 : Carden, 1998, 180)

그래서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도 로마의 착취적인 통치는 기도하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이들의 일종의 저항에 부딪혔다. 바리새인의 저항의 특징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고 꼼꼼하게 지키는 것이었다. 세례요한과 쿠파 공동체와 옛세네파가 주도한 사막 회귀 운동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될 때 체험한 하나님의 해방의 능력을 기도로 체험하려고 했다.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은 겉으로는 협력에 기대는 것처럼 보이지만 체제를 속이고 제국의 폭력적인 권력을 누그러뜨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만일 그(예수)를 이대로 두면 ...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 유익한”(요한 11:48-50) 일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열심당은 기원후 66년에 분연히 일어나 싸워 로마 제국의 존재를 자기 땅에서 없애려고 했다. 그들의 봉기는 로마 제국의 규제와 착취 정책 때문에 제국의 통치를 원치 않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성명이었다. 공개적 대립의 전략은 일시적으론 성공적이었지만 결국 치명적인 것으로 입증되었다. 왜냐하면 로마가 그 군사력을 촉발함으로써 성전이 파괴되고 유대인들이 그 예배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추방되는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었다(마태복음 24:1-2).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원수를 속이려고 협력하는 전략을 채택하여 피하려고 애썼던 바로 그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제국의 권좌인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쓴다.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은 매일 공격을 당하는 형편에 있었다. 바울은 그들에게 자기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강권한다. 이 세상에 순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 변화를 받으라고 강권한다. 악과 불의의 구조에 의해 도전을 받으면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신자들은 그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권면을 받는다. 그것이 그들의 예배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의 신체와 마음은 하나님께 헌신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권능과 의지와 긍휼 외에는 다른 어떤 세력에게도 자리를 내주면 안 된다. 바울은 로마 제국의 기준에 순응하려는 유혹이 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다르게 충고한다. 말하자면, 신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능력을 개발하여 오류를 범하거나 하나님의 자비와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경계하려는 목적을 위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은 초점과 헌신을 위한 부름이다. 그러한 헌신은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러져서 지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저촉되는 세력들과 타협하고 협력할 여지를 절대 허용하지 말라고 요구한다. 하나님의 자비와 의지를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물로 바치는 자기헌신을 요구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전체

교회더러 그들이 이미 변화받았고 갱신되었지만 계속해서 새롭게 자신을 재현신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 하도록 요청한다.

자신이 산 제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교회는 제국의 가치와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할 때 예수님을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롬 1:3-4)이라고 밝혔다. 유대 민족의 전통은 메시아, 그리스도, 혹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제국의 구조에서 해방해줄 거라고 기대했다. 메시아는 다윗 가문 출신으로 올 거라고 기대되었다. 바울은 예수님의 다윗계 족보를 환기함으로써 예수께서 제국에 저항하신다는 것과 예수님의 교회도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림으로서 그래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현대 제국주의 구조가 오늘날 세상의

특징이긴 하지만, 교회와 그 지체들은 여전히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권고를 받고 있다. 그들은 폭력과 악과 불의의 파괴력에 대처하는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으로 살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지와 자비에 대해 말하기 위해 계속해서 되돌아오는 능력이다.

**자료**

Angelou, Maya. *I Shall Not Be Moved*. New York: Bantam Books, 1991.

Brienen, Francis. *What Does the Lord Require?* Norwich: Canterbury Press, 2000.

Carden John. *A Procession of Prayers: Meditation and Prayers; Meditations and Prayers from Around the World*. Geneva: WCC, 1998

Dube, Musa W. “Rereading the Bible: Biblical Hermeneutics and Social Justice,” pp. 57-68. In *African Theology Today*. Scranton: Scranton Press, 2002.

Garnsey, Peter & Richard Saller. *The Roman Empir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7.

Grieb, Katherine. *The Story of the Romans*. London: John Knox, 2002.

Horsely, Richard. *Paul and Empire: Religion and Power in Roman Imperial Society*. Harrisburg: Trinity Press, 1997.

Malina, Bruce & John Pilch. *Letters of Paul*. Minneapolis, Fortress, 2006.

Roetzel, Calvin J. *The World that shaped the New Testament*. Atlanta: Knox Press, 1995.

**연구주제**

1. 오늘날, 특히 당신의 삶 가운데, 어떤 제국들이 존재하는가?
2. 오늘날 제국들은 어떻게 활동하는가? 그것들은 어떻게 착취하고 억압하고 예측하고 파괴하는가?
3. 오늘날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 제국들에 의존하게 되었고 그 혜택을 누리게 되었는가?
4. “당신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은 오늘날의 제국들에 어떤 방식으로 저항할 수 있는가?

# 오직 “우리 모두(ALL OF US)”만 존재한다!

## 성경공부 3: 누가복음 4:16-30

레벨레이션 벨룬타 Revelation Velunta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말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삼 년 육 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의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 도입

이번 총회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갱신하고 변화시키소서”라는 주제의 성경공부를 세 번의 모임으로 나누어 가진다. 첫 번째 모임은 “살아계신 하나님”(다리오 바롤린)에 관하여, 두 번째 모임은 “갱신하고 변화시키소서”(무사 두베)에 관하여, 그리고 이번 세 번째 모임은 “우리를”에 초점을 맞춘다.

많은 성경 연구자들은 성경을 읽지 않는다. 그들은 성경에 관한 책들을 읽거나 성경의 아주 적은 부분만 읽는다. 많은 연구자가 증거 본문을 들이대는데 탁월하다. 성경을 이해하는 제일 나은 방법 중 하나는 각 단락을 더 큰 전체의 일부로 읽는 것이다. 누가복음 4:16-30은 누가복음 4장의 부분이다.

누가복음 4장은 누가복음서 전체의 부분이다. 누가복음은 두 권짜리 작품인 누가복음-사도행전의 절반에 해당한다. 우리가 누가복음-사도행전이라고 부르는 본문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는 그것을 탄생시킨 상황, 즉 로마 제국을 이해하는 것이다.<sup>1</sup>

역사가들에 의하면, 제1세기 팔레스타인에 존재했던 최상층 1%를 대변하는 엘리트와 부자와 지주들은 대부분 왕실과 귀족 가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사다리 아래에는 세리, 경찰, 서기관, 제사장 등 유지계층이 있었다(9%). 인구 대부분인 4분의 3은 부유한 자가 극히 드물었던 상인과 세상의 재화가 결핍된 장인과 농부와 어부로 이루어져 있었다. 마지막으로 최하층(15%)을 구성하는 불가촉민인 장애인, 매춘부, 일당 노동자나 걸인으로 보내지는 소작농의 잉여자녀들, 그리고 도망친 노예들은 도시 밖의 산울타리 속에서 살았다. 인구의 절반은 하루 1,000칼로리를 섭취했다. 이는 그들이 굶주림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는 뜻이다. 가난한 자들은 빵과 건조된 혹은 염장된 생선만 구할 수 있었다. 이것이 도시 하층민과 노예들과 소작농의 기본 음식이었다.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이 신선한 생선을 가지고 있으면 도둑으로 몰릴 정도였다!<sup>2</sup>

## 제국은 부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한다.

###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제국은 부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다. 누가의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 해방신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누가복음-사도행전이 교회의 가난한 자 편들기, 즉 반제국주의적 수사학을 뒷받침하는 최선의 자료라고 역설했다. 마리아 찬가는 편을 드시는 하나님, 교만한 자들을 홀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며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시는 주님을 찬양한다. 똑같은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 누가의 예수님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선포하신다. 예수님의 평지 설교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을 선포하고 부자들에게 저주를 선포한다. 부자들은 모든 소유물을 팔아 그 모든 수익금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도전을 받는다. 사도행전이 언급하는 공동체에서는 아무도 궁핍하지



않았고 과부와 고아와 이방인을 우선 섬겼다.

역사적 예수 학자들은 우리가 연구하는 단락은 누가의 복음 이야기 전체를 예견하고 또 요약한다고 주장한다. 즉 기독교 선교는 이스라엘을 넘어선 가난한 자들과 이방인들과 땅끝까지 기쁜 소식을 전달한다는 것이다.<sup>3</sup>

필자의 요점을 선명하게 하자면, 이 특별한 단락은 특히 18-19절은 필리핀의 많은 교회와 교회 연관 단체가 선호하는 성경 구절이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의 선교[사명]와 증거는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우리의 우선적 대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고백하는 이들 사이에서 그렇다. 18-19절은 필리핀 그리스도연합교회(United Church of Christ in the Philippines)의 신앙선언서에 포함되어 있다.<sup>4</sup>

### 우리, 그들, 우리 모두

대명사 “우리”는 소속을 전제한다. 한 전체 중 일부가 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내부자들이다. 나사렛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우리 중 하나”였다. 이사야는 “우리 중 하나”였다. 성경에 나온 약속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 그들의 마음 안에 완성된 전술한 약속들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도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오직 “우리만을 위한” 분이라고 전제한다.

“우리”는 다른 집단도 전제한다. 소속되지 않은 자들. 그들. 외부자들. 특권과 권력, 소유, 그리고 상품화 위에 구축된 제국은 종족들을 분열시키고 정복한다. 제국은 “우리”와 “그들”을 창조한다. 누가복음 4장의 한 단락이 아크라 고백서(2004)에 몇 차례 언급되고 마닐라 선언(Manila Declaration, 2006)에서 암시된다. 이 단락은 두 집단을 모두 제시하고 하나의 대안적 집단을 상정한다.

누가의 예수님이 25-27절에서 선포하시는 내용은 포괄적 복음 주제를 반향하며 바울이 갈라디아서 3:8에서 선포한 내용을 공감한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새번역).” 예수님은 실제로 가이사 왕국에 대한 대안을 선포하신다.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가 없고 “그들”도 없다. 오직 “우리 모두”만 있을 뿐이다.”

예수께서 이사야를 읽는 것을 경청하던 이들은 처음에는 행복해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회년의 도전을 해석하신 것을 듣더니 폭도로 돌변하여 예수님을 절벽에서 던져버릴 결심을 했다! 왜? 감히 예수가 하나님의 회년 수혜자들을 바꾸려 했기 때문이다. 주님의 은혜의 해를 다루는 레위기 25장은 토지와 자유와 모든 부채의 탕감을 선포했다. 회년은 로마 지배하에서 고통을 겪고 있던 한 백성에게 복음, 즉 기쁜 소식을 의미했다. 예수님은 그들이 “우리”를 해석할 때 “그들”을 포함하라고 도전하셨다.

예수님에게는 오직 “우리 모두(all of us)”만

##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모두 주님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다.

존재한다. 하나님이 우리 부모시라면, 우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모두 자매요 형제다. 나사렛 동료들만이 아니고, 갈릴리 동료들만이 아니다. 엘리야 시대에 가뭄과 기근으로 땅이 황폐해졌을 때,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 땅 사렙다에 사는 과부에게 보내셨다.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그들 중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했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고침을 받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 시돈의 사렙다 과부와 시리아인 나아만도 포함하신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에게는 가난한 자, 사로잡힌 자, 눈먼 자, 억눌린 자,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이 그저 “우리”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그들”, 즉 가난하고, 사로잡히고, 눈 멀고, 억눌리고, 은혜의 해를 기다리는 모든 이방인까지 의미했다. 그래서 회년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것, 그러므로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우리가 복음서를 재빨리 살펴보다도, 누가의 예수님은 “우리 모두” 속에 많은 “그들”을 포함하신다. 몇 명만 언급한다면, 목자들, 문둥병자, 중풍병자, 백부장, 백부장의 종, 죄인인 여인, 예전에 귀신들렸던 거라사인, 혈루증 여인, 절름발이 여인, 아이들, 열 명의 문둥병자, 눈먼 걸인, 과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명 중 한 사람, 나사로, 사마리아[여]인, 삭개오, 세리 등이 있다.

그리고 만약 제국이 “우리”를 “그들”로부터 분리하기 위해 조성한 최대의 차이점을 예수께서 넘어가시는 것에 대한 성경적, 역사적 지지가 더 많이 필요하다면, “네 원수를 사랑하라”(누가 6.27 이하와 마태 5.33 이하)고 하시는 예수님의 도전이 모든 의심을 제거한다. 심지어 유대교 학자들도 이 주장들이 이 특별한 1세기 유대인 랍비에게 독특한 점이라는 데 동의한다!<sup>5</sup> 복음서에는 가장 작은 자들을 실제로 섬기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희망인 자들의 편을 실제로 선택하는 “사랑하는 원수들”이 나온다. 부자이자 세리장인 삭개오는 가난한 자들에게 돌려주고 자기가 사취한 모든 사람에게는 4배로 갚는다. 백부장은 유대 백성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회당을 지어주었고 자기 노예를 극진히<sup>6</sup> 사랑하여 그 종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도움을



구했다. 그리고 우리는 물론 강도의 손에 떨어진 사람의 이웃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을 알고 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제국의 심장부로 온, 변화받고 대안적이며 성장하는 - 이전에는 원수였지만 이제는 신앙 안에서 자매요 형제인 유대인과 이방인의 - 이 공동체를 다룬다! 그리고, 여러 백부장들이 가난한 자들의 복음을 로마로 가져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탈식민지 이론들이 제국의 분리하고 정복하는 기술은 식민화된 집단을 다른 집단에 대항하게 만든다고 주장한 것을 우리는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압제 당하는 식민지 백성은 원수가 된다. 압제하는 식민주의자들은 자선을 베푸는 주인이 된다. 제국은 한 그룹, 한 인종, 한 장소, 한 종족을 가장 우월하게 만듦으로써 자기봉사적 패러다임을 영속화한다. 그때나 지금이나 제국주의는 다원적인 세계에 단일한 진리를 강요하는 데 언제나 관심을 가졌다. 이것은 식민화된 그룹들 사이에 소외와 적대를 조성한다. 그래서 식민자와 피식민자, 주변부와 중심 사이에 역동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주변부인 다양한 피식민자 그룹들 사이에도 역동성이 존재한다. 흑자는 민족·문화적 정체성을 정의하기 위해 힘을 가지려고 애쓸 뿐만 아니라 자기

집단의 압제자의 관심을 얻기 위해 경쟁하려 한다. 제국은 그것의 호의를 얻으려고 애쓰는 식민지들을 창출한다. 그리고 피식민자가 식민자에게 사로잡히면 제국은 식민 근성을 조성한다. 로마는 여러 “우리” 집단들을 다른 “그들” 집단들에 대항하게 함으로써 자기 권력을 유지했다.

스페인의 필리핀 점령은 3세기가 넘도록 지속하였다. 그 300년 중 어느 때에나 그 섬들에는 스페인 군대가 5만 명을 넘지 않았다. 그 3세기 동안 스페인에 항거하는 봉기가 9개월마다 일어났다. 그러나 스페인 군대는 별로 싸우지 않았다. 현지인들이 자기 동족과 싸우는 일을 했기 때문이다!

**오직 우리 모두(all of us)만 있을 뿐이다**  
가난하고 억눌리고 소외된 자들의 해방에 헌신된 삶은 제국에 대한 위험한 위협이었다. 그리고 그런 삶을 뒤따른 운동도 그러했다. 제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제국은 기독교를 삼켰다. 제국은 반격한다. 그것은 항상 그렇게 한다. 분열시키고 정복한다. 내부자와 외부자. 백인과 유색인. 이성애자와 동성애자. 남자와 여장. 구원받은 자와 이교도. 1%와 나머지 전부. 그리스도인과 지옥의 저주받은 자들. 우리 vs. 그들. 다원적인 세상에 단일한 진리를 강요한다.



우리는 회개해야한다.  
우리는 변화되어야한다.  
우리는 기억해야한다.  
그리고 우리는  
행동해야한다.

서구 기독교는 로마 시대 이후로 제국과 밀접하게 연관됐고 그렇게 세계 전역으로 퍼졌다. 그것이 지금은 오늘날의 제국을 사상적으로 합리화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세계화된 기독교세계와 그것이 현대에 추진하는 “십자군운동”은 세계적 자본과 세계적 제국권력과 공생적으로 뒤엉켜 있다. 그것은 승리주의적 추구에서 다른 종교 신념과 문화를 정죄하진 않더라도 무시한다. 많은 공동체의 토착 종교들을 파괴하고 이슬람을 비방한다.

기독교 종교와 서구 근대성의 수렵은 세계 곳곳의 종족들과 그들의 공동체 종교·문화 생활을 파괴했다. “기독교”의 이러한 신학적 왜곡이 세계 시장과 제국의 권력자들과 통치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종교적 갈등과 편견을 조장하고 있다.

제국의 종교인 기독교는 다른 사람들을 정복해야 할 “이방인”으로, 파괴해야 할 “악한 제국”으로, 지상에서 제거해야 할 “악의 축”으로 취급한다. 제국은 제국의 “선”이 이 “악들”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거짓 메시아적 정신은 악마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다. .

오늘날, 글로벌 제국은 그 전례 없는 접근성으로 생명에 대한 거대한 위협을 나타낸다. 구석구석에 스며있는 이 치명적인 세계적인 패권의 실제에 직면한 우리는 갈릴리 예수께서 주신 제국에 저항하고 생명공동체를 갱신하라는 영감과 위임을 받는다. 이 새로운 실체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영적 측면을 가진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삶과 죽음의 도전을 제공한다. 제국이

종교를 이용하여 그 지배와 폭력을 정당화하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주장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그 선교사역과 사람들을 참여시킨 모든 교회들에게 모든 측면에서 반제국주의적인 성경적 유산의 정신으로 회개하고 자신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하여 - 그들의 제국주의적 과거 때문에 희생당한 이들과 협력하여 - 진지하게 자신들의 구조, 가르침, 예전, 모금 기관, 정책 그리고 정치적 충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부탁한다.<sup>7</sup>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가 없고 “그들”도 없다. 오직 “우리 모두”만 있을 뿐이다.

우리가 위층에서 정기적으로 찬송가를 부르며 예배를 드릴 때 납치당하여 강제로 노예가 되어 우리 지하실에 쇠사슬에 묶여 있었던 천오백만 명의 아프리카인들이 우리 자매와 형제다. 우리 국경에 입국을 거부하는 수백만 명의 시리아 난민이 우리 자매요 형제다. 매일 가난 때문에 기아로 죽어가는 5세 이하 어린이 25,000명이 우리 자매요 형제다.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우리가 그 땅을 빼앗고, 이주시키고, 몰살시킨 수백만 명의 토착 종족들이 우리 자매요 형제다. “우리”를 “그들”로부터 소외시키는 것들, 즉 우리를 나누는 국경선, 우리의 안전지대, 우리의 선입견, 우리 가정 주변의 두텁고 높은 방벽시설, 우리 건물, 예배처소, 우리의 정확한 피부색 코드 지도, 심지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세운 아파르트라이드 장벽, 카스트제도의 경계, 신조, 인종, 젠더, 우리를 가르는 계층 - 가시적이든 비가시적이든 - 은 모두 인간이 만든 것이다. 우리가 그것들을 세웠다. 그 의미는 우리가 그것들을 허물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한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행동해야 한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는 우리 중 많은 사람은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수익금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라야만 한다.

그렇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부활하셨다!

형제 중 첫째였던 가인에게 하신 하나님의 질문은 변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이었다. 매일 우리는 바로 그 질문에 직면한다. 우리 대부분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해 응답하는 데 실패했다. 이제 심판[결산]의 날이 왔다. 당신의 형제는 어디 있는가? 당신의 자매는 어디 있는가?

부활하신 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가 없고 “그들”도 없다. 오직 “우리 모두”만 있을 뿐이다.



## 연구주제

1. 당신의 형제는 어디에 있는가? 당신의 자매는 어디에 있는가?
2. 당신 주변의 이웃 가운데서 무슨 장벽을 보는가?
3. 당신은 무슨 장벽을 구축했는가?
4. 당신의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장벽을 해체하는가? 당신의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장벽을 쌓는가?

### 자료

- Abesamis, Carlos, SJ. *A Third Look at Jesus*. Quezon City: Claretian Publications, 1999.
- Aoanan, Melinda Grace, ed. *Babaylan: Feminist Articulations and Expressions, Volume 2*. Cavite: Union Theological Seminary, Philippines, 2009.
- Carter, Warren. *Matthew and the Margins*. New York: Orbis, 2000.
- Constantino, Renato. *Neocolonial Identity and Counter Consciousness: Essays on Cultural Decolonization*. New York: M.E. Sharpe, 1978.
- Crossan, John Dominic. *Jesus: A Revolutionary Biography*. San Francisco: Harper Collins, 1995.
- Crosan, John Dominic. *The Greatest Prayer: Rediscovering the Revolutionary Message of the Lord's Prayer*. HarperCollins E-books, 2010.
- De La Torre, Edicio. "The Philippines: A Situationer." *Those Who Would Give Light Must Endure Burning*. Bautista and Amirtham, eds. Quezon City: NCCP, 1987.
- Dube, Musa. *Postcolonial Feminist Interpretation of the Bible*. St. Louis, Missouri: Chalice Press, 2000.
- Fanon, Franz. *The Wretched of the Earth*. New York: 1968.
- Freire, Paulo. *Pedagogy of the Oppressed*. Myra Bergman Ramos, trans. New York: Herder and Herder, 1972.
- Kwok, Pui-lan. "The Global Challenge." *Christianity and Civil Society*, ed. Rodney Petersen. Maryknoll: Orbis, 1995.
- Fernandez, Eleazar. *Toward a Theology of Struggle*. New York: Orbis, 1994.
- Funk, Robert and the Jesus Seminar. *The Five Gospels: The Search for the Authentic Words of Jesus*.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1993.
- Herzog, William. *Parables as Subversive Speech: Jesus as Pedagogue of the Oppressed*. Westminster/John Knox, 1994.
- Ileto, Reynaldo. *Pasyon and Revolution*. Quezon City: Ateneo de Manila University, 1979.
- Gandhi, Leela. *Postcolonial The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8.
- Levine, Amy-Jill. *The Social and Ethnic Dimensions of Matthean Social History*. Lewiston: Mellen, 1988.
- Mananzan, Mary John. *Challenges to the Inner Room, Essays on Women, and Women and Religion*. Institute of Women's Studies, St. Scholastica's College, 1998.
- Patte, Daniel, Monya Stubbs, Justin Ukpong and Revelation Velunta. *The Gospel of Matthew: A Contextual*

*Introduction for Group Study*. Nashville: Abingdon, 2003.

- Sugirtharajah, R.S. *Asian Biblical Hermeneutics and Postcolonialism*. New York: Orbis, 1998.
- Schirmer, Daniel. "The Conception and Gestation of a Neocolony." *The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Vol 5. No. 1, 1975, 43-44.
- Scholtz, Susanne Scholtz, Ed. *Biblical Studies Alternatively: An Introductory Reader*, 2002.
- Tapia-Raquel, Lizette G., *Crying Out, Resisting, Asserting, and Celebrating: Proclamation and Poetry*. Cavite: Union Theological Seminary, Philippines, 2015.
- Velunta, Revelation. "The Ho Pais Mou of Matthew 8:5-13: Contesting the Interpretations in the Name of Present-Day Paides." *Bulletin for Contextual Theology*. School of Theology, University of Natal. Vol 7.2. June 2000, pp.25-32.
- Velunta, Revelation, "Disciples, Eunuchs, and Secrets." *Disruptive Faith, Inclusive Communities: Church and Homophobia*. George Zachariah and Vincent Rajkumar, eds. Bangalore: CISRS/ISPCK, 2015.

### 결론

- 1 무사 두베(Musa Dube)는 자신의 성경공부에서 제국과 제국주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 2 존 도미니크 크로산(John Dominic Crossan)과 윌리엄 헤어조그(William Herzog)의 저술이 이 주제에 관한 탁월한 자료다.
- 3 *The Five Gospels: The Search for the Authentic Words of Jesus*.
- 4 <http://uccpchurch.com/what-we-believe/>
- 5 자료 출처. Amy Jill Levine. *Who did he say he was? Jesus in Text and Context*. <https://youtu.be/wbE87SHRQ3A> 에서 구할 수 있다.
- 6 필자는 그 노예가 백부장의 애인이었다고 도처에서 논증했다.
- 7 마닐라 선언에서 발췌함. Manila Declaration, July 2006. World Alliance of Reformed Churches.



# 신학

## UTHIXO O PHILILAYO : 살아계신 하나님

부야니 벨렘 Vuyani Vellem

### 초록

본 논문은 우리 개혁신교회 유산에 맞게 우리 인간은 자신을 이해할 수 있을 때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본질상 **우분투(Ubuntu) - 모토 케 모토 카 바토 바방**-의 철학과 윤리 안에서 구성된 우리의 대화는 흑인 아프리카인의 삶이 기독교의 표준이라고 제안하진 않지만 흑인 아프리카인의 경험의 작은 틈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한다. 서구 기독교는 흑인 아프리카인들에게서 그 역사와 정체성을 거세하여, “백인의 권력 구조”라는 주술과 신화에 흑인 아프리카인의 삶을 회복 불가능할 지경까지 전적으로 종속시켰다. **우분투**의 회복을 위한 생존투쟁 즉, 억눌린 자들이 자기 정체성을 완강하게 붙들고 이뤄낸 성과는 폭압의 껍데기를 깨뜨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드러낸다.

### 도입부

숙고의 첫 단락에서 우리는 우리 시야에서 너무 멀리 사라진 이들을 찾아 나설 것이다. 그들이 없이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상당히 불투명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신들의 투쟁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우분투**의 회복을 위한 생존기술로 제국의 신들을 부순다는 결론을 내릴 것이다.

### 시야에서 사라진, 시야에서 멀리 떨어진

비천한 몸뚱이, 부서진 몸뚱이, 고문당한 몸뚱이, 폐기된 흑인의 몸, 제국의 시대에 우리에게서 감춰진, 시야에서 사라진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려고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된다. 하나님께서 해방 투쟁의 역사에서 계시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신-언(God-talk)에 집중된 대화에 참여하는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소중히 여겨야 할 가장 유용한 교훈 중 하나이다. 가난한 자의 편을 드시는 하나님의 신비는 교회의 사회정의 담론의 수백 년 역사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상당한 기간 기독교의 일부 영역을 휩쓸었으며”(Tefsai 1996: 126) 사실상 “교회사에서 의미심장한 돌파구”를 나타낸다(Tefsai 1996:127).

사회·역사적 해방 과정에 있는 비천한 자들의 신앙적 실천(faith praxis)의 이 신비는, 가난한 자들을 부자들의 시야에서 사라지도록 밀치고 “그들의 불결한 외관과 더러운 몸뚱이들”(Tefsai 1996:127)을 하나님의 예배와 영광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으로 경험된, “창조의 질서화(ordering of creation)”의 지배적 이해와 대조된 모습으로 남아 있다.<sup>1</sup> 남아프리카에서 비천한 자들을 시야에서 사라지게 하는 이런 경험은 흑인 아프리카인들을 삶 전체에서 사실상 완전히 배제하는 것을 인종적으로 정당화하는 최악의 종교 파시즘 형태 중 하나를 낳았다. 이렇게 흑인의 생명을 업신여기고 배제하기 시작한 것은 1857년 화란 개혁 총회(Dutch

Reformed Synod)가 “실천적 고려사항” 때문에 예배 중에 흑인과 백인을 분리하기로 한 결정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Cf. De Gruchy and De Gruchy 2004: 7-9). 제국 상황에서 뻔하듯이 사실상 생명을 죽이려는 제국적, 독재적 형태의 권력에 맞서는 신앙이 없이는 남아프리카의 역사를 이해하기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예컨대, 아프리카너 농부들과 영국 상인들의 연합을 상징하는, 남아프리카 연방(Union of South Africa :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신 - 역주)은 1910년에 황금, 토지 박탈, 남아프리카의 다수자를 문화적, 신앙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성문화했다. 이 인종적 배제는 신앙에 의해 정당화되었다. 무사 두베(Musa Dube)가 적절하게 기술했듯이 “성경의 독자인 선교사들과 성경의 본문과 제도를 반영한 그들의 역사적 행동”(2000:15)은 토지를 박탈하고 흑인 아프리카 종족의 문화와 인식을 말살하는 황금 신에게 속하게 되었다. 서방과 흑인 아프리카 상황의 접촉은 신들의 조우 이야기로 남아 있다. 무딤베(Mudimbe)는 종교를 연기(performance)로 표현함으로써 이것을 잘 설명했다. “어떤 종교도, 종교의 의식과 연극성도 인식적 현상으로 받아들여야”(1997: 2). “실제로는 외적인 ‘어떤 것’ 즉, 매일의 실천과 그것의 명백한 합리성을 초월하는 믿기지 않는 것, 계시와 구원을 나타내는 말씀을 가리키는 연기다”(1997:5).<sup>2</sup> 종교의 이러한 역사적 연기 행위는, “... 신학은 편협하게 정의된 종교 영역에 제한될 수 없다”(1996:10)라고 말한 이글턴(Eagleton)의 경고를 따른다면, 흥미진진하다. 가장 위험한 우상들은 종교적, 신학적 시야를 벗어나 “비종교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 안에 숨어 있다.

내세지향적 신학이 교회에서 정치를 다루면 안 된다고 가르친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세속적인 행위(performance)와 제도는 종교적인 것에 진정으로 연결된 채 남아 있다. 그것이 진정한 종교성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세속을 종교에서 분리하는 “창조의 질서화”에 대한 지배적인 이해에 반하여, 이제는 생명을 파괴하면서 창조 전체를 통합하는 “제국에 의한 창조의 질서화”가 진행되고 있다. 가난한 자들의 편을 택하는 신비가 “하나님께서 어디서 일하시는가”를 추구하는 우리의 노력에 영감을 불어넣는다(Boesak: 19-25). 필자가 **우티스 오 필라요 : 살아계신 하나님** 주제를 숙고할 때,<sup>3</sup> 남아프리카 음푸말랑가(Mpumalanga) 주에 소재한 금광 도시인 바버튼(Barberton) 어딘가 땅속에 갇힌 세 사람에게 대한 생각이 마음에서 떠나질 않는다. 프리티 응캄블레(Pretty Nkambule)와 이본 음니시(Yvonne Mnisi)와 솔로몬 니에렌데(Solomon Nyerende)가 지하에 갇힌 지 거의 한 달이 되었는데, 1994년 이후의 남아프리카

흑인의 생명이 처해 있는 비극적 환경의 실상은 아직도 충격적인 모습으로 남아있다. 몇 가지 방해물, 즉 미진과 천공기 고장과 낙석 때문에 구조 작전을 중단해야만 했다.

노동을 하다가 시야에서 사라진 이 사람들은 아프리카에서 표면상으로 “반대” 쪽 해안선에 있는 더 나은 삶을 찾아 지중해를 건너다가 익사하는 수백만 명의 경험의 일부이다. 그들은 시리아를 도망쳐 유럽으로 피신해야만 했던 수백만 명, 이라크에서 죽은 자들, 볼리비아와 과테말라에서 토지가 없는 이들, 농부들, 토착 종족들, 불가촉천민과 야만적 정복에 질식당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같다. 사실 시야에서 사라지고 우리 생각에서 사라졌지만 소중한 생명들이다. 그건 그렇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살펴 보자. 최근 국제연합은 UN 평화유지군이 연약한 여성들의 몸을 더럽혔고 수백만 명의 어린이가 가족과 가정으로부터 멀리 흩어졌다고 폭로했다. 이 모두가 제국의 신들의 손에 의해 우리 시야에서 사라진, 우리 생명의 시야에서 멀리 사라진 인간들에 대해 말한다. 코운(Cone)은 이글턴의 앞 주장에 동의하면서, 사실 세속 세계가 생존 투쟁이라고 언급하는 것을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며(1975: 2) 우리의 사명은 제국의 은혜된 “신들”을 폭로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코운은 이렇게 말한다.

삶에 대한 이런 시각이 더 넓은 “세속” 흑인 공동체에서는 “생존 기술”로 불리곤 한다. 그러나 우리 흑인 교회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른다. 그것은 존엄을 잃지 않으면서 압제 상황에서 육체적으로 살아남는 것이기 때문에 생존이라고 불린다. 우리는 그것이 수고하고 받은 것이 아닌 “모든 선하고 완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에게서 온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부른다(1975:2).

필자는 금광 도시에서 성장했다.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추구하던 필자의 신앙 여정을 조성해 준 회중을 이루었던 큰 부분은 가족을 떠나 생존하던 이주자들이었다. 이 광부들은 살기 위한 생존의 만남에서 - 우분투가 그들의 삶에서 떨어진 것처럼 보였을 때 - 극적인 행위로 자신들의 하나님께 춤을 춘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류와 창조 전체와 만나시는 생명의 만남을 자신들의 생명으로 춤추었다.

우분투가 넓게는 삶의 통합과 유쾌함에 대하여 말한다면, 흑인 아프리카인들에게 살아있음은 *하나님 존전의(coram Deo)* 생명을, 즉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추는 생명의 춤과 리듬을 의미한다(Cf. Buthelezi 1987: 96). 노래와 춤이 수반되었던 부족 전쟁의 이미지가 내 마음에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듯이, 노래하며 춤추는 남자들의 감미로운 소리에 대한 기억은 경이로우면서도 두렵기까지 하다. 레오나르도 보프(Leonardo Boff)는 이렇게 말한다.

기독교 공동체의 창립자에 대한 기억은 위험하고 전복적이다. 그 내용은 해방의

내용이다. 그러므로 그 메시지는 불가피하게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우선시한다 (1989: 4)

시야에서 사라진, 땅 속 깊이 어딘가에 갇혀 버린, 총구를 통해 시야에서 사라진, 지하 깊이가 수많은 지층 아래 갇혀버린, 우리 시야에서 멀리 사라진 남성과 여성! 코운의 압제당한 자들의 하나님은 정확히 압제당하신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알란 보삭(Allan Boesak)도 여기에 동의한다. “제자도란 ‘하나님께서 비통해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서는’ 것, 즉 ‘그리스도의 길에 붙들리는 것’이라고 본회퍼는 주장한다”(2015:23).

“신들”의 투쟁: “소가 아는 것을 ...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우리는 모르지만 언제 창조와 우분투와 생명의 거세가 일어나는지, “씨앗이 싹틀 때까지 땅이 그것을 품고 있는 것처럼” 언제 선견지명 있는 자들의 기도와 낙담한 자들의 비전이 믿음을 품고 있는지(Boff 1987:97) 나귀는 알 것이다.

유다 왕 웃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이사야 1)

소가 아는 것을, 심지어 나귀도 아는 것을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한다. “신들”에 관하여 존 드 그루치(John De Gruchy)는 이렇게 말한다.

“신”이란 단어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 우리 삶에서 궁극적으로 중요한 대상을 상징한다. 이 점에 관하여 사람들이 서로 나누는 이유는 한 “신”을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사람들을 분리키는 것은 그들의 “신”이 누구인가, 그들의 “신들”이 어떻게 그들과 관계를 맺는가, 어떻게 그들의 “신”으로부터 도덕적 가치를 유도하는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개인이자 사회인 그들의 일상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그들의 이해이다(1991:94).

개혁주의 신학자로 묘사될 수 있는 남아프리카인들이 쓴 저술 중 일부는 단지 제목만 훑어보아도 이 대화에서 의미가 있다.<sup>4</sup> 먼저, 보삭의 흑인 개혁주의자(1984)에 나오는 여러 제안 중 하나는 흑인 정체성과 우리 개혁주의 유산과 그것의 관계에 관한 핵심적인 질문이다. 우리는 이 전통에 참여함으로써 흑인 종족의 정체성을 위한 투쟁과 그 전통 자체가 흑인 정체성에 무엇을 했는지 간과해선 안 된다. 첫째 본문을 거의 도치시킨 존 드 그루치의 개혁신학 해방하기(1991)는 표면상으로 개혁 신앙의 정체성을 흑백 갈등의



역사적 내러티브 안에 분명한 인식론적 왜곡으로부터 풀어주거나 해방해야 할 핵심 쟁점으로 상정한다. 카벨라는 자신의 저서인 *티요 소가 : 신들의 투쟁 : 기독교와 아프리카 문화 연구*(1996)에서 전쟁터에서 반목하고 진퇴양난에 빠진 개혁신앙의 모순과 식민주의자들의 혹독한 공격으로 인한 흑인의 패배 안에서 남아프리카 최초의 흑인 안수 목회자인 티요 소가에 대한 동질감 있는 관점을 제시한다. 그 근처에는 정체성 문제, 실은 “신들”의 투쟁으로 받아들여진 식민주의와 정복과 기독교화에 반대하는 흑인 종족의 문화적 투쟁이 있다. 이 작품들과 다른 많은 작품에서 그중에서 생생하게 돋보이는 단순한 주제는 하나님과 “신들”의 글이 종이에만 쓰인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몸과 마음과 혼에도 쓰여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개혁신앙의 종교 행위이자 흑인 아프리카 종족의 생존 투쟁 행위이다.

### 제국 “신들”의 꺾데기 깨뜨리기

“신들”의 거세는 “하나님은 명사라기보다는 동사다”라고 말한 테리 이글턴(Terry Eagleton)의 명언에 들어있다(2009: 87). 그렇다. 흑인 아프리카인들의 온전한 삶 - 우분투 - 은 “동사”다. 그리고 이 “동사들”을 아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신들”을 거세하신 것을 아는 것이다. 이 흑인 삶의 “동사”에 관하여 스티브 비코(Steve Biko)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흑인 의식(Black Consciousness)은 흑인을 흑인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을 인식한다. 그것은 흑인들이 자신들과 자기 노력과 자신들의 가치체계와 자기 문화와 자기 종교와 자기 삶의 전망에 대하여 새로이 발견한 자부심을 흑인 공동체에 주입하려고 애쓴다(2004:53).

흑인 아프리카인들의 애통하며 부서진 몸뚱이들은 “울지 마라. 너희 흑인 자부심의 ‘동사들’ 안에 그리고 너희 가운데 있는 신들의 능력을 깨뜨리고 거세하려는 노력 안에 너희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찢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의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국가 비상사태 기간에 대규모 학생 집단들의 리듬과 노래와 거리 예배, 남녀 노인들, 재판 없는 구금, 암살단의 손에 죽어간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무수한 죽음들, 거의 매주말 이 전복적인 노래의 울림으로 가득 찬 흑인거주지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동사들”

이 되었다.

틀라! 틀라! 시즈웨  
우예호바 와코 우조쿱코벨라!  
잉쿠루레코, 지조이틀라

조용! 조용! 사람들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가 당신을 위해 승리하리라  
우리는 해방을 얻으리라!  
데오 글로리아(하나님께 영광)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 결론 내리지 않은 생각들

우분투가 거세되고 인간 비하의 층들 아래로 시야에서 멀리 사라진 것 처럼 보일 때, 신들이 하나님을 시야에서 멀리 사라지게 했을 때, 해방의 “동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시한다.

### 자료

- Biko, S 2004. *I write what I like*. 2004. Johannesburg: Picador Africa.
- Boesak, A. 1977. *Farewell to Innocence. A Social-Ethical Study of Black Theology and Black Power*. Johannesburg: Raven.
- Boesak, A. 1984. *Black and Reformed*. Johannesburg: Skotaville.
- Boff, L. 1989. *Faith on the Edge*. San Francisco, New York: Harper and Row.
- Buthelezi, M. 1987. “Salvation as Wholeness” in Parrat, J. A Reader in African Christian Theology. London: SPCK.
- Cone, J.H. 1975. *God of the Oppressed*. New York: Seabury
- De Gruchy, J. 1991. *Liberating Reformed Theology*.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 De Gruchy, J.W. & De Gruchy, S. 2004. *The Church Struggle in South Africa*. London: SCM Press.
- Khabela, M.G. 1996. *Tiyo Soga. The Struggle of the Gods. A Study in Christianity and the African Culture*. Alice: Lovedale.
- Tefsai, Y. 1996. *Liberation and Orthodoxy: The Promise and Failures of Interconfessional Dialogue*. Maryknoll, New York: Orbis.

### 결론

- 1 필자가 개혁주의 세계에 잘 알려진 이 표현을 채택한 이유는 이 전통이 흑인 아프리카인들 특히 남아프리카의 경험에 전반적으로 무엇을 수반했는지 나타내기 위한 의도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 2 이 문제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더 분명하게 보고 싶으면 다음 논문을 참고하라. Vellem, VS ‘Spirituality of liberation: A conversation with African religiosity’, HTS Theologies Studies/Theological Studies 70(1), Art. #2752, xx pages. <http://dx.doi.org/10.4102/hts.v70i1.2752>.
- 3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시호사(isiXhosa - 남아프리카 제2언어 - 역주) 어로 번역한 것이다. 그것은 중요하다.
- 4 우리의 제한된 공간 때문에 이 본문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여기서 제시한 그것들에 대한 묘사는, 따로 논문을 작성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것들의 핵심 논증에 맞는 것이다.

# “갱신하고 변화시키는” 개혁 신학

릴리 피리 Lilly Phiri

## 도입

“교회는 개혁되었고, 항상 개혁한다”(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는 말은 우리의 좌우명일 뿐만 아니라 정체성의 일부이기도 하다. 이 정체성은 지속적인 교회 혁신과 지속적인 세태 파악을 통해서 충만한 생명의 복음에 대한 신실함을 견지하라고 우리에게 호소했다. (WCRC 실행 위원회 회의록, 2015)

세계 교회가 개신교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준비를 하는 와중에, 우리는 개혁주의 전통에 속한 개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와 기관으로서 지금껏 우리가 걸어온 신학적 여정에 대해 내적인 성찰을 할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의 불길을 생생하게 유지해줄 새로운 신학적 궤도를 예측하고 구상해야 한다. 바야흐로 우리는 신학적 적절성을 유지하면서 “갱신하고 변화시키는” 과정의 일부로 새로운 신학 방향을 진술하라는 시대적 도전을 받고 있다.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으며 어디에서 신학적 모험을 하기 원하는가를 검토할 때 우리는 “갱신하고 변화시키는” 접근법을 신학적 참여에 받아들일 만큼 용감해질 필요가 있다. 한편에서는 신중하게 이 순간 개혁신학 안에 내재한 근본적인 것들과 “타협 불가능 것들”을 고수하여 우리 정체성을 유지하라고 권면한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바야흐로 “깨달음을 추구하는 신앙”의 부흥을 찾아 안전지대를 벗어나 전진하게 하는 “갱신하고 변화시키는” 신학 작업의 패러다임을 수용하는 과제에 착수할 때가 되었다. “갱신하는” 것은 재창조하고 고치고 회복하거나 재활성화하는, 즉 기본적으로 어떤 것에게 생명을 돌려주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변화시키는” 것은 형태, 본질, 특성의 변신(metamorphosis)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갱신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동시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는 개혁신학을 다시 생기있게 만들면서 동시에 우리 신학의 체질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 개혁신학 근원 개관

신학에 대한 기본 이해는 그것이 하나님과 종교사상에 관한 학문이라는 것이다. 개혁신학을 정의하는 것보다 그것을 서술하는 게 더 쉽다. 그래서 잔 롤스(Jan Rohls)는 그것이 “모두 같은 가족에 속해 있으면서도 고도로 다양한 신학적 입장들의 다원성에 녹아버린다”(2003:35)라고 주장한다. 개혁신학은 신학적, 고백적 차이점들이 뚜렷한 신학이며 동시에 개혁주의 전통에 속한 교회들 사이의 에큐메니즘을 강조한다. 개혁신학은 개혁자 중에서 특히 장 칼뱅(John Calvin), 요한네스 후스(Johannes Hus) 그리고 훌드리히 츠빙글리(Huldrych Zwingli)의 노력으로

탄생했다. 그 출현은 네덜란드, 잉글랜드, 프랑스, 독일, 스코틀랜드, 그리고 스위스 신학자들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종교개혁자들은 라틴어로만 쓰고 라틴어로만 읽을 수 있는 엘리트용 성경과 연옥 개념과 면죄부 판매에 관하여 로마 가톨릭 교회를 도전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개혁신학은 당대의 다른 신학적 관심사에 대해 고민했다. 아래에서, 필자는 오늘날 개혁신학을 신학적으로 도전하는 몇 가지 실제 상황들을 개관할 것이다.

## 오늘날 개혁신학 하기

가치 있는 모든 신학은 그 시대의 도전들에 대해 반응해야 한다. 현대의 개혁신학은 계속해서 그 신학적 관심과 신학적 영감에 고취된 행동을 촉구하는 여러 논쟁적인 실체에 직면해 있다. 개혁신학이 직면한 도전들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 일부만 나열하자면 생태 및 기후 변동, 인류를 종속시키는 경제, 빈곤, 셀프서비스를 증진하는 정치 체제, 실업, 군국주의화, 성과 성적 취향, 성별간 평등, 인신매매, 차별, 인종차별 등이 있다. 이 도전 중 일부는 개혁주의 가족들 안과 밖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신학적 응답은 내부와 외부를 살펴 왔고 계속 그래야만 한다. 개혁신학은 내부적으로 끊임없는 자기-재정의(self-redefinition)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동시에 전 세계적인 오순절운동의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선교사역을 수행하고 기독교의 경계를 넘어선 연합운동을 전개하면서 성별간 평등뿐만 아니라 성과 성적 취향 문제도 다루어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지구는 인간의 생명과 비인간 생물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기후 변동과 생태 불균형을 계속해서 겪고 있다. 그러므로, 생태신학적 담론이 사라지길 바라면 안 된다. 2004년 아크라 고백서와 다른 신학적 담론들을 통해, 개혁신학은 기후변화의 도전에 응답하여 피조 질서 가운데 책임있는 관계를 요청했다.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지구촌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는 삼림파괴, 수자원과 공기와 토양의 오염, 해로운 농법 등을 경험하며 그런 보고서들을 읽고 있다. 많은 이들이 아직도 아크라 고백서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므로 아크라 고백서가 개별 지역교회들 사이에 번역될 수 있는지를 고려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주문은 시행되지 않았다. 개혁신학은 의도적으로 개 교회 수준에서 창조 질서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실질적 접근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신학적 전략과 방법론을 “갱신하고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게다가 기후변동 문제는 경제, 정치, 빈곤, 및 실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현 자본주의는 인류 복지와



피조 질서보다 부의 창출을 더 권장한다. 한 예로 아동과 성인이 비인간적 조건에서 일하는 악명높은 노동착취현장을 들 수 있겠다. 자본주의는 또한 영토와 확보한 천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군국화를 촉진한다. 경제는 대개 다수를 희생시켜 소수에게만 혜택을 주는 정책과 정치체제의 도움을 받는다. 침체한 경제권에서 추출된 자원이 자본주의 수혜자들의 삶을 채워주지만, 그 자원의 정당한 소유자들은 더 빈곤하게 되고 만다. 게다가 빈곤한 경제권은 새로운 형태의 식민주의를 겪게 된다. 즉, 경제적 식민화는 다국적으로 운영되는 초국가적 기업들을 통해 값싼 노동력을 사용하며 자원고갈에 상당히 기여한다. 이 걱정스러운 적자생존 상황에서, 그러한 불의들 때문에 이 개혁신학은 세계·국가·지역적 교회의 수준에서 전반적인 불의를 다루는 예언적이 되어야 필요에 관하여 신학적 도전을 받게 된다. 그러한 때에 개혁신학과 지역교회들과 개별 그리스도인들은 권력에 대해 진리를 말할 여유가 없는가?

성별간 불평등, 카스트와 인종차별은 현대 사회에 현저한 수많은 형태의 차별 중 일부이다. 2012년 필자가 흥미로운 대화를 나눈 한 친구는 신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자기 교회가 신학생들의 목회준비 훈련을 위탁했지만, 안수를 받기에는 “틀린” 성별로 간주했다고 한다. 이 사례는 특이한 상황이 아니다. 많은 여성이 자신의 성별 때문에 교회 안팎에서 온갖 종류의 차별을 계속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는 여성들을 실력이 아니라 형식 치레로 인정해주는 것처럼 보인다. 개혁신학은 전 세계적 차원에서 성별 불평등을 다루려고 했다. 그렇지만 성별 정의를 실질적인 현실로 만들 책임은 개혁주의 전통에 속한 개별적인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아 있다. 결국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갈라디아서 3:28). “갱신하고 변화시키는” 개혁신학으로 가는 여정은 성별과 무관하게 개인들의 인간 존엄성 회복을 요구한다. 어떤 형태의 불의든 우리는 그것에 저항해서 행동할 만큼 충분히 불편하게 되어야 한다. 우리 교회들 안에 있는 무슨 신학과 해석학이 성별간 평등을 방해하는가? 그리고 인류의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그 신학과 해석학들을 다시 논의하고 “갱신하고 변화시키는” 일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할 수 있는가?

필자는 성, 성적 취향, 그리고 인간의 몸을 논의하는데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기로 했다. 바야흐로 개혁신학이 성에 관하여 불이행(default)이 아닌 설계(design)로 논의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성과 성적 취향은 우리 인간성을 구현하기 때문에 우리 존재의 통합적 요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과민한 주제로 남아 있다. 필자가 이 논문을 쓰는 와중에, 예전에 몇 번 교류했던 한 활동적인 젊은 남성이 자신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종교문화적 촉감과 다르다고 자살을 시도한 후에 필자는 성과 성적 취향과 인간의 몸이란 주제의 중요성이 생각났다. 성과 성적 취향과 인간의 몸이란 주제들은 삶과 죽음에 달린 것이다. 그러나 어떤 생명도 성적 취향 때문에 잃어서는 안 된다. 인간의

몸은 그 형태나 모습이나 지향성이나 정체성과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요 죄와 동의어는 아니므로 축하할 뿐이다. 종교개혁의 선구자인 칼뱅은 인류의 창조와 타락에 관한 자신의 논증과 바울 서신에 근거하여, 1. 원죄란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헛된 시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경멸당할 때, 그분에 대한 모든 경외는 사라진다. 우리가 이를테면 하나님의 입술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위엄은 우리 가운데서 적절하게 존중받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배도 온전히 유지될 수 없다”(Calvin 2002:154).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께서 최상임을 인정하고 그분께 경배하는 대신 인류가 그분의 자리를 차지하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를 구성한다. 성행위를 죄로 간주하고 그럼으로써 인체를 정계하는 윤리를 강조한 아우구스티누스 전통과 달리, 칼뱅은 자신의 논증을 창조의 선성에 관련하여 조절한다. 칼뱅의 타락론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시도한 것 외에는 다른 욕망을 정죄하지 않는다.

인류의 타락에 관한 이런 이해를 기반으로, 인간의 성적 취향과 몸은 통제하고 감시할 죄악된 객체들이 아니라 축하를 받아야 할 주체들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성적 취향과 인간의 몸에 대한 비규범적 접근은 인간의 성적 취향을 생식에만 국한하고 그럼으로써 이성애 규범을 지지하는 대신 우리 인간성을 전인적으로 품을 수 있게 해준다. 우리가 다른 몸들과 다른 성적 취향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현대 개혁신학이 상상할 수 있는가?

일부 교회는 이성애 규범성을 주장하는 반면 다른 교회는 모든 성적 취향을 더 포용함으로써, 성 문제와 성적 취향 문제는 교회 분열의 원인이 되었다. 양쪽 입장 모두 자기 입장의 권위를 성경에 둔다. 비규범적인 성적 취향을 정죄하는 데 사용된 일부 본문 중에는 창세기 1:27과 창세기 19장이 있으며, 이 본문들은 지배적인 내러티브 관점으로부터 이해되었고, 그래서 이성을 선호하고 다른 형태의 성적 취향들을 거부했다. “갱신하고 변화시키는” 노력을 통해 우리는 성경에 많은 음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그리고 지배적인 내러티브가 모든 인류를 위해 생명긍정적이지 않을 때, 대안적 내러티브를 추구해야 한다. 성적인 보완성에 주목하지 않는 창세기 1:27의 대안적 내러티브는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라. 창세기 19장의 대안적 내러티브는 어떤 모습일까? 죄에 대한 대항 내러티브는 어떤 모습일까?

종교개혁의 의제들은 부분적으로 “해방된 성경”을 추구하다가 진전된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성과 성적 취향에 관련된 성경해석학과 관하여 21세기의 성경이 얼마나 해방되어 있는가이다. 정죄하지 않는 태도로 성과 성적 취향에 대한 과감한 신학 논의를 해보자. 성과 성적 취향이 아무리 논쟁을 초래하는 것처럼 묘사된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은 반드시 다뤄야 할 21세기 도전의 일부이다. 신학적, 고백적 다양성을 촉진하는 개혁신학의 전형적인 모습처럼, 우리는 성적 취향의 다양성을 희생하면서 생명긍정적인 성적 취향들의 수렴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관습을 거스를 수 있다.<sup>2</sup> 성적 취향의 수렴을 권장하는 것은 생명긍정적 성적 취향의 축진을 감안하고 성적 취향을 분열시키는 것에 집중하지 않을 것이다. 성적 취향의 수렴은 모든 인간의 성적 지향성이 아니라 인간성 때문에 그들을 포용하게 되는 성경해석학에 영향을 미칠 잠재력이 있다. 결국, “갱신하고 변화시키는” 개혁신학은 우리에게 안전지대를 벗어나 활동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라고 재촉한다.

**갱신하시고 변화시키소서: 개혁신학의 미래 진로**  
 개혁신학은 역사상 특별한 순간의 도전들에 반응하려고 노력함으로써 “갱신하고 변화시키는” 중요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다. 미래를 예측하고 현대 신학의 지형을 파악할 때, 전 세계 개혁주의 가족은 기독교적 표현과 종교적 신념의 수가 늘어나는 와중에서 개혁주의 정체성 유지가 필요한 현실을 벗어날 수 없다. 조지 스트룹(George Stroup)은 이렇게 말한다.

개혁주의 전통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다른 종교 전통의 대표들과) 에큐메니컬 대화에 참여할 때, 자신의 신학적 정체성, 즉 자신이 개혁주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인지 그리고 에큐메니컬 대화에 무엇을 가져오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2003:257).

개혁주의 정체성은 다른 기독교 정체성과 종교적 정체성과 접촉하게 되면 변화를 겪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도 핵심적이다. 게다가, 우리는 개혁주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는 한편 기독교의 한계를 넘는 에큐메니컬 일치에 어떻게 참여하는가?

전 세계적으로 비뚤어진 영성인 주관적 유물론 (물질만능주의)을 조장하는 오순절 극단주의가 부흥하는 와중에, 개혁신학은 어떻게 그런 발전에 신학적으로 참여하면서 선교를 수행하느냐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갱신하고 변화시키는” 이해는 하나님과 나머지 피조물과의 건전한 관계를 희생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물질적 소유의 축적을 하나님의 복의 표시로 권장하는 변영의 신학을 초월하는 개혁신학이 될 것을 요구한다.

게다가, 우리는 성별, 성, 성적 취향을 21세기와 그 이후의 생명긍정적 방식으로 어떻게 가장 잘 신학화할 수 있겠는가? 고백적, 전통적 수준에서 다양성 속의 일치를 증진하는 우리 개혁주의 정체성이 성별과 성과 성적 취향 문제에 관한 다양성 속의 일치로 가장 잘 옮겨지는 방법은 무엇일까?

**결론**  
 다가오는 종교개혁 500주년은 개혁주의 가족이 신학적으로 출발한 곳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곳을 성찰하는 순간이 될 것이다. 이 논문은 포괄적인 안내서도 아니고 구속력을 가진 것도 아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신학들의 종류를 결정짓는 다양한 상황들을 필자가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논문을

읽을 때 상자 밖에서 사고하고 우리의 신학적 시도들에 신선한 바람이 불게 하는 도전이 되기를 바란다.

**자료**

Calvin, J. 2002. *The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Henry. B. Trans.). Grand Rapids: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장 칼뱅, 기독교 강요

Calvin, J. 1980. *Commentary on Romans*. (Owen. J. Trans & Ed.). Grand Rapids: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장 칼뱅, 로마서 주석

Rohls, J. 2003. “Reformed Theology – Past and Future.” In Alston, W.M. and Welker, M. *Reformed Theology – Identity and Ecumenicity*. Cambridge: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Stroup, G.W. 2003. “Reformed Identity in an Ecumenical World.” In Alston, W.M. and Welker, M. *Reformed Theology – Identity and Ecumenicity*. Cambridge: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Phiri, L. and Settler, F. 2015. “From Sexual Diversities to Convergences of Sexualities: Possibilities within Southern African Protestantism.” *Diaconia*, 6, 117-132.

World Communion of Reformed Churches Executive Committee, 2015 Minutes. 세계개혁교회 커뮤니티언 실행위원회 2015년 회의록.

**결론**

1 John Calvin, *Commentary on Romans*. (Owen. J. Trans & Ed.). (Grand Rapids: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1980).

2 Lilly Phiri and Federico Settler, “From Sexual Diversities to Convergences of Sexualities: Possibilities within Southern African Protestantism,” *Diaconia*, vol, 6 (2015): 117-132.

#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갱신하고 변화시키소서”

안나 케이스-윈터스 Anna Case-Winters

## 도입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갱신하고 변화시키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란 단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이 단어에는 많은 측면이 있으며 참고할 것도 많다. 우리가 그것에 매우 개인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다. 개인으로서 삶 속에서 갱신하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그것에 좀 더 공동체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다. 특별히 지금은 종교개혁 500년의 상황에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16세기에 교회를 개혁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를 개혁하시는 일을 하시기를, 즉 갱신하고 변화시키시기를 소망한다. 심지어 우리가 교회를 염두에 두고 기도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창조 전체를 포함하는 더 넓은 세상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우리를”의 의미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 교회를 갱신하고 변화시키소서: “연합으로 부름 받다”

오늘날 교회는 변화와 갱신이 필요한 형편에 있다. 교회를 개혁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종교개혁에서 시작된 것도 끝난 것도 아니다! 우리가 이 500년의 관점에서 종교개혁을 회고하면서 그 통찰력을 되찾고, 그 간과를 회개하고, 종교개혁의 미완성 사역을 진척시킬 간절히 원한다. 그 “미완성 사역”의 일부는 특히 우리가 소원해진 이들과의 연합을 심화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축하하는 것은 교회의 분열을 축하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종교개혁 교회들과 로마 가톨릭 교회와 좀 더 가시적인 일치를 위해 기울이는 선한 신앙의 노력을 분명히 밝히기에 좋은 기회다. 우리의 해석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 것인 일치를 어떻게 우리가 함께 가시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강렬한 비전을 던져준다.

이것은 교회에 카이로스의 순간이다. 이것은 축하와 기념뿐만 아니라 크게 필요한 방향 전환 - *메타노이아*(돌아섬) - 의 때일 수도 있다. 우리가 종교개혁의 분리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종교개혁 교회들 사이에 일어난 모든 분열 때문에 소원해진 이들을 향한 돌아섬이 있을 수 있다. 혹자는 종교개혁 때문에 서로 다르면 분리하는 선례가 생겼다고 말한다. 이제 우리는 “분리하는 습관이 들고 말았다.” 잠잠해진 분파들 안에도 분파가 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떨어져 사는 것에 만족하고 우리의 분열에 안주했다. 우리가 비록 종교개혁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할 수 있더라도 그 와중에 일어난 분열은 비극이었다.

루터는(그리고 그와 함께 칼뱅도) 교회의 분열이 추잡하다고 생각했다. 둘 중에 누구도 “새로운 교회”를 세우려고 열망하지 않았다. 심지어 마틴 루터는 1521년에 파문을 당한 후에도 대화를 지속하려고 애썼다. 그는 로마가 개혁의 불가피성을 깨닫게 될 거라고 전적으로 확신하고 교황이 총회를 소집할 거라는 희망을 품었다. 장 칼뱅은 교회 분열에 대한 루터의 깊은 후회를 공유했다. 그는 캔터베리 대주교(토마스 크랜머(Thomas Cranmer))에게 쓴 편지에서 그의 깊은 염려를 표현했다. 그는 교회 분열이 “우리 시대의 주요 죄악 중에 들어갈 것이다 ... 그래서 교회의 지체들은 잘려나가고 그 몸은 피 흘린 채 쓰러져 있다.”<sup>1</sup>라고 선언했다. 칼뱅이 묘사한 그리스도의 “잘려나간” 몸은 강력하고 강렬한 이미지다. 주님의 만찬에 대한 그의 논의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과 상호 간의 연합을 분리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우리는 연합으로 부름 받았다. 하나님은 이 부름으로 우리를 갱신하고 변화시키실 수 있는가? 우리는 과연 더 가시적인 일치를 추구하는 새로운 유형의 화해 때문에 갱신될 수 있는가? 우리는 발터 카스퍼(Walter Kasper) 추기경이 “연합체들의 연합”이라고 부른 바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연합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우리는 마지막 총회 이후 일어난 진전 사례들을 고찰할 때 희망을 품을 수 있다. 종교개혁 교회들 사이에 있었던 지속적인 노력이 우리 커뮤니티의 기초와 표현을 나타낸 “커뮤니언: 교회 됨(Communion: On Being the Church)”으로 열매를 맺게 되었다. 개혁교회-가톨릭 국제 대화는 “칭의와 성화: 정의의 주체인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새로운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새로운 유형의 “차별화된 합의”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차이점을 모호하게 처리하기보다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허용하면서도 우리가 긍정할 수 있는 것은 긍정하는 방법을 열어 놓았다. 그것은 그 차이점들이 반드시 분리로 귀결될 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증거한다. 화해를 향한 진행은 가능하다. 하나님은 교회를 갱신하고 변화시키시는 일을 하시며 우리를 참된 연합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해 돌아설 때 이 일을 가장 잘 받아들인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로마서 12:2)는다는 것을 발견한다. 아마도 이것의 한 구성요소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빌립보서 2장; 마침내 우리의 올바른 마음에 있는 것!)을 가지는 것이다. 우리가 “매일 매일, 점점 더” 그분의 형상을



깊아가면서 필연적으로 서로에게 가까워져서 더 깊은 연합을 이루게 된다. 동시에 우리는 교회 밖의 넓은 세상을 향한 선교와 사역을 통해 외부로 이끌린다.

**인류 공동체를 갱신하고 변화시키소서: “정의에 헌신하다”**

여기서 “우리”가 확대되기 시작한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교회의 갱신과 변화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포괄적인 의미로 밝혀진다. 너무 쉽게 “우리”와 “그들”, 친구와 원수, 내부자와 외부자로 나뉘는 세상에서, 그것은 “그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계사로 다가온다. 우리는 모두 함께 “우리들”이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의 인류 공동체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읽는다. 갱신하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일은 전 세계를 포함한다.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한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입술이 - 신학적 스펙트럼을 망라하고, 교단의 분열을 망라하고, 현 논쟁의 불일치를 망라하여 - 드리는 기도이다. 그리스도인들이 2000년 동안 이 기도를 드렸고 대부분의 교회가 대부분의 주일이 기도를 드린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가?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어떤 삶의 방식이 마땅한가? 예를 들면, 우리는 이 기도의 간구들을 개인화하는 습관이 있다. 그러나 이 기도문에는 1인칭 대명사가 없다. 그것은 “나”와 “내 것”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와 “우리 것”에 관한 것이다. “우리”와 “우리 것”에 더 넓은 세상을 포함하게 되면 우리는 불가피하게

전 세계적 함축성을 만나게 된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한 간구는 세계의 기아 문제를 다뤄야 할 소명을 우리에게 부과한다. “우리가 우리에게 빛진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빛을 용서하옵소서(영어 직역)”라는 간구는 지구촌의 부채 위기를 다뤄야 할 소명을 우리에게 부과한다. 그렇게 기도는 간구에서 강력한 간구로 진행된다.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올만한 새로운 화해의 방법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가능한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은 “전복적” 행동이다.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할 때, 그 나라는 장소가 아니고 새로운 실재, 즉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통치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현 질서의 전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마음과 삶을 새로운 실재에 맞추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 통치의 도래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와 동시에 그것을 부정하고 심지어 그것을 거부하는 일을 할 수 없다. 우리는 다른 종류의 세상, 즉 정의가 지배하는 세상을 위해 일하지 않으면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으로 이 기도를 드린다.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기도한 대로 살기 시작하는 것이다. 정의에 대한 헌신이 수반된다.



오늘날 우리 세계에 불의와 고난의 자리는 어디인가?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고는 “피하여 지나가”는 [눅 10:31-32] 강도 만난 자를 “피하여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 역자 삽입) 자신을 용납할 때 자기모순에 빠진다. 우리는 이 기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기를 거부할 수도 없고, “시대의 징조”를 해석하는 데 실패할 수도 없으며, 혹은 “아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에 우리 귀를 막을 수도 없다. 이러한 통찰은 아크라 고백서와 고백서에 담긴 경제와 지구에 대한 정의로의 부름에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아크라에 모인 개혁주의 대표들이 정의에 대하여 그렇게 급진적인 요청을 기꺼이 하기로 한 것은 우리가 함께 체험한 엘미나의 “노예 성들”에 의해서 고조되었다(이 변화의 체험에 대한 개인적인 기록을 이 기고문에 첨부했다).<sup>2</sup>

- 우리는 어디에서 예언적 사역으로 부름을 받고 있는가? 우리의 헌신은 불의한 체제와 구조에 도전하는 증거를 하라고 우리를 촉구할 수 있다. 우리는 권력자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변화(회개)의 완전한 요구를 반포할 소명이 있다. 만약 요나서를 해방 운동의 렌즈로 읽는다면,<sup>3</sup> 이야기 구성이 꽤 많이 달라질 것이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은 자라면서 그 이야기를 불신자를 전도하라는 부름으로 들었다. 실은, 그것은 권력자에게 진리를 선포하라는 부름으로 읽는 게 더 낫다. 니느웨는 강력한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다. 니느웨 사람들은 권력의 자리에서 살고 있었다.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많은 사람과 더불어 주변부에 살고 있었다. 이 이야기의 배경에서 한 세대 안에 그들은 아시리아 군대에게 굴복할 운명이었다. 요나서는 “주변의 소외된 공동체들을 희생시켜서 부와 권력과 특권을 획득한 악하고 압제적인 제국”의 이야기로 드러난다.”<sup>4</sup> 주변부 출신의 반항적이고 주저하는 예언자 요나는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임무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 요나는 분노한다. 우리는 “정의가 없으면, 평화도 없다!”라고 외치는 그의 목소리를 거의 들을 수 있다. 오늘날 세계 강대국들에서 제국이 드러나는 것처럼, “제국”에 대한 분명한 사회-정치적 유사점들이 있다. 어떻게 우리는 요나처럼 회개를 촉구할 수 있을까?
- 바로 **우리 자신이** 회개의 요구를 들어야만 하는 곳들이 있는가? 우리 시대의 상황에서 우리 중 일부는 오늘날 예언적 증인이 선포해야 할 대상인 권력의 중심에서 살고 있다. 우리는 듣고 반응할 수 있는가? 우리가 압제 체제로부터 받는 혜택 때문에 우리의 들음이 약해지는가? 우리는 어디에서 연루되어 있는가? 우리는 작동하지 않는 - 혹은 특권층과 강자들을 위해서만 작동하는 - 체제에 신임과 지지를 보내고 있는가?

우리는 어디에서 제국의 꼬드김으로 끌려 들어갔는가? 중립은 없다. 중립이란 없다. 중립에 있는 것은 압제 체제를 지지하는 것이다.

-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냐고 믿는가? 출애굽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비참함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읽는다(출 3:7-8). 만약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그분께 기도하는 백성으로서 보고, 듣고 구원하러 가야 한다.
- 우리에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분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의 독특한 사역은 주변부에 있던 이들(어린이들, 가장 작은 자들, 나중된 자들, 잃은 자들)을 중심으로 옮겨왔다.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메시지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분의 사역이 우리 사역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면, 그 지향성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 수 있을까? 존 소브리노(Jon Sobrino)는 다름 아닌 가난한 이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라고 제안했다. 비록 “우리가 세상의 가난한 자들은 실질적으론 아무에게도 중요하지 않다고 배웠지만”<sup>5</sup> 이것은 사실이다. 위기 때마다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이들은 바로 그들이다. “똑같은 일들이 언제나 똑같은 사람들에게 발생한다.”<sup>6</sup> 소브리노(Sobrino)는 그들, 즉 빈민들, 억눌린 자들, 소외된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그들의 고통은 우리에게 “그들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리라”는 긴박한 요구를 시사한다.”<sup>7</sup>

**창조 전체를 갱신하고 변화시키소서: “연합으로 부름 받고 정의에 헌신하다”**

연합으로 부름 받고 정의에 헌신하는 우리 소명은 창조 전체에 확장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품처럼 넓게 펼쳐져야 한다. *오이코스(oikos)*의 성경적 개념은 우리의 진정한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은유를 우리에게 제공한다. “가정”을 뜻하는 *오이코스*는 영어에 “eco”가 포함된 모든 단어의 어원을 구성한다. “ecology(생태학)”와 “economy(경제)”가 모두 여기 포함된다. “ecology”는 *오이코스+로고스(logos, 이성)*에서 나왔다. 그것은 집의 “논리” 즉 집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시사한다. “economy”는 *오이코스+노모스(nomos, 법칙)*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는 그것이 “집의 법칙”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하나님의 집인 창조의 내부 논리 또는 법칙은 사랑의 법칙이다. 나누고 상호 공급하고, 유지하고 돌보는 우리 몫을 감당하는 것, 이런 것들은 창조를 하나님의 “집”에 비유할 때 함축된 윤리다. 유의할 점은 창조는 인간만의 “집”이 아니고 창조 전체와 모든 피조물이 함께 하나님의 “집”의 일원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생명의 공동체, 사랑의 연합체다. 우리는 공동선을 위해 일할 때 전 가족의 복지를 추구한다. 이 가족 안에서 함께 하는



우리 삶은 연대와 충족과 유지로 특징지어져야 한다. 아크라 고백서의 천재성 일부는 우리가 “경제 정의와 지구를 위한 언약”에 헌신함으로써 경제와 생태를 연관시킨 점이다.

하나님의 포용은 얼마나 드넓은가? 우리의 삼위일체적 비전은 창조 전체 속에, 그것과 함께, 그것을 위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다.

- 창조주께서 자연 세계에 들어오셨다. 그것을 부르시어 존재하게 하시고, 그것을 “좋다”고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부러 모든 창조 안에 즉 “우리가 눈을 돌리는 모든 곳에” 계시되신다. 더욱이, 모든 때와 곳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섭리적 돌봄은 참새와 백합에까지 미친다(마태복음 10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대하는 만물의 완성에서 그려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유 가운데 만유”가 되시는 “새로운 창조”다(고린도전서 15:28). 이 광대한 사건들은 창조 전체를 위한 하나님의 만유를 포용하는 돌봄의 이야기를 해 준다.
- 아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땅에 내려”오셨고 그렇게 물질적 실제로 들어오셨는가를 기억할 때 이 실체가 우리에게 훨씬 더 자명해질 것이다. 성육신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지상에 내려온” 하나님으로 판명된다. 골로새서의 저자는 성육신을 목상하면서 성육하신 분이 하나님의 로고스이며, 그에게서 만물이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 있으며, 그분이 창조의 근본 자체임을 깨달았다(골 1:15-20). 그렇다면 창조 전체가 은혜의 장소다. 하나님의 사랑은 표현상으론 개인적이고 구체적이며 규모 면에선 우주적이며 보편적이다.
- 창조의 새벽에 깊음의 표면 위에 운행하시던 하나님의 영은 지금도 땅의 표면을 갱신하신다(시편 104:30). 우리가 그 영 안에서 누리는 연합은 분명히 만물과의 연합이다. 여기서 우리는 사랑하고 살리는 연합체들의 연합 안에서 만물을 갱신하고 회생시키고 화해시키시는, 창조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본다.

**결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갱신하고 변화시키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란 말에 누구를 포함하는가? 분명히 우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특별히 교회의 연합(커뮤니언)이 갱신되도록 기도한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분명히 온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 즉 더 큰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우리의 인류 공동체들이 변화되어 정의가 승리하도록 우리는 기도한다. 우리 돌봄의 영역이 계속 커가면 하나님의 전 “가족”, 즉 창조 전체를 “우리”에 포함하게 된다. 진정 하나님의 포용은 얼마나 광대한가!

**결론**

- 1 Letter to Cranmer (1552), *Selected Works of John Calvin: Tracts and Letters*, pt. 4.
- 2 2004년 가나 아크라 총회 모임에서 주취팀의 인도로 우리는 소위 “노예성들”을 관람하게 되었다. 이 요새들은 럼주와 설탕과 향료를 교역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성 아래에 있는 화물 보관소는 배가 올 때까지 짐을 보관했던 곳이다. 나중에 화란계 무역상들은 인간이 수익성이 더 높은 상품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지역의 서아프리카인들이 사냥을 당하고 붙잡혀 감금되었다. 그들은 수많은 화물처럼 화물 보관소에 억류되어 있었다. 거대한 문이 닫히고 자물쇠를 채우면 노예선이 도착할 때까지 두 번 다시 열리지 않은 했다. 그 기간이 무려 석 달이 되기도 했다. 음식은 활송장치를 통해 위쪽 창문으로 내려졌다. 사람들이 병들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여자들이 출산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사람들이 죽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공포였다. 우리는 이 장소들을 보고 거기서 일어난 일을 듣고는 얼어붙었다.

관람은 계속되었고, 우리는 화물보관소 바로 위에 개방된 큰 방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멋진 방에는 크고 밝고 통풍이 잘되는 창문이 달려 있었다. 우리는 “이 장소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것이 화란개척도도가 예배드렸던 장소라고 대답했다. 우리는 생각에 빠졌다. 어떻게 그들이 그 화물 보관소 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그들은 높은 곳에서 드리는 예배와 낮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관련시키지 않았단 말인가? 우리 그룹은 격분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아모스 5:21-24)라고 말씀하신 아모스 선지자를 인용했다. 우리는 끔찍한 생각이 들었다. 의로운 분노가 우리 그룹에 파문을 일으켰다. 그들은 어떻게 밑에서부터 들려오는 부르짖음을 듣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바로 그때 우리는 어떤 계시를 받았다. 누군가가 그 질문을 던졌다. “제 고민은 ... 우리가 밑에서 들리는 울부짖음을 듣지 못하는 곳은 어디죠?” 이것은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이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에 결정적인 것이었다. 물론 우리가 아크라 고백서의 강력한 선포를 완성하려면, 즉 그것들을 수사법에서 현실로 바꾸려면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 밑에서 들려오는 울부짖음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돌보는 마음과 행동할 용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소서.

- 3 이 재해석을 보려면 미구엘 토레스의 글을 참조하라. Miguel de la Torre, *Liberating Jonah: Forming an Ethics of Reconciliation* (Maryknoll, NY: Orbis, 2015).
- 4 Ibid.
- 5 Jon Sobrino, *Jesus: The Liberator* (Maryknoll, NY: Orbis, 2003).
- 6 Jon Sobrino, *Where is God?* (Maryknoll, NY: 2004).
- 7 Joh Sobrino, *The Principle of Mercy: Taking the Crucified People from the Cross* (Maryknoll, NY: 2004).



# 신앙고백

##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하기 - 살아있는 신앙을 실천하기

마르기트 에른스트-하비브 Margit Ernst-Habib

우리는 오늘날 삶 속에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어떻게 우리는 거짓 신들을 인식하고 폭로하는가? 우리는 모든 피조물의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헌신하는가?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는 생명을 창조하시고 완성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실천하는가?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문들에 대해 자문하고 자기 상황에 맞는 대답들을 발견해야만 했다. 어쩌면 기독교 신앙에 관한 축소판 세계여행으로 개혁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공통된 생명의 하나님(God of life)을 고백하고 이 고백에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명백히 남아프리카 화란개혁선교교회(Dutch Reformed Mission Church of South Africa)가 낳은, 20 세기에 (1934년 바르멘 신학선언과 더불어) 가장 영향력 있는 고백이자 모든 대륙의 개혁교회들에서 막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고백서인 벨하고백서(Belhar Confession, 1982/84)로 시작해 보자. 우리는 (당연히 간단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아파르트라이드(apartheid) 상황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불의의 상황(저자 강조 추가)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회와 신자들의 사명을 어떻게 고백하는가를 살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상에 정의와 참 평화를 가져오시길 원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믿는다. 또한, 하나님께서 불의와 반목이 가득한 세상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극빈자나 가난한 자나 억울한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것을 따르도록 교회를 부르다는 것을 믿는다.

이 남아프리카교회와 나중에 세계 곳곳에서 그 고백서를 자신들의 고백으로 받아들인 다른 개혁교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계시하신” 분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독특하고도 특별하게 온갖 종류의 불의와 적대감을 겪은 이들의 편을 **취하신** 하나님으로도 이해한다. 그렇다면, 죽음을 취급하는 우상들은 모두 “불의의 형태들을 정당화하고” 교회가 “불의에 저항하고 억울한 자들의 편에 서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편을 드는 것을 회피하게 한다. 살아있는 신앙을 실천하기 위해서 교회는 “억눌린 자들과 버림받은 자들의 메시아”를 따르며 “부활하신 분의 동역자”가 되라는 도전을 받는다. 이런 표현은 2008년 스위스 개신교회 연맹(Federation of Swiss Protestant Churches)에서 나온 카펠 신조(Credo von Kappel)와 아주 유사한 구조이다.

벨하 고백서와 카펠 신조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이러한 이해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이해는 특별히 성경의 예언서와 복음서 전통에서 근거하고 있는데, 현재 개혁주의 전통을 따르는 교회들의 고백서들의 많은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며 특히 평화와 정의 안에 있는 생명의 충만함으로부터 배제되었던 이들을 보호하신다. 이 사상이 아크라 고백서 : 경제 정의와 지구를 위한 언약(Accra Confession: Covenanting for Justice in the Economy and the Earth)의 토대의 상당 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 본문은 2004년에 세계개혁교회연맹(WARC, WCRC의 전신)의 24차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그것은 경제적 불의와 환경 파괴의 “시대적 징조”에 비추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은혜와 정의의 언약 하나님(Covenant God)으로 고백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피조물 전체와 언약을 맺으셨음을 믿는다. 하나님은 정의와 평화의 비전에 기초하여 지구 공동체를 창조하셨다. 언약은 시장에서 사고 살 수 없는 은혜의 선물이다. 그것은 전 피조물 가족을 위해 주신 은혜의 경륜이다. 예수님은 이것이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우선적 동반자로 삼는 포괄적 언약임을 보여주시고 “이들 중 가장 작은 자”를 위한 정의를 생명공동체의 중심에 두도록 우리를 부르신다. 모든 창조는 복을 받았고 이 언약에 포함된다.

여정을 계속하여 북미주로 가 보면 20세기와 21세기 개혁교회들의 풍성한 새로운 고백문서들이 시선이 빨려든다. 특별히 인상적인 한 사건은 캐나다 연합교회(United Church of Canada)가 발표한 2006/7 고백서인 신앙의 노래(A Song of Faith)다. 거의 시적인 방식으로, 이 고백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묘사하고 찬양하며 “모든 때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시대를 위해서”(강조 저자 추가) 교회의 산 신앙에서 우리나라 “시대적이고 상황적인” 노래를 부르려고 한다. 이처럼 수많은 현대 개혁주의 고백문서들에 매우 의미 있는 우리 신(神)지식의 한 측면을 강조하며 시작하고 동시에 이 21세기 교회를 위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중요성을 간략하게 묘사한다.

하나님은 거룩한 신비이시며,  
온전한 지식을 초월하시고,  
완전한 묘사를 초월하신다.  
그러나  
사랑으로  
유일하신 유일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관계를 추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것과 함께 존재와 관계의 가능성도



창조하신다  
 하나님은 우주를 돌보시고,  
 부서진 자를 고치시고 소외된 자를  
 화해시키신다.  
 하나님은 우주에 생기를 주시고,  
 만물이 그 원천과 조화를 이루도록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에 감사드리며,  
 우리는 찬양을 멈출 수 없다.

그 영을 찬미하나이다.

은혜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세상 속으로,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변화와 소명의*  
 영을 보내신다. 그리고 우리는 “실현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응답한다.  
 이 표현은 고백서를 안내선처럼 관통하는 신앙의  
 노래에서 선언한 핵심 중 하나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갱신하고 변화시키소서!”라는 긴박한  
 기도로 기쁜 소식에 응답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완전·신성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이 사랑 안에 인간의 생명이  
 보이며 죄의 결과로 부서진 인류 공동체도 보인다. 이  
 죄의 부서짐에 의해 모든 것이 영향을 받으며, 인간의  
 생명 전체가 모든 측면에서 그러하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살아있는 생명의 반응은 애가를 부르고, 회개를  
 표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소명을  
 따르는 것이다.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분으로서  
 행동하신다. 즉,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화해시키시고  
 변화시키신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을 어디에서  
 그리고 어떻게 인정하는가? 또한 우리는 그것을  
 죽음을 취급하는 우상들의 거짓 약속으로부터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현재와 과거의 개혁주의  
 고백서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이  
 부분에서 대개 일치하고 있다. 1934년 바르멘 신학  
 선언문(Theological Declaration of Barmen)은 그  
 유명한 제1테제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강조 저자  
 추가).

그러나 악은 하나님의 사랑을 훼손하지도  
 극복하지도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 모두 진실과 겸손으로  
 두려움과 실패를 고백하도록 요구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대로 우리가 들어야 하며  
 살든지 죽든지 신뢰하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화해시키시며  
 우리의 세상과 자신과 서로를 파괴하는데  
 우리가 맡았던 역할을 회개하도록 촉구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약자들을 보호하고  
 악에서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세상을 치유하는데 하나님과 동역하라고  
 촉구하시고  
 그럼으로써 모두가 풍성한 삶을 누리길  
 소원하신다.  
 우리는 은혜에 대해 노래한다

20세기와 21세기 개혁교회들은 이 고백을 반복하고  
 강조한다. 호주연합교회(The Uniting Church in  
 Australia)는 1971/1992년에 그들의 연합의 기초(The  
 Basis of Union)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

교회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세상과 화해하셨다.”...  
 예수께서는 사람들 가운데 선포되실 때 친히  
 임재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분이 아니면 존재하지 못하는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그리스도께서는  
 말과 행동을 통한 인간의 증거를 통해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주의를 끄시고 신앙을 일깨우신다. 그리고  
 사람들을 당신의 고난의 교제로 부르시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그들을 당신의 교회로 조직하시고 다스리시고  
 갱신하신다.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즉, 용서하시고  
 화해시키시고 그리고 변화시키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악 앞에서  
 중립을 지키지 않으시며, 은혜와 의롭고 자비롭고  
 변화시키는 행동으로 우리 하나님과 인류와 창조  
 연합을 깨뜨린 죄를 대적하신다.

개혁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마다 반드시 세상 안에서 세상을 위해 생명을  
 주시고, 변화시키시고, 갱신하시는 임재와 행동에  
 대해 반복 언급해야만 한다. 그들은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새로운 생명인, 자신들의 삶의  
 영적, 종교적, 개인적, 사회적, 정치적, 및 경제적  
 측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개혁, 모든 변화, 그리고  
 모든 갱신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과 이유라고 여긴다.  
 성령의 사역은 이 새 생명을 갱신된 삶으로, 즉  
 의로워지고 거룩해진 영혼의 삶으로 만드신다. 마치

우리는  
 신실하시고 조종당하지 않으시는  
 세상에서 창조적, 구속적으로 활동하시는  
 그 영이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 영은  
 익숙한 것뿐만 아니라  
 낯설게 보이는 것에서도  
 거룩함을 축하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깊은 간구의 기도를 들려주시는  
 우리의 염려와 고백을 감싸주시는  
 우리와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인도네시아 토라하 교회(Toraja Church of Indonesia)의 신앙고백서(1981)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령으로 세상 가운데 임재하시며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틀 안에서 이 세상을 돌보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이 임재는 우리를 재조직하고, 갱신하고, 거룩하게 만듦으로써 우리가 옛 삶을 내버리고 새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져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확신을 주신다.

죽음을 취급하는 인위적인 우상들의 능력은 하나님에 의해 이미 파괴된 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우리가 하나님께 경외와 찬미와 순종과 사랑을 드리는 실질적인 이유이다. 미국남장로교회(PCUS)의 1976년도 고백서인 신앙고백문(A Declaration of Faith) 제 1장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제목이 달려 있으며 다음 문장으로 시작된다.

우리는 참되시고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인정한다.  
그분의 요구는 우리에게 절대적이고,  
그분의 도움은 우리에게 충분하다.  
그 유일자가 주님이시니,  
우리는 그분을 ... 경배하고, 섬기고,  
사랑한다...  
우리는 다른 어떤 신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른 어떤 도움도 궁극적으로 의존해선 안 된다.

우리는 다른 어떤 능력에도 조건 없는 복종을 해선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보다 다른 존재나 사물을 더 사랑해선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뻐한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최상의 기쁨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완전한 자유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두 단어는 그 자체로 고백이자 의무요 주장이자 위안이요 요구이자 위로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는 죽음을 취급하는 능력과 권능의 통치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삶을 갱신하고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는 규칙의 변화를 고백한다. 마지막으로 이 두 단어는 모든 기독교 소망의 기초이다. 즉,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보존하시며 생명을 갱신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에 대한 우리의 숙고를 마감하게 될 마지막 고백서는 이 하나님께 소망의 노래를 부른다. 1974년 미국개혁교회(Reformed Church in America)는 우리 소망의 노래(Our Song of Hope)로 이렇게 고백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 새로운 노래를 부르나이다.  
우리는 우리 세상에서 분명한 소망을 노래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존재케 하셨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그것을 갱신하시고,  
하나님은 그 영으로 그것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진정한 소망이시다.

이런 숙고를 하게 만든 처음 질문들로 잠깐 돌아가 본다면,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우리의 삶을 이 하나님께 대한 고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전 세계에서 선포된 고백서들의 인용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갱신하고 변화시키소서!”라고 기도하라는 요청을 우리 상황에 적절하게 번역하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첫 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의 풍조에 순응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롬 12:2)하라고 요청한다. 우리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고백으로 갱신되면, 우리의 삶도 “영적[합당한] 예배”로(롬 12:1) 바뀌어야 하며 동시에 개혁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Jürgen Moltmann)이 자신의 최신 저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명의 충만(The Living God and the Fullness of Life)*에서 서술한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충만한 생명”의 축제로 바뀌어야 한다. 그러한 합당한 예배, 축제, 유쾌한 연대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 세 가지를 제안해 본다.

- (1) 만약 우리가 벨하 고백서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극빈자와 가난한 자와 억울한 자들의 편을 드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난민들과 유럽(그리고 세계 전역)에서 보호받으려고 하는 이들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편에 서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는 세상의 풍조에 순응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배제와 소외 가운데 살면서 정의를 소원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충만함에 순응해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캐나다 연합교회의 우리 신앙의 노래가 고백하듯이 “약자들을 보호하여 ... 모든 사람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소명을 주신다.
- (2)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실하고 조종되지 않는 영은 세상에서 창조적, 구속적으로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익숙한 영역뿐만 아니라 낯설게 보이는 영역에서도 거룩함을 축하하라고 도전하신다”(우리 신앙의 노래). 우리가 지금까지 이미 알고 있는 바를 (이것이 우리 식의 기독교 신앙이든 사회와 문화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든) 일관되게 고수할 때, 우리가 외부자인 “타인들”보다 자신을 더 우월한 존재로 정의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닫힌 마음을 변화시키고 갱신하는 새로운 전망을 줄 수도 있다.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 자기중심적 민족주의와 문화적 국수주의를 권장하고 촉진하는 운동들이 늘어나면서 우리에게 낯설게 보이는 것들 안에 내재된 성령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한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사상과 속성에 조종이나 제한을 받지 않으실 것이다. 그 반대로, 우리 마음의 갱신과 변화는 또한 처음엔 낯설게 보이는 만인과 만물에게 의식적, 비판적으로 개방하면서 연대한다.
- (3)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고백은

살아계신 주님께 대한, 즉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분”께 대한 부활절 고백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고백이다(The Basis of Union). 그렇다면 그것은 부활절후 예배처럼 모든 체념과 좌절, 절망, 및 비참함과 반대되는 최상의 기쁨이며(미국, Declaration of Faith)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우리 세상 안에서 우리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로, 희망차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한다.

**자료**

고백서들의 영어 원문/번역본은 다음 인터넷 주소에서 찾을 수 있다.

The Accra Confession 2004 (WCRC): <http://wcrch.ch/accra/the-accra-confession>  
아크라 고백서(세계개혁교회 커뮤니언) 한글판. <http://www.ecumen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6036>

The Barmen Theological Declaration 1934 (Germany): [https://www.ekd.de/english/barmen\\_theological\\_declaration.html](https://www.ekd.de/english/barmen_theological_declaration.html)  
1934 바르멘 신학 선언문(독일)

Basis of Union 1971/92 (Uniting Church in Australia): <https://assembly.uca.org.au/images/stories/HistDocs/basisofunion1992.pdf>  
연합의 근거 1971/92 (호주연합교회)

The Belhar Confession 1982/86 (Dutch Reformed Mission Church, South Africa): <http://www.vgksa.org.za/documents/The%20Belhar%20Confession.pdf>  
벨하 고백서(남아프리카 화란개혁선교교회) 한글판 [https://www.pcusa.org/site\\_media/media/uploads/oga/pdf/belharconfession-korean.pdf](https://www.pcusa.org/site_media/media/uploads/oga/pdf/belharconfession-korean.pdf)

인도네시아 토라하 교회의 1981년 고백서(1981 Confession, Church of Toraja, Indonesia)는 루카스 피셔가 편집 출판한 개혁교회 증거에 실려 있다. Lukas Vischer (ed.), *Reformed Witness Today. A Collection of Confessions*, Bern 1982, 47-58.

A Declaration of Faith 1977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https://www.pcusa.org/site\\_media/media/uploads/theologyandworship/pdfs/decofffaith.pdf](https://www.pcusa.org/site_media/media/uploads/theologyandworship/pdfs/decofffaith.pdf)  
1977년 신앙선언문(미국장로교회)

The Kappel Creed 2008 (Credo von Kappel, the Federation of Swiss Protestant Churches) 독어/불어: <http://kirchenbund.ch/de/themen/ref-credoch/rb-21-das-credo-von-kappel>  
2008 카펠 신조(스위스 개신교회 연맹)

A Song of Faith 2006 (The United Church of Canada): <http://www.united-church.ca/community-faith/welcome-united-church-canada/song-faith> 2006 신앙의 노래 (캐나다 연합교회)

Our Song of Hope 1974 (Reformed Church in America): <https://www.rca.org/resources/our-song-hope>  
1974 우리의 희망의 노래 (미주개혁교회)

Jürgen Moltmann, transl. by Margaret Kohl, *The Living God and the Fullness of Lif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Louisville/Ky, 2015.



# 인종과 화해

클리프턴 커크패트릭 Clifton Kirkpatrick

## 벨하 고백서

갈라디아서 3:28의 놀라운 비전이 벨하 고백서 (Confession of Belhar)를 통해 메아리치고 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벨하 고백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모두 한 인류 가족이며 하나의 교회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고 이 실재들을 부인하는 어떤 불의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반대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 고백서의 입안자들은 또한 교회가 하나님님의 통치에 부합되게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의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의도하신 바를 삶으로 보여주는 실체가 된다고 상기시켜준다. 또는 벨하 고백서의 표현처럼, “하나님과 화해되고 서로서로 화해한 신자들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이 드러난다.”

산상설교(마태복음 5-7장)에 크게 의존하는 벨하 고백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또 서로서로 화해하는 일을 어떻게 주도하셨는지 탐구한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되는 내용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해의 메시지를 교회에 위탁하셨다.”는 개념 안에서 포착된다.

고백서는 1978년에 한 신학교 강의실에서 태동했다. 케이프타운에 소재한 화란개혁선교교회(Dutch Reformed Mission Church, “유색인종” 교회) 신학교에서 가르치던 자압 두란드(Jaap Durand) 교수는 그로부터 2년 전 소웨토(Soweto)에서 일어난 학살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사로잡은 중오와 공포 그리고 폭력의 분위기 때문에 여전히 충격에 사로잡혀 있는 학생들로 가득 찬 수업을 인도하게 되었다. 그는 이 학생들에게 아파르트라이드(Apartheid) 체제에 대한 저항을 신학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지 써 보라고 했다.

그들이 함께 애써 만들어 낸 공동 선언문은 나중에 벨하 고백서와 남아프리카와 기타 지역에서 아파르트라이드에 저항하는 개혁교회 증거의 많은 부분에 포함된다. 그들의 선언에 의하면, “아파르트라이드는 다른 인종 집단들로 구성된 국민의 화해불가능성(irreconcilability)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화해 교리에 기초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대된다.”<sup>1</sup>

아파르트라이드(“분리된 상태”를 의미)는 남아프리카에서 오래되고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수백 년 동안 화란계 및 영국계 정착민들은 토착 아프리카인들을 그리고 나중에는 혼혈인종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남아시아에서 온 이들을 압제하고 심지어 노예로 삼았다. 아파르트라이드는 1948년 국법이 되었고 곧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현실이 되었다. 아프리카너(아프리카에서 탄생한 백인: 역주)들의 기성 교회인 화란개혁교회(Dutch Reformed Church)는 “자녀” 교회인 토착 아프리카인 교회와 혼혈인종 그리스도 교회와 인도인 교회와 분리된 이후에도 그들을 계속 지배했다.

신학교 학생들이 명문화한 기초 성명은 곧 화란개혁선교교회(DRMC) 총회의 공식 입장이 되었다. 그것이 1982년 여름에 개최된 세계개혁교회연맹(World Alliance of Reformed Churches) 총회에서 열광적으로 공유되었다.<sup>2</sup> 필자는 오타와에서 개최된 전 세계 개혁교회들의 모임에 참석하여 이 화해의 신학 이면에 깔린 정신적 일치와 아파르트라이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긋난다는 강력한 결단을 느꼈던 것을 언제나 기억할 것이다.

두 화란계 개혁교회들이 아파르트라이드에 대한 신학적 지지를 철회하는 것을 거부했을 때, 세계개혁교회연맹은 그들의 WARC 회원권을 정지시켰다. 전세계 개혁주의 공동체는 강력한 방식으로 아파르트라이드를 거부했고 스스로 정의와 화해의 공동체로 천명했다.

전 세계적인 지지가 표현되자 용기백배한 화란개혁선교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혼란한 시대에 공개적 신앙고백을 선포함으로써 세계 교회에 선물이 될 증거를 하도록 부르신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들은 소위원회를 지명하고 두 명의 신학자, 러셀 보트만(Russell Botman)과 디르키 스미트(Dirkie Smit)를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며칠 만에, 총회가 아직 회기 중일 때, 위원회는 벨하 고백서의 초안인 탁월한 문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나서 이 문서는 개혁주의 모범대로 회중들에 배포되어 4년 뒤(1986년) 벨하 지역 교회에서 개최되는 차기 총회 때까지 연구하여 응답하도록 했다. 그리고 나서 총회는 그 고백서를 채택하여 남아프리카와 세계를 위한 선물로, 즉 “마음에서 우러나온 부르짖음이요 우리가 처한 시대를 조망하며 복음을 위해 마땅히 행해야 할 일로”<sup>3</sup> 헌정했다.

벨하 고백서는 다양한 상황에 부딪친 여러 교회들에게 유익하게끔 쓰였지만 남아프리카의 정의 투쟁에 크게 기여했고 그와 동시에 21세기 미국의 상황에도 놀라우리만치 적절하다. 고백서 자체는

보편적 함축성을 의도하긴 했지만, 입안자들은 또한 왜 고백서가 쓰였는지 그리고 그것이 특히 남아프리카에서 함축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해설하는 첨부서한(Accompanying Letter)도 작성하여 고백서에 항상 포함해 주도록 요청했다.

첨부서한은 모든 진정한 개혁주의 고백서들처럼 교회와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도전들에 신실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복음이 위기에 처하는” 상황에 반응하기 위해서 벨하 고백서가 쓰였다고 선포한다. 요약하자면, 첨부서한은 벨하 고백서가 남아프리카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키려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또한, 그것은 보편 교회와 모든 시대를 위한 고백서이다. 이것은 대단히 인상적인 주장이다. 하지만 이 주장은 시간이 흐르면서 진실로 입증되었다.

벨하 고백서는 남아프리카와 세계 곳곳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아돌프 히틀러와 그의 정권에 저항한 독일 고백교회가 낳은 고백서인 바르멘 선언(Barmen Declaration, 1934)을 모범으로 삼은 벨하 고백서는 남아프리카와 곳곳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파르트라이드 종식 투쟁을 정치 투쟁으로만 보지 않고 복음의 진정성 회복 투쟁으로 보게 하는 데 기여했다. 벨하고백서는 넬슨 만델라가 출옥하고 남아프리카 대통령에 당선되어 나라를 보복이 아닌 만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진정한 화해로 이끌어 가게 한 풍토를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

벨하 고백서는 남아프리카의 교회 중에서 아파르트라이드 때문에 분열되었던 교단들이 다시 연합하는 토대가 되었다. 벨하 고백서에 근거한 그러한 연합을 이룬 가장 좋은 사례는 화란개혁선교교회(Dutch Reformed Mission Church, “유색인” 교회)와 아프리카화란개혁교회(Dutch Reformed Church in Africa, (“흑인” 교회))가 남아프리카연합개혁교회(Uniting Reformed Church in Southern Africa)로 합친 것이다.

벨하고백서는 또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압제를 극복하려고 투쟁하는 세계 다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감을 주었다.

장벽과 여권과 민족 자치구의 상황 가운데 사는 팔레스타인 그리스도인들은 벨하 고백서에서 해방과 자유를 위한 투쟁에 관한 큰 상관성을 발견했다. 수백만의 아프리카인들을 빼에 사무치는 빈곤에 빠뜨린 세계 경제 체제의 종속화를 경험한 아프리카 그리스도인들은 경제적, 생태적 정의를 촉구하는 아크라 고백서(Accra Confession)를 통해 세계개혁교회 커뮤니티의 소속 교회들과 연합한 후 벨하 고백서에서 특별한 울림을 발견했다.

벨하 고백서는 전형적인 개혁주의 고백서들처럼 삼위일체를 긍정하면서 시작하고 “예수께서 주님이시다”라는 호소력 있는 진술로 마감한다. 이 견고한 두 기초 사이에서 벨하 고백서는 예수께서





교회에 부탁하신 일치와 화해와 정의에 관한 매력적이고 유용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 일치

벨하 고백서는 일치에 관해 세 가지 주요한 천명을 한다. 첫째, 벨하 고백서는 일치가 “선물이자 의무”라는 약간 이색적인 주장을 한다. 일치는 하나님께서 지구와 인류와 교회를 위해 의도하신 선물이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복이다. 그러나 그것은 의무이기도 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벨하 고백서는 일치가 보여야만 한다고 선언한다. 벨하 고백서는 비가시적 교회에 주목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치를 드러냄으로써 다른 이들도 일치를 모방하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만 일치하며 함께 살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과 집단들 사이의 분열과 원한과 증오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정복하신 죄라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려고” 부름을 받았다.

셋째로, 일치는 적극적이어야 한다. 벨하 고백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물러나 연합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는다. 에베소서 4장에 근거하여 벨하 고백서는 우리가 일치를 통해 서로를 사랑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합하며 가장 깊은 신앙을 -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를 - 공유하고 주님과 그의 교제 가운데 한 식탁에 함께 둘러앉게 된다고 본다. 남아프리카 아파르타이드에서 일어난 가장 고통스러운 분열 중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인종이 다르면 주님의 식탁을 기념하기 위해 함께 모이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일치는 우리를 [이미] 모인 공동체에서 끌어내 세계 속의 일치라는 목적에 기여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입장이 극도로 인기가 없었던 시대에 벨하 고백서는 인종이나 계급이나 성별이나 성적 지향이나 신학적 입장이나 장애나 나이가 사람들을 교회로부터 배제하는 정당한 장벽이 될 수 없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밝혔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으며 모든 사람을 환영한다. 벨하 고백서에서는 “우리과 같은 사람들”하고 만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힌다. 인종, 배경, 언어, 문화, 및 영적 은사의 다양성은 우리가 서로를 풍요롭게 하는 데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서는 이해한다. 벨하 고백서에 동의한다면 다문화 교회가 아닌 신실한 교회를 상상하는 것은 어렵다.

### 화해

벨하 고백서 전반에 걸친 중심적 의식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화해의 메시지를 위탁하셨다”는 것이다.

고백서에 담긴 “이 메시지가 선포되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라고 고백하면서도 인종에 근거한 차별을 강요하여 소외와 증오와 원한을 촉진하고 영속화할 때, 이 메시지의 신뢰성은 심각하게 훼손되며 그 유익한 사역이 방해받는다”는 선포는 남아프리카

문제의 정곡을 찌르고 있다. 이 단락의 마감 부분은 인종과 피부색에 근거해 사람들을 강제로 구분한 것을 강력하게 정죄하면서 그런 행동은 잘못된 교리와 사상에 근거한 것이며 화해의 사역을 모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정의

벨하 고백서는 가장 강력한 표현을 정의(正義)에 대한 초점에 할애한다. 이 단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 정의와 참 평화를 가져오길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확인으로 시작한다. 아마 그다음 문장이 고백서에서 가장 강력한 진술일 것이다. “하나님은 불의와 적의로 가득 찬 세상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극빈자와 가난한 자와 억울한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편을 드신다는 이 주제는 벨하 고백서에 중요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다음 문장들도 고백서에 나오는 정의에 대한 또 다른 강력한 진술이다. “하나님의 소유인 교회는 주님께서 서신 곳에 서야만 한다. 즉 불의에 저항하고 억울한 자들의 편에 서야 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는 자기 이익을 이기적으로 추구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 해치는 권세자들과 특권층에게 맞서 증거해야만 한다.”

우리는 예수께서 서신 곳에 서도록 부름 받았다. 즉 가난한 자, 병든 자, 우물가의 여인, 버림받은 자, 그리고 세리와 같은 자들과 함께 말이다. 정의를 추구하는 교회는 그 삶과 사역을 교회 밖, 사회 “변두리”에 있는 이들에게 초점을 맞추며 예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자들의 정의를 위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대적하는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교회이다. 우리는 정의의 열렬한 옹호자가 되도록 권면을 받는다. 심지어 그 증거가 인간의 법률과 권위에 저촉되어 처벌이나 고난을 초래하더라도 말이다. 그것은 확실히 남아프리카에서 정의를 추구한 사역 결과 중의 하나였으며, 세계 수많은 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정의로의 부르심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계속해서 현실이 되고 있다.

벨하 고백서는 남아프리카의 당국자들과 같은 이들에게 일치와 정의와 화해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헌신이 타협 불가능한 것임을 통보했으며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일치와 정의와 화해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근본 가치이자 우리 삶을 영위하는 지침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 결론

- 1 Rogers, “The Belhar Confession,” p. 5.
- 2 세계개혁교회연맹(World Alliance of Reformed Churches)은 그 후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World Communion of Reformed Churches)이 되었다.
- 3 Accompanying Letter to the Confession of Belhar.



# 추악한 세상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기

알란 보삭 Allan Boesak

2004년 가나 아크라 총회에서 언급된 말이 지난 10년간 반복해서 입증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그것은 비극이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 우리가 보기 원했던 모습보다 더 다양하게 아크라 고백서(Accra Confession)에서 묘사된 “추악한 세상”(scandalous world)을 확증한다.

소위 “2008년도 재정위기로부터 회복”은 그 회복된 재정 혜택의 94%가 1%에게로 갔다는 것을 의미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하게 남아 있으며 심지어 더 가난해졌다. 여기서 우리는 빈곤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되는 빈곤화 과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매일 수십만 명이 굶주리며 밥을 넘기지만, 매년 잉여 식량 폐기에 5천만 달러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이것은 추악한 세상이다. 아크라는 옳았다.

지금 여성에 대한 폭력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다고 기술한 국제연합(UN)의 보고서가 있다. 남아프리카는 지금 “세계의 강간 수도”라고 불리고 있다. 필자의 조국에선 6.2 분마다, 미국에서는 36분마다 여성이 강간을 당하고 있다. 2014년에 나온 유럽 연합(EU) 보고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이례적으로 치솟았다고 언급한다. 이것은 추악한 세상이다. 아크라는 옳았다.

필자는 올해 미국에서 지내면서 많은 일을 보았는데 그중에 하나를 나누겠다. 2014년 2월 미국 하원은 가난한 가족들에게 지급할 식료품 보조비를 확실히 제공하기 위해 쓰여야 할 예산에서 87억 달러를 삭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삭감으로 1천4백만 명이 영향을 받는다. 그들은 적자가 너무 크고 미국이 돈을 쓰는데 더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014년 2월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2014년 10월에 같은 하원에서 별안간 중동에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돈을 찾아냈다. 연간 180억에서 220억 달러로 추정되는 금액이었다. 이것은 추악한 세상이다. 아크라는 옳았다.

1974년 독일인 신학자 헬무트 골비처(Helmut Gollwitzer)는 필자가 결코 잊을 수 없는 글을 썼다.

로마와 비텐베르크와 제네바 중에서 누가 이겼는가? 선행성화인가 이신칭의인가? 도르트 신경과 알미니우스파 항의서 중에서 어느 것이 교회의 공식 교리가 되어야 하는가? 크롬웰(청교도 혁명 - 역주)과 찰스 1세(국교 성공회 강요 - 역주) 중에서 누가 승리자가 되었는가? 이 모든 문제는 세계의 빨강고 노랑고 까만 종족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이것은 그들의 상황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었다 ... 이 모든 것 중에서 어느 것도 백인 기독교 개신교 종족들의 혁명인 자본주의 혁명이 온 세계에 퍼져 오늘날까지 끝나지 않은 종속의 시대를 여는 것을 막지 않았다.

필자는 골비처의 글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골비처의 말을 풀어쓴다면, 워싱턴과 런던과 북경 중 어디가 승리하든지,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민주적 독재, 혹은 다른 어떤 민족적 국수주의든지, 톰나 오바마나 푸틴 가운데 누가 승리를 거두든지, 이런 것들은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가난하고 억눌리고 짓밟힌 자들 그리고 글로벌 노스(Global North)의 소외당한 자들과 무관할 것이다. 어떤 것도 여전히 종속과 파괴의 시대가 마감되지 않도록 전 세계적인 투쟁을 하는 북반구의 강력한 특권 엘리트층의 혁명인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혁명을 막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추악한 세상이다. 아크라는 옳았다.

이 땅의 가난한 자들과  
억압받는 사람들의  
울부짖음에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뇌와 격분에  
응답하는 것이다.

우리가 과거에 사용했던 언어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단순히 시대의 징조를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징조를 읽고 가난한 자와 압제 받는 자와 상처받은 자들의 시각으로 그것을 분별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크라 고백서는 가르쳐 주었다. 필자의 견해로는 가난한 자들과 억눌린 자들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울부짖음이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거나 불의를 견디지 못하는 이들의 마음속에 그 부르짖음을 심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가난한 자들과 억눌린 자들과 짓밟힌 자들이 되신다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의 부르짖음에 반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고뇌, 하나님의 분노에 반응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처에 반응하고 있다. 장 칼뱅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부당한 행동, 하나님의 자녀 누구에게든 가한 모든 손해, 하나님의 자녀 누구에게든 입힌 어떤 상처도 하나님 당신에게 입힌 상처다. 그러므로 불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이다. 불의를 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다.”<sup>1</sup>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고백인 아크라 고백서 앞에 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시대의 징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법과 우리 자신의 게걸스러운 탐욕에 희생당한 이들의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과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을 질문해야 하는지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행동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교만하고 탐욕스럽고 폭력을 좋아하는 우리 때문에 상처받고 손상된 세상 앞에서의 전적인 겸손이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즉 하나님과 함께 이집트를 가로질러 걷는 것이 바로 그것이 뜻하는 바다. 무정한 압제자 바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의 아픔을 꿰뚫어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맞은 매를 세고 짐에 눌리고 아픔을 느끼는 노예들 가운데 서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의 권력과 노예감독관의 무자비함을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은 구조하러 내려가고, 해방하고, 폭력과 고통을 종식하는 것이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은 벽돌제조 공장에서 궁전 문까지, 옥좌까지 걸어가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하고 외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의 의지와 백성의 갈망 사이에 놓인 저항의 벽을 허무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당신이 보는 바에 의해서, 우리가 타인을 위해 하는 일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해롭게 하고 파괴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서 겸손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아크라 고백서를 따른다면, 이러한 하나님과의 겸손한 동행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가? 필자는 손을 더럽힐 의지가 있는 교회를 언젠가 꼭 보길 원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흘리시는 손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말을 한다. 그런데 우리 손은 평범한 진흙으로도 더럽히려 하고 싶지 않으며, 우리 폭력의 희생자들인 그들의 피에 대해선 패념조차 하지 않는다.

아크라 고백서는 예언적 언어를 사용했다. 우리는 이제 교회가 그런 예언적 언어를 사용하여 우리가 사는 “제국”과 “추악한 세상”에 관해 말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질문해야 할 때가 되었다. 당신이 파키스탄에 가서 드론 공격으로 식구를 잃은 어느 가족에게든 물어보라. 그리고 나서 “제국”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자. 할머니를 잃은 한 가족과 갓난 아이를 잃은 다른 가족이 자기 지역의 드론 공격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미국에 왔던 그 날, 그 두 가정의 증언을 듣기 위해 하원의원 중 겨우 다섯 명만이

##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묻은 손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도 한다. 그러나 정작 우리 손에는 티끌의 먼지조차 묻히기를 꺼려한다.

나타났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파괴하는 무기를 구매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도록 투표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눈을 바라볼 용기가 나지 않는다. 겨우 다섯 명만이 자신들이 결정한 결과, 즉 자신들의 제국적 권력의 결과를 들으러 나타났다.

아크라 고백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이 태만함을 받아들여선 안 되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파키스탄 가족들은 우리의 연대와 행동에 의지할 권리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언적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그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추악한 세상(scandalous world)”이란 단어를 아크라 고백서에서 지우라.

아크라 고백서에 충실하다면 토마스(M.M. Thomas)가 1961년에 던진 질문을 오늘 다시 던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도처에 일어나는 이 모든 민중 혁명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디에서 일하시는가? 그리고 교회는 새로운 인류 창조를 향한 하나님의 사역을 분별하기 위해 어디에서 이 운동들에 참여하는가?”

필자는 예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마감하려고 한다.

[바로 그 때]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누가복음 10:25-37)

오래전인 1974년에 헬무트 골비처(Helmut Gollwitzer)가 프랑스에서 이 비유에 대해 질문하면서 강도가 아직 현장에 있을 때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에 관해 물었다. 그 질문 때문에 그 비유는 이제 “공홀 사역을 좀 합시다”나 “자선 사역을 좀 합시다”에서 벗어난다.

우리는 항상 강도들이 사라지고 더는 위험요소가 없는 상태가 되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다음 강도 떼가 덮치기 전에 약간의 공홀 사역을 신속하게 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 강도가 아직도 길에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만약 우리가 자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공격을 멈추게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가 폭력을 중단시키라는 소명을 받았다면? 만약 더는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하려고 우리 몸을 위험에 빠뜨리라는 부름을 받았다면? 만약 우리가 아크라 고백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만약 우리가 정의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 만약 우리가 우리의 몸을 그저 제국의 권력과 그 희생자들의 권력 사이에 두었다는 점을 깨달았다면? 만약 우리가 예수께서 살아계시며 우리를 보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실제로 믿었다면?

## 자료

Accra Confession, <http://wrcr.ch/accra> 아크라 고백서 (한글판), <http://www.ecumen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6036>

Gollwitzer, Helmut. *Die kapitalistische Revolution*, Kaiser (1974). 헬무트 골비처 저, 윤웅진 역. 자본주의 혁명, 한국신학연구소.

Wolterstorff, Nicholas. "The Wounds of God: Calvin on Social Injustice," *The Reformed Journal*, June 1987.

## 결론

1 Nicholas Wolterstorff, "The Wounds of God: Calvin on Social Injustice," *The Reformed Journal*, June 1987, 14-22.



# 바르멘 선언과 라이프치히 선언

## 독일 개신교회사의 두 정거장

볼프 크룅케 Wolf Krötke

1934년 바르멘 고백 총회에서 1989년 라이프치히 월요일 시위까지 선을 긋는 것은 분명 대담한 일이다. 1934년에 등장한 독일 고백교회는 “독일 그리스도인들”(Deutschen Christen)이 민족사회주의(National Socialism: 나치즘)의 정신과 무엇보다 그 모든 실천으로 독일 지역의 개신교회들에 침투하기 위해 이용한 “거짓 교리”로부터 자신을 멀리했다. 1989년 라이프치히 대중 시위는 독일민주공화국의 사회주의 정부의 종언을 예고했다. 대부분의 시위자는 교회와 관련이 없었다. 그들이 보기엔 교회는 항의 시위대가 출발하고 결집하는 장소를 제공하고 비폭력 표어를 내걸고 시위대를 조직하는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다.

라이프치히 시위대는 당시 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정치적 행동이었다. 그러나 바르멘 신학 선언문은 민족사회주의의 국가에 대한 정치적 태도를 취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반면에 라이프치히에선 교회가 국민의 근본적 자유를 거부한 국가의 종식을 촉구하는 고도로 정치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바르멘 신학 선언은 이런 것에 대해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이프치히 시위대는 바르멘 신학 선언문의 제5 테제 안에 간직된 국가에 대한 고찰을 특별히 다루었다. 이 테제는 국가의 임무와 교회의 임무의 명백한 차이점을 논증한다. 즉 국가는 “인간 삶의 유일하고 전체주의적인 체제가 되어선” 안된다고 주장한다.

바로 이것이 민족사회주의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의 목적이었다. 그 둘은 그 이데올로기를 사회 전 영역에 강제로 시행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 두 정치 체제를 합치면 안 된다. 동독 정부는 살인마가 아니기 때문이다. 비록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수도 없이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독은 또한 결국에는 평화혁명 시대에 폭력을 단념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독의 마르크스주의에 끼여든 유럽식 인본주의가 무방비한 항의자들에게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도덕적 가치를 제공했다.

그러나 이 국가는 민족사회주의 국가의 교회에 비견할 만한 구조적인 문제를 동독 교회에 일으켰다. 즉, 그것은 그 권력을 이용하여 “유치원에서 양로원까지” 사회 전체를 국가 이데올로기 정신으로 획일화했다. 물론 이 이데올로기는 무신론을 포함했기에, 교회는 특히 종교를 “고사시키려는”(Absterben) 사회주의 국가의 전체주의적 야심 때문에 고난을 겪었다.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의거하면 “천국”을 지향하는 종교는 사회주의 사회가 인간의 지상적 필요를 모두

만족하게 해 줄 때 스스로 “죽는다”고 한다. 이 고사 작업은 아무리 해도 동독에서 충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하자, 이데올로기적인 정부의 왕성한 도움을 받게 되었다. 무신론적인 대중 교화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나게 불리한 조치를 통해 이 “고사 작업”이 자체적으로 집행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성공했다. 동독 치하 40년간 동독 개신교회(Evangelical Church in East Germany)는 교인 4분의 3을 잃었다. 1949년에는 인구의 90%가 교인이었으나, 1989년에는 사회 내 소수자로 전락했다.

국가가 “정의와 평화를 제공하는 ... 신적인 임명”에 의해(바르멘 제5 테제) 그 기능을 수행했다고 입증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동독개신교회의 출발부터 그 진로의 일부였다: 그리스도인 뿐만 아니라 전 인구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확연한 불의였다. 동서갈등의 군사적 고조는 평화를 위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개신교회의 한 대회(synod)는 바르멘 선언의 제5 테제가 1961년 베를린 장벽의 건설 이전의 동독 정부의 합법성을 명시적으로 긍정한다고 언급했다. 1961년에는 독일 교회들이 아직 한 조직을 이루고 있었다. 그 대회는 이 수칙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복음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임명 아래 있는 국가를 우리에게 전가한다. 그 임명은 정당하며 국가폭력과 정치형태의 실현과는 별개의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다.” 그래서 국가의 전체주의적 야심에 대한 저항이나 그 불의에 대한 비판은 고립된 경우에만 가능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고난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예상되었다.

교회가 바르멘 신학 선언 제5 테제를 해석한 기준 조건은 이런 종류의 국가를 부정할 어떤 범주적 권한도 부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교회가 발표한 선언의 종류는 바르멘 제5 테제와 전혀 일치하지 않았다. 제5테제는 성경이 “신적인 임명”으로 무슨 의무가 국가에 할당되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주장하지만 국가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든 지 간에 “신적인 임명”으로 “격상시킨”다고 주장하진 않는다. 국가를 “격상시키기” 위해 복음을 활용하는 그 표현형식은 종교개혁의 고색창연한 “창조의 질서” 신학의 희미한 빛을 분명히 담고 있다. 이는 “권위”의 자명성 자체가 이미 신적 “질서”로 이해되며 그에 대한 어떤 “반란”도 하나님의 법과 양립할 수 없다고 선언한 글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바로 이런 연유에서 1959년 베를린의 감독 오토 디벨리우스(Otto Dibelius)가 그리스도인들은 무력이 법을 지배하는 국가 안에서 양심적 복종을 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견해를 취했을 때 교회와 사회주의 국가에서 분노의 폭풍이 촉발되었다.<sup>2</sup> 신학적 표현 면에서 디벨리우스는 실제로 바르멘 선언의 제5 테제를 쓴 칼 바르트(Karl Barth)와 아주 근사했다. 그러므로 디벨리우스의 해석으로 이 테제를 읽으면 세계관을 침투시키기 위해 권력을 사용하는 국가에겐 “주저 없이 ‘안돼!’”라고 응답해야 한다.<sup>3</sup>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은 바르트가 “그리스도인들은 지상의 국가를 견뎌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의도해야 하고, 그것을 ‘빌라도’의 국가가 아닌 의로운 국가로 의도해야 한다.”라고 썼다는 점이다.<sup>4</sup> 동독에서 소위 *권위분쟁(Obrigkeitsstreit)*이 터진 시기와 같은 때에, 바르트는 바젤에서 윤리학 강연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권력이 법에서 분리되면 [...] 그 결과는 [...] 정치의 악마화다.” 그것은 파시즘, 나치, 스탈린주의처럼 국가의 *국가주의(statism)*를 훼손한다.<sup>5</sup> 이것의 결론은 심지어 동독에서도 시민의 자유 권리를 무시하는 권력 국가가 아닌 민주적인 헌정 국가를 옹호하는 것만이 기독교의 사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1959년의 정치 상황은 동서 갈등으로 너무 중독되어 있어서, 베를린의 감독은 동독에 대한 서독의 냉전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칼 바르트는 이 갈등에서 바르멘을 언급하면서 교회가 “제3의 길”을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3의 길에 따라 교회는 서로 원수가 되어 버린 사람들에게 화해의 메시지를 자유롭게 옹호할

의무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바르트는 또한 동독 교회들이, 동독 정부를 근본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바르멘 선언에서는 필요가 없었던, 낡은 “권위” 개념을 재활성화할 가능성도 고려했다.

그리고 나서 1961년에 베를린 장벽이 건설되었다. 어떤 합리적인 평가를 하더라도, 이것은 교회가 소련의 막강한 군사력 지원을 무제한으로 받는 국가의 지배하에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교회는 이제 국가와 대화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어느 곳도 의지할 수 없게 되었다. 1963년에 독일민주공화국 개신교회 리더십 회의에서 나온 초기 선언문 중 하나는 교회가 동독의 “권위(!)를 교회가 간구하고 존중하는 “하나님의 임명”으로 존중한다는 내용을 반복했다.<sup>6</sup> 그러나 국가가 “진리”를 보호하는 데 실패하거나 권력 남용에 대해 침묵하거나 백성 위에 계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하면, 교회가 “불복”할 것이라는 내용이 그 선언문에 첨부되었다.<sup>7</sup>

근본적으로 사회주의 “권위”에 대한 교회의 관계, 즉 동독 정부의 자칭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교회의 관계를 이렇게 이중적으로 역설한 것은 어려운 균형잡기 활동을 전망했다. 한편에선 신적으로 합법화된 국가를 존중하고, 다른 한편에선 정치권력 남용을 비판하기. 대체로 이런 균형잡기 활동은 항상, 처음에는 국가를 긍정하는 쪽으로, 그리고 나선 다시 그것을 비판하는 쪽으로, 기울어질 위험에 있었다.





특히 동독 개신교회의 진로에 있는 두 정거장이 이것을 잘 강조한다. 1969년에 동독 개신교회 연맹이 출범했다. 이 출범은 동독 지역 교회가 조직상으로 독일 개신교회(EKD)에서 분리된 것을 나타냈다. 연맹은 그 전문에서 이렇게 선언한다. “연맹은 회원 교회들과 더불어 첫 바르멘 고백 대회(Confessional Synod in Barmen)에서 내린 결정들을 천명하고, 회원 교회들더러 형제들의 증언을 경청하라고 요청한다. 그것[연맹]은 그들을 도와 교회를 파괴하는 이단에 대처하여 함께 변호할 것이다.”<sup>8</sup> 동독 개신교회 연맹의 첫 의장인 알브레히트 쇠헤어(Albrecht Schoenherr)가 말한 것처럼, 바르멘 선언은 “동독 사회주의 사회” 안에서 “진로를 모색하는” 교회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해해야만 했다.<sup>9</sup> 그러나 이 “진로를 모색하는 것”이 “사회주의 안의 교회(church within socialism)”라는 표현형식을 인정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약해지지 않는 교회를 국가의 날개 아래 두기 위해 동독의 사상 지도자들이 지어낸 말이었다. 동독이 사라진 후 알브레히트 쇠헤어는 이 표현형식을 승인한 것이 실수였다고 시인했다.<sup>10</sup> 그 표현형식은 마치 “사회주의 안의” 교회가 우호적인 가정 안에 꼭 안겨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 편안하게 지낸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회가 의도한 것은 사회주의 사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지하길 원했다는 점과 그들을 교회로서 옹호했다는 점이다. 디트리히 본회퍼의 학생으로서 쇠헤어는 교회가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진정한 사회주의 이상을 인정하고 이것들을 교회 안에서도 고취함으로써 진정한 “타인을 위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상상했다.

그러나 그 사회주의 국가는 자기 권력을 행사하려는 방법을 통해 계속해서 이 사회주의 이상을 암울하게 만들고 왜곡했다. 그래서 국가에 대한 교회 진영의 비판은 어쩔 수 없이 점점 더 커지게 되었다. 1972년 드레스덴 개신교회 연맹 대회(Synod of the Federation of Evangelical Churches)에서 하이노 팔케(Heino Falcke)가 한 강연은 이 징후를 보여주었다. 그가 발제한 강연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구속 - 타인을 위한 교회를 위한 이유”였다.<sup>11</sup> 동독은 그 출판을 금지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본과 원고가 널리 퍼졌다. 여기서 팔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동체를 구속하시어 “자유와 감사 가운데 당신의 피조물들을 섬기도록”하신다는 바르멘 제2 테제와 본회퍼가 “타인을 위한 교회”에 대해 한 말을 결합했다. 즉, 그리스도의 구속(바르멘 2 테제)이 타인을 위한 교회의 이유(본회퍼)라는 것이다. 그것은 이 가장 내적인 교회 -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 - 에 집중하는 그 자체가 교회를 해방시켜 세상을 위해 “성숙한 책임으로”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가 국가가 저지를 수 있는 어떠한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는 동기가 된다. 그러므로 그 강연은 국가가 고착시킨 “실제 현존하는 사회주의”에 반대하여 “개량된 사회주의(improved socialism)”를 촉구했다.<sup>12</sup> 그렇게 함으로써 팔케는 이 정치 체제의 근본 토대를 건드렸다.

결국, 사회주의는 “사회주의 안에 있는 교회”가 “종교”에 대한 독립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계급의 원수”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진정한 원칙을 훼손한 “수정주의”로 간주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유의 목소리들은 점진적으로 과급되었고, 1980년대 중반에 더욱더 커졌다. 회중들이 조직한 “평화 모임들”은 동독이 소련과 동맹하여 수행하는 군사 정책을 의문시하고 사회 전반의 군국화를 강하게 비판했다. 환경 입안자들은 동독 경제가 초래한 무절제한 환경 파괴를 폭로했다. 철학과 문학 진영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지적인 맥락을 면밀하게 조사했다. 회중들은 대안적 예술을 표현하는 수단을 발견했다. 시민 운동의 확립과 심지어 사회민주당같은 정당이 준비되었고 드디어 회중들의 후원으로 결성되었다. 세계 전역의 기독교에 잘 수용된 “정의와 평화와 창조 보전을 위한 공의회 절차(Conciliar Process)”가 동독에서는 사회주의 국가 권력 사용의 모든 결점, 즉 인권과 하나님의 피조물에게 호의적인 정책과는 양립할 수 없었던 것들을 논의하는 것이었다

물론 이러한 교회 진영의 여론이 성공적으로 대중에게 잘 들리도록 하는데 여러 요인이 기여했다. 그 중 주요한 것은 사회주의 사회에 그 시민의 정치적 자유를 개방하는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이다. 바로 그것이 동독 리더십이 자기 시민들의 자유 욕구를 밀어버리기 위해, 1953년 6월 17일의 대중 소요 중에 탱크를 사용했던 것처럼, 무력 사용을 더는 선택하지 않은 이유이다. 그러나 개신교회는 이 국가의 시민 권리를 지치지 않고 옹호함으로써 심지어 무교회 비율이 가장 높은 국민을 돌보았고 그들의 자유 욕구를 옹호하는 자라는 신뢰를 얻었다. 바로 이것이 독일민주공화국 개신교회가 라이프치히 뿐만 아니라 베를린과 그다음엔 전국적으로 평화혁명의 추진력을 조성한 과정을 설명하는 유일한 방법이라.

그 해는 나라 안팎으로 그 통치에 반대하는 항의 집회와 시위가 일어나고 있었음에도 동독의 리더십은 국가 40주년을 거창하게 축하하길 원했다. 1989년 10월 7일 베를린의 공화국 궁전에서 기념행사가 열리는 와중에도 베를린 중심가들은 여전히 항의자들로 가득했다. 경찰은 매우 강경하게 시위자들을 추격했고, 1000명 이상을 체포했다. 다른 도시에서도 경찰은 폭력적으로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그러나 이틀 뒤인 1989년 10월 9일 라이프치히에서 사회주의 독재에 종말의 전조를 울리게 될 시위가 일어났다. 7만 명의 군중이 “우리는 국민이다(We are the people)”와 “폭력 반대” 표어를 들고 성 니콜라스 교회(Nikolaikirche)와 다른 교회들에서 출발하여 도심에 향했다. 유혈 참사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이미 배치된 엄청난 경찰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민의 군대와 전투부대가 대기하고 있었다. 군중은 도심을 피하라는 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평화기도회를 위해



성 니콜라스 교회의 내부와 앞에 모여 있었고, 군중의 수는 점점 늘어났다. 80년대 초반부터 정의롭고 자유롭고 환경을 책임지는 사회를 옹호하는 단체들과 입안자들이 이 평화기도회를 위해 라이프치히에서 모이고 있었다. 그중에는 동독을 떠나고 싶어 한 이들도 있었다. 평화를 위한 기도회는 오랜 기간 갈등을 겪어온 전통이 있었다. 그 회중이 정치적 동기를 가진 그런 단체들과 입안자들의 요구를 교회의 복음선포 의무와 조화를 이루기가 항상 쉬운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이 평화를 위한 기도회들과 거기서 귀결된 행동들이 국가에 성가신 것이었다. 국가안보부처와 경찰은 수년 동안 그 기도 모임을 제재했고, 참가자들을 괴롭히고 체포했다. 이 점에 관하여 상황을 완화하기 위하여 교회 측은 “평화”라는 위험한 단어를 포기하고 “월요기도회” 모임이란 표현을 도입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기가 커지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그러나 1989년 10월 9일 “월요기도회”는 중대한 결정에 직면했다. 참여자 전원은 중국 리더십이 천안문 광장의 시위자들에게 발포하였고, 이것이 독일 사회주의통일당(Socialist Unity Party, SED)의 호평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도시의 유력한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라이프치히의 SED 지역 리더십의 지도 관리들과 협상한 후, 국가 정당은 시위자들과 자발적으로 대화를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배치된 군대와 경찰이 철수했다. 동독 역사상 최초로 국가는 무력 사용을 자제했다. 그러나 그것이 그 국가 종말의 시작이었다. 이 시작은 전국적으로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다. 수십 년 동안 압제를 받았던 사람들이 다시 숨을 쉴 수 있었다.

이것은 그리스도 교회들이 국가 권력을 다룬, 특히 독일 교회가 국가 권력을 다룬 역사에서 두드러진 사건으로 남아 있다. 이때 동독 교회는 압제 권력을 선택하지도 “하나님의 임명”이라고 정당화하지도 않았다. 교회는 억압받는 이들의 편을 택했다. 그것은 바르멘 제5조의 조건으로 국가의 “신적 임명”을 이해했다. 그래서 불법적인 무력 사용으로 고난을 겪어야만 했던 바로 그들에게 혜택을 주었다. 교회는 사회주의 국가가 목표한 국가보다 더 나은 국가를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교회는 역사적으로 반복해서 이루어졌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즉 폭력과 피와 눈물로 그 일을 하지 않았다. 또한, 동독의 평화혁명은 비인간적 체제를 바꾸기 위한 비폭력적 경로가 환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것들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현될 수 있다.

## 결론

- 1 *Theologische Erklärung der Evangelischen Kirche in Deutschland in Berlin* 1956, in: *Für Recht und Frieden sorgen. Auftrag der Kirche und Aufgabe des Staates nach Barmen V. Theologisches Votum der Evangelischen Kirche der Union, Gütersloh* 1986, 110. English translation from [https://www.ekd.de/english/barmen\\_theological\\_declaration.html](https://www.ekd.de/english/barmen_theological_declaration.html) (accessed 20 March 2016).
- 2 Cf. Otto Dibelius, *Obrigkeit?*, Berlin 1959.
- 3 Karl Barth, *Rechtfertigung und Recht*, ThSt 1, Zollikon-Zürich 1944, 44. English translation from Karl Barth, *Church and State*, G. Ronald Howe, trans., London 1939, 77.
- 4 Barth, *Church and State*, 80.
- 5 Karl Barth, *Das christliche Leben. Die Kirchliche Dogmatik IV/4, Fragmente aus dem Nachlaß. Vorlesungen 1959-1961*, Karl Barth, *Gesamtausgabe II*, Zürich 1976, 374; 377. 필자의 번역.
- 6 *Zehn Artikel über Freiheit und Dienst der Kirche*, in: *Für Recht und Frieden sorgen. Auftrag des Staates und Auftrag der Kirche nach Barmen V. Theologisches Votum der Evangelischen Kirche der Union, Gütersloh* 1986, 124.
- 7 Cf. *ibid.*
- 8 인용문 출처. Friedrich Winter, *Die Geltungsformel der Theologischen Erklärung von Barmen in den Ordnungen der Evangelischen Kirchen in DDR. Ein Beitrag zum Dialog um Barmen*, in: Rudolf Schulze/Hartmut Ludwig, (eds), *Barmen 1934-1984. Beiträge zur Diskussion um die Theologische Erklärung von Barmen*, Berlin 1983, 130. Author's translation.
- 9 Albrecht Schönherr, *Die Barmer Theologische Erklärung als Hilfe für die Wegsuche in der sozialistischen Gesellschaft in der DDR*, in: Wilhelm Hüffmeier, (ed.), *Das eine Wort Gottes – Botschaft für alle. Vol. 1, Vorträge aus dem Theologischen Ausschuß der Evangelischen Kirche der Union zu Barmen I und VI*, Gütersloh 1994, 381-396. Author's translation.
- 10 Albrecht Schönherr, *...aber die Zeit war nicht verloren. Erinnerungen eines Altbischofs*, Berlin 1993, 374.
- 11 *Abgedruckt in: Zum politischen Auftrag der Gemeinde. Barmen II. Votum des Theologischen Ausschusses der Evangelischen Kirche der Union*, Gütersloh 1974, 213-232. Author's translation.
- 12 Loc. cit., 227.



# 상황

## 제국 Empire

필립 피콕 Philip Peacock

### 단어의 부각!

아크라 고백서는 "제국" 개념을 에큐메니칼 담론의 중심에 확고하게 두는데 중심적 역할을 했다. 그 단어 자체는 얼마 동안 일반학과 신학계 양측에서 분명히 회자하였다. 이 현상은 특히 양측의 탈식민주의 학자들에게 해당한다. 그렇지만 그 단어와 개념이 에큐메니칼 진영에서 유명해진 것은 아크라 고백서 때문이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 개념이 더 큰 에큐메니칼 진영에서 확산된 것은 (현 WCRC의 일부가 된) 세계개혁교회연맹(WARC)의 중대한 공헌이란 사실은 무시할 수 없다. 결국 개혁교회들의 커뮤니티는 오랫동안 에큐메니칼 운동의 자유와 정의를 향한 장도의 선두를 달려 왔다. 수년 전 WARC 서울 총회에서 정의와 평화 및 창조보전의 씨앗이 뿌려졌고 교회들의 다양한 운동 가운데 그 열매가 맺혔다.

그런데, 2004년 아크라 총회 이후 제국 개념이 분명히 회자하긴 했지만, 개혁주의 진영 안팎에서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세계 곳곳에서 논쟁과 토론과 심지어 특이한 동맹들이 발전했다! 단어는 신학적으로 중요하고, 신학은 기술[예술]이며, 과학과 실천은 단어와 그 사용법에 관한 것이다. 단어는 단어를 생산. 대중화하는 권력의 역학에서 분리될 수 없다. 급진적 여성운동 신학자인 메어리 델리(Mary Daly)는 자신의 독자들에게 새로운 언어를 창조하고 옛 언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함을 상기시킨다?

### 단어 안에 무엇이 있는가?

조지 오웰(George Orwell)이 자신의 유명한 저서 1984에서 묘사한 미래 디스토피아를 지배하는 전체주의 정부의 부처 중에 언어부가 있다. 각 부처가 그 이름과 정반대되는 일을 한다는 반어적 맥락에서,<sup>3</sup> 언어부는 최소 숫자의 단어만 쓰도록 고안된 언어인 "신언어(Newspeak)"를 발명/도입함으로써 단어의 숫자를 줄이려고 한다. 이 정책이 가진 두 가지 효과는 우리에게 단어 자체가 지닌 능력을 알려 준다. 한편으로 단어는 우리 경험을 기술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정확한 단어가 없다면 우리가 체험하는 경험을 분명히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단어의 훨씬 더 심오한 능력은 우리가 경험을 기술할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 경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단어를 소유하고 언어를 소유하는 능력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분명히 표현할 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므로 언어[여론]를 통제하는 능력은 항상 강자들의 관심사였다. 언어를 통제하면 사람을 통제할 수 있다.<sup>4</sup>

아마도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제국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고 중요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현 글로벌 체제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의 경험을 이해하고, 분명히 기술하고, 명명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더욱이 우리는 제국이란 단어가 우리도 어찌면 참여하고 있을 권력의 역동성을 드러내고 폭로할 수 있는 해석학적 렌즈를 우리에게 제공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 성경과 신학 속의 제국

제국은 신조어가 아니며 새로운 개념도 아니다. 예를 들면, 성경 내러티브는 제국과의 복잡한 관계를 담고 있다. 성경 이야기는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로마 그리고 중간기에 나오는 페르시아와 헬라 등 제국의 맥락에서 회자하고 기록되었다. 성경 본문이 어떤 때에는 제국의 야심을 가진 것처럼 보이고, 다른 때에는 제국과의 협력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반제국적 내러티브도 나온다. 이것은 또한 히브리 성경과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과 서신서들에 핵심적이기도 하다. 게다가 목시문학은 반제국적 신학으로 가득하다.

초대교회의 박사들도 마찬가지로 제국에 대한 그들만의 모호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유세비우스는 제국이 복음전파의 기초를 놓는다고 시사하는 것 같다. 다른 한편으로 히폴리투스는 제국이 반교회적 혹은 교회의 악마적 모방이라고 주장한다. 똑같은 열려가 급진적 종교개혁과의 교회론에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설명할 때에도 발견되며, 어찌면 칼뱅이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를 구분할 때에도 반영되었을 수 있다.

기독교와 제국 사이의 관계는 기독교세계(Christendom) 상황들과 식민주의를 통해 특수하지만 익숙하게 왜곡되었다. 기독교는 제국주의를 정당화했고, 제국주의는 신학적 언어를 이용하여 그 폭력을 은폐했다. 선교사들과 화포가 같은 배를 타고 함께 식민지에 도착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다시 말하지만, 지구 곳곳의 선교활동 역사는 복잡했고 항상 제국과 공모한 것은 아니었지만, 둘이 서로 관련되었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

### 제국을 상황화하기

제국에 대한 현 담론을 이러한 더 큰 정치적, 신학적 배경 안에서 다루는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아크라 고백서가 사용한 제국이란 단어를 맥락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

아크라 총회가 2001년 9월 11일 사태 후 혼란기에 개최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9·11 사태가 이미 군산복합체 아젠다의 논리를 벗어났지만, 그것에 기름을 끼얹었다는 점은 의심할 바가 없으며

지금 더 분명해지고 있다. 수십년 동안 냉전 시대의 당사자 양측이 주도했던 간섭주의 정책의 후유증으로 글로벌 아젠다를 가진 비국가적 활동가들이 지금 나타났다. 그 활동가들은 반제국주의 수사학을 사용했고 계속 사용하지만, 구조 자체가 아닌 정권을 바꾸려는 의도로 제국주의 틀 안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다.

한편으로 서아시아 정치의 지역·국제적 수준에서 화석 연료를 통제하는 정치경제 때문에 그야말로 기름을 끼얹은 것처럼 복잡할 수밖에 없었고 계속 그러고 있다. 이것 때문에 서아시아 자체에서는 지역 엘리트가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를 가공할 폭력 수준으로 몰고 간 대중 집단과 갈등에 빠지는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게 되었다. 더욱이 그것은 한편으로는 대규모 이주의 위기를 조성했고, 이 지역의 노동자 특히 이주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압제 구조를 굳히는 결과를 가져왔다.

다른 한편으로, 화석연료의존 경제정책은 그 지역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함을 보여주며, 상당 기간 전부터 그러했다. 수잔 조지(Susan George)는 자신의 논문 “상식 제조하기(Manufacturing ‘Common Sense’)”에서 시장 체제의 논리에 대한 도전이 사라지고 심지어 그것이 규범으로 정착되어온 “제도를 통한 장구한 행진”의 역사를 제시한다.<sup>5</sup> 의심할 바 없이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세계화 역사는 장구하고도 격렬하지만, 그 역사는 시카고 경제학과와 어쩌면 심지어 아메리카 군사학교(School of the Americas: 중남미 군인들을 훈련하는 미 국방부의 훈련 시설 - 역주)와 거기서 개발된 기술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마 우리가 더 다급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아메리카의 신세기 프로젝트(Project for the New American Century, PNAC)를 고려하는 것이리라. 1997년 미국에서 소수의 신보수주의자가 시작한 이 단체는 미국 외교정책의 분명하고 명확한 비전을 발전시켰는데, 이 비전은 명백히 제국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 신보수주의 두뇌집단이 군수업체와 오일업체의 기금을 후원받았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바로 이 단체가 1992년 이라크의 정권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다.<sup>6</sup>

9.11 사태가 일어난 지 9일 후, PNAC는 이라크가 그 공격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이라크를 공격해서 사담 후세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이것은 놀랄 일도 아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 PNAC의 창립 회원 중 한 사람인 폴 볼포비츠(Paul Wolfowitz)가 1992년에도 이라크 공격을 권했다는 점이다.<sup>7</sup>

그러므로, 아크라가 준비되는 동안에 군사-산업-가부장적 복합체를 강화하려고 의도된 명백한 공조 노력이 가시화되었다.<sup>8</sup>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여파로 또 그 와중에, 의연하게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구체적인 신학적 언어로 응답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제국이란 단어가 바로 이 언어를 제공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점들을 연결하고 그 연관성을 만들고 무엇보다 우리 세계의 잘못된 실체를 드러내고 동시에 신앙과 신앙적 응답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했다. 똑같은 것을 언급한 아크라 고백서는 그것을 신학적으로 명명하고, 똑같은 것에 대해 신앙적 응답을 제공할 수 있는 언어를 제공했다. 고백이란 단어의 정의를 어떤 의미로 선택했든지, 그것이 아크라 고백서라고 불린 것은 의미심장하다. 고백 개념은 그 안에 신앙의 응답을 내포한다.

## 우리는 제국의 제도가 사람을 그 제도 안에서만 생각하게 하고 사람에 대한 억압을 일상적으로 만드는 것에 강력하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 오늘날의 제국에 대해 생각하기

제국은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 세계에서 경제·문화·정치·군사력의 연합”을 것을 명명할 방법을 제공했다. “이것은 인류가 창조한, 지배자 없는 정부의 실재와 정신에 의해 구성된다.”<sup>9</sup> 그것은 또한 유동적이며 변동한다. 우리는 제국의 기계화가 항상 역동적이며 압제를 규범화하고 우리가 그 틀을 벗어나는 사고를 하지 못하도록 무력하게 만든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대안이 없다고 믿을 때 까지 “상식”의 가면 뒤에 숨는다. 우리가 시대의 징후를 지속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우리는 제국이 오늘날 적합한 표현인지 질문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국의 이란 단어로 우리가 실제로 의도하는 뜻은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상황은 지속해서 변동하기 때문에 항상 유동적이다. 사실 필자가 이 논문을 쓰기 시작한 시기와 마치는 시기 사이에 상황이 변했다.

여기서 두 특별한 시점이 중요하다, 우선 후코(Foucault)가 우리에게 상기하듯이, 근대의 권력은 더는 개인들에게 부여되지 않으며, 어쩌면 지금은 나라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행정 절차 자체에서 발견된다.<sup>10</sup> 우리는 이제 새로운 국가적, 비국가적 활동가들이 등장한 것을 볼 뿐만 아니라, 제국이 이 둘 모두를 초월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는 처지에 이르렀다. 제국은 우리의 사회·경제적 구조뿐만 아니라 우리 사고 속에 침투한 체제이자 구조이다.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제국이 더는 단일한 조직이 아니라 머리가 여럿인 히드라와 같은 자본주의로 활약하면서 지구촌 전역의 자본 이해관계가 공모하는 것도 보았다.<sup>11</sup> 제국은 국가라기보다 체제다.



둘째로 이 프로젝트의 일부인 제국주의와 폭력적인 권력의 특징은 점점 더 섬세해진다는 점이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구조의 익명성을 통해 폭력을 정상화하고 규범화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필자가 파시즘의 허구로 가리키려 한 것에 의해서 그 폭력을 은폐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우리는 노골적인 폭력행위와 그것의 미화와 노골적 인종차별과 종교적 비판용이 점증하는 문화에 대해 염려하고 있고 명실공히 그러해야 하지만, 우리가 또한 인식해야 할 것은 우리 각자가 시장과 소비지상주의의 충성스런 신하가 되도록 완만하지만 확실한 교육을 받으면서 급기야 그것이 우리의 정상적 자아의 일부가 되기까지 한다는 점이다.

사실 이것이 그 짐승의 매력이다 (조금 있다가 이 표현을 언급할 것이다). 자본주의는 어떤 저항과 대립도 정복하고 영입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자본주의는 소외와 사회적 불안과 우울증을 조성하지만, 우리에게 항우울제도 판매한다. 시장이 전적인 통제를 하게 되었다. 아마도 현대 자본주의의 가장 명백한 모순은 지구 전체의 기후 조건에 큰 피해를 주는 환경 위기일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우리의 집단 죄책감을 누그러뜨리려 “친환경 제품을 사라”고 요구한다. 이산화탄소 측정기와 재활용 쇼핑백과 공정 거래 커피를 사는 것이 규범이 되었다. 소비지상주의에 대한 저항이 줄어들었다. 그 짐승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영리하다.

그리고 우리는 짐승이란 표현(언어)을 사용한다. 그것이 성경적 표현이기 때문이다. 성경 특히 묵시문학은 제국을 지칭할 때 짐승이나 문제가 많은 용어인 “창녀”와 같은 상징적 표현을 지속해서 사용한다. 그 이유는 아마도 묵시문학을 상상한 이들이 이 제국의 성격이 모호하고 유동적이라서 직접적 표현보다는 상징으로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리라.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우리가 현재의 제국을 파악해야 하는 방식일 것이다. 수많은 이들의 생명과 삶을 잔인하게 파괴하는 폭력적 권력의 결집을 표현하는 상징적 언어로서 말이다. 짐승은 모습을 바꾸고 형태를 바꾼다. 짐승은 권모술수로 우리를 매료시킨다는 의미로 매력적이다. 그러나 그것은 파괴적이며 사악하며 우리 신앙 표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대적한다. 2017 라이프치히 총회가 우리에게 촉구하는 바는 시대의 징후를 지속해서 분별하고 제국이 어떤 형태를 취하든지 항상 그것을 의식하는 것이다.

그러면 세계 커뮤니언으로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바는 짐승의 세련됨을 적절하고 근본적으로 분별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아크라와 같이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단어들을 만들어내고 옛 단어에 새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고, 짐승을 규명할 수 있게 되고 명명 작업을 통해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첫걸음을 떼게 될 것이다.

여기서 개혁주의 신학자 마크 루이스 테일러(Mark Lewis Taylor)가 우리에게 중요해질 수 있다. 자신의

저서 *종교와 정치와 기독교인의 권리(Religion, Politics and the Christian Right)*에서 그는 제국을 망령이란 용어로 부른다. 그가 “미국적 낭만주의와 계약적 자유주의”로 규정한 망령들이다. 제국의 이 두 망령은 예언적 정신으로 대항해야 한다고 테일러는 주장한다. 흥미롭게도 테일러는 자신의 모든 분석에서 망령, 혼, 영이란 개념이 초월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 물리적 힘(material forces)이라고 고집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제국의 망령들에 대항할 때 필요한 것은<sup>12</sup> 예언적 정신이다.<sup>13</sup> 아크라 고백서는 우리에게 분별의 언어를 제공했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되고 있는 것에 대항하기 위한 언어이다. 그것이 바로 여기 세계화 프로젝트에서 쓸모가 있다.

## 혁명적 분별력은 예언자적 영성속에서 혁명적 지향성의 행동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또 지속적으로 위임되어야 한다.

전술한 대로 세계화 프로젝트는 거기서 정의한 제국 개념 때문에 지금 유명해졌다. 흥미롭게도, 그 프로젝트는 제국 정의가 제국의 의미를 고정한다고 보지 않고 실제로는 토론을 심화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보았다. 그 프로젝트는 제국 문제를 숙고한 윤리적 결과가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문제라고 이해한다. 그것의 맨 마지막 장에서 이것을 개관하고 있다. 바로 여기서 그들은 아마 테일러가 이 세상의 고난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대안적 세상을 그려보는 과정인 “예언적 상상(Envisioning)”에 관하여 “예언적 영”이라고 가리킨 바에 대해 말한다. 불의를 초래하는 모든 것에 대한 급진적 비판의 힘겨운 과정에 관련되는 예언적 비판. 기억을 위한 자리를 제공하고 깨어진 공동체를 다시 기억하는 예언적 이야기 나눔. 그러나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는 수준에서 머무를 수 없고, 기술적, 학문적 엄격성을 요구하는 예언적 분석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은 예언적 행동 믿음 소망 사랑이란 더 큰 우산 밑에서 이뤄지는 예언적 정책입안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sup>14</sup>

아크라의 급진적 정치(사상)은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모은다. 급진적 분별에 대한 지속적인 헌신만이 아니라 분별을 급진적 직접 행동으로 전환시키는 예언적 정신도 필요하다. 아크라는 불가능한 동맹과 대안적 비전과 이 짐승과 싸우려 한 신학적 표현을 구성하는 데 기여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라이프치히에서 기대하는 과제다. 시대의

분별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정의로 특징지어진 세상을 향해 이끌고 가는 법을 깨닫는 것이다.

### 결론

- 1 예를 들면, 독일 교회와 남아프리카 교회 사이에 이뤄진 일을 고려하라. 이것을 반추한 작품이 *다른 세상을 꿈꾸다: 세계화와 인류를 위한 정의와 지구(Dreaming a Different World: Globalization and Justice for Humanity and the Earth)*이다. 제국에 대한 그들의 공통된 정의는 그 용어가 에큐메니칼 문서에서 나타난 여러 용례들을 통해 무슨 의미로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여전히 알려주고 있다. Cf. The Letter from Johannesburg.
- 2 Mary Daly *Gyn/Ecology: The Metaethics of Radical Feminism* (Boston: Beacon Press, 1990) p. 340.
- 3 예를 들면, 평화부에서 전쟁을 계획한다.
- 4 식민주의적 선교사는 문법을 성문화하고 본문을 번역하는 일을 추진한다. 이 모체 안에서 성경과 현지어 모두를 읽을 수 있다.
- 5 Susan George, "Manufacturing 'Common Sense'" in Achin Vanaik ed. *Masks of Empire* (New Delhi: Tulika Books, 2007) p. 46.
- 6 PNAC의 자체 원리선언문의 표현을 살펴보자. "미국은 유럽, 아시아, 중동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우리가 책임을 태만하게 하면 우리의 근본적인 이해관계에 도전을 초래한다. 우리는 20세기 역사에서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환경을 조성하고 위협이 심각해지기 전에 그것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어야만 했다. 금세기 역사에서 우리는 미국의 리더십이란 명분을 받아들이는 것을 배웠어야만 했다." 막대한 자금을 받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프로젝트인 PNAC는 네 가지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군사 예산을 증액할 필요, 둘째, 공동 우방을 강화하고 "우리의 이해관계와 가치관에 적대적인 체제들을 도전"하려고 했다. 셋째 해외의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고취시키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PNAC는 국제 체제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도전에 부응하라고, 즉 미국이 자국의 이해관계를 보장하고 번창하게 해주는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고유 역할을 맡는 책임을 받아들이라고 권한다. PNAC의 제국주의적 의도들은 명시적일 뿐만 아니라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다.

- 7 Susan George, "Manufacturing 'Common Sense,'" p. 57.
- 8 전쟁-자본과 가부장제 사이의 상호연관성은 항상 존재했지만 아마 부시 부자 정권 때 더 분명해진 것 같다. 그 점들(dots)을 연결하여 군수-산업 복합체를 폭로하는 게 더 쉬워졌다. 나오미 클라인(Naomi Klein)은 *충격이론(The Shock Doctrine)*.(London: Penguin Books, 2007))에서, 천재지변 혹은 인재(전쟁으로 해석)를 통해 시장을 개방시키는 *재난 자본주의(Disaster Capitalism)*라고 지칭한 수사법을 다룰 때 더 상세하게 분석한다.
- 9 Allan Boesak, Johann Weusmann, Charles Amjad-Ali *Dreaming a Different World (The Globalization Project)* p. 2.
- 10 Peter Denis "Power and Subjectivity in Foucault" in *New Left Review*, No. 144 p. 76-77.
- 11 이 용어는 *히드라 같은 글로벌 자본주의*라는 책의 제목에서 빌려온 것이다. *Global Capitalism as Hydra*. Cf. Indukuri John Mohan Razu *Global Capitalism as Hydra: A new look at Market, Money and MNC's* (New Dehi/Mumbai, ISPC/BUILD, 2006).
- 12 그리고 테일러는 그것을 물질적 힘이란 의미로 사용하지만, 우리는 그가 단어를 선택할 때 유동적, 역동적인 것을 포착하려 한 시도를 감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것에 대해 마치 성경의 짐승 개념처럼 논할 수 있으려면 영적인 상징이 필요하다.
- 13 Mark Lewis Taylor *Religion, Politics and the Christian Right: Post 9/11 Powers and American Empire*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5), p. 96.
- 14 Allan Boesak, Johann Weusmann, Charles Amjad-Ali *Dreaming a Different World (The Globalization Project)* pp. 75-78.

# 들으라, 들으라. 하나님이 부르신다!

## 여성 안수에 대한 속고

김혜란 HyeRan Kim-Cragg

2017년 총회 주제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갱신하고 변화시키소서!”는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가리킨다. 이 총회는 종교개혁 500주년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기념한다. 그러나 그 주제는 과거를 기념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지향하는 현재를 축하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시다. 그리고 우리는 역동적 소명을 분별하고 현재와 미래에 신실하고 예언적인 존재가 되라는 도전적인 소명을 받았다. 그 주제는 또한 지금 여기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우리의 상상력을 사로잡는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깨어짐과 불의함을 인정하면서도 변화된 세상, 즉 근본적으로 다른 세상을 상상한다. 여성 안수는 그러한 실제, 즉 완성을 갈구하는 실제이다.

무엇이 위기에 처한 것인가?

여성 안수 문제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문제로 보여졌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러한가? 여성 안수 문제가 세계개혁교회 커뮤니티(WCRC)를 양극화시키는 문제가 되어야만 하는가? 커뮤니티 회원의 일부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의 세계선교에 온전히 참여하기 위해 영-은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당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연합(communion)할 수 있는가? 성경은 성별에 근거하여 여성 안수의 범위와 성격을 제한하는가? 하나님, 즉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 1. 여성 안수 문제는 교회의 교리보다 큰 문제이다.

여성안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서 표현된 성경적 증거, 즉 예수께서 여성과 남성과 아이들을 대하신 모습에서 유래한다. 상황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기독교 신앙은 진공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교회는 세상 안에 존재한다. 교회가 세상과 세상의 깨어짐과 세상의 전체성과 관련을 맺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다. 우리의 신앙은 문화적, 사회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우리 상황의 영향을 받는다. 성경적 증거를 상황과 연결한다는 것은 사회적 조건이 바뀔 때 특정 본문의 비중과 의미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제약임과 동시에 참고기준으로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캐나다 연합교회(United Church of Canada)의 다음 이야기는 여성 안수 문제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사례 연구 : 캐나다 연합 교회의 이야기

리디아 그루치(Lydia Gruchy)는 1936년에 캐나다 연합교회에서 최초로 안수받은 여성이다. 그녀는 또한 1920년에 장로교 신학 대학(Presbyterian Theological College, 현재 사스카툰 성 안드레 대학(St. Andrew's College, Saskatoon))에서 신학을 공부한 최초의 여학생이었다. 그녀는 1923년에 졸업하자마자 어린이 사역을 하도록 사스카추완주 베리긴(Verigin, Saskatchewan)으로 파송 받았다. 머지않아 그녀는 그곳에서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고, 1926년에 캄사크(Kamsack) 노회에 안수를 신청했다. 1926년 (캐나다연합교회로 통합한 후 처음 열린) 총회에서 이 신청을 허락하자는 동의안이 제기되자 “회의가 폭발했다(exploded).”

1920년대부터 50년대까지 기독교계 사회의 상황은 여성이 공적 분야에서 일한다는 개념에 강하게 반발했다. 상황적으로 말하자면, 당시 캐나다에서 여성 안수 개념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아마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공적인 직위에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다고 상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했다. 이런 상황에서 1926년 총회가 이 문제로 “폭발한” 이유를 이해할 만하다. 그루치가 안수를 받는데 10년이 소요되었다. 그녀가 안수받은 후 수십 년이 지났어도 여성(특히 기혼 여성)의 안수는 장구하고 험난한 길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또 다른 요인을 언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바로 1, 2 차대전 이후의 상황이다. 캐나다인들은 수많은 젊은 남자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옛 가정 질서가 해체되는 것을 목격했다. 사실 리디아의 형제는 대단히 촉망받던 신학생이었는데 1차대전 중에 전사했다. 전시에 수많은 여성이 공공 부문에서 남성에게 속했던 직장을 가졌다. 이러한 상실과 이 시기에 발생한 거대한 사회적 변화는 여성안수의 소명을 상상할 만한 어떤 것으로 만들었다.

1926년으로 되돌아가 보자. 1926년 총회는 여성안수에 관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1928년 총회에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1928년에 제출된 이 보고서는 교회 내 여성과 공적 리더십에 관한 신약성경 구절 몇 단락을 성경적 근거로 제공했다. 보고서는 복음서들에 따라 예수께서 남성과 여성을 영적으로 동등하게 간주하셨다고 주장했고, 그러고 나서 바울의 저작을 인용했다. 고린도전서 2:5과 갈라디아서 3:26-28을 인용하여 초대교회에서 여성과 남성이 어떻게 동등하게 리더십을 행사했는지 설명했다. 또한, 바울이 교회에서 여성이 감당할 만한 사역들을 제한하는 글을 썼다고 간주하는 고린도전서 14:34-36과 같은 구절들에 주목했다. 보고서는 이런 다양한 구절들을 함께 읽음으로써 나중 구절만



인용될 때 거기서 생기는 구속력을 허물어뜨렸다. 이것은 논의 중인 한 단락의 상대적 비중이나 의미를 결정하는 데 유용한 다른 단락들을 활용한 사례이다.

성경에 관련지어 말하자면, 이 보고서에서 두 가지 통찰을 얻을 수 있다. 하나는 모순된 견해를 담기도 하는 성경의 모호성(ambiguity)이다. 바울은 어떤 곳에서는 여성이 자기 동역자들과 리더들과 동등한 존재라고 말했다가, 다른 곳에서는 그리고 다른 청중에게는 교회 내 여성의 역할을 대단치 않게 여겼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감 된 것이지만 그 모호성과 양가성(ambivalence) 때문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두 번째 통찰은 우리가 성경해석자로서 여성안수와 같은 특정 문제들에 관한 성경적 계시의 근본 취지에 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단락들의 비중을 균형 있게 조정할 수 있는 복음적 자유(evangelical freedom)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복음적 자유는 기독교인이 복음에 반응하여 기존의 관행이나 신앙 이해를 극복하기 위해 누려야 할 자유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일반적 방향과 갈라디아서 3장에 나타난 바울의 방향은 일부 성경 단락들(예: 엡 5:21-33, 딤후 2:9-15)의 명시적 가르침이 세부적으로 더는 구속력이 없다고 상대화시키기 위해 언급된 것들이다.

캐나다 연합교회의 이야기는 건전한 성경적 태도를 보여 정의에 대한 예언적, 문화 대항적 부름, 즉 안수사역에 여성을 포함하는 부름까지 다다른 신앙의 조상들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1920년대부터 50년대까지 북미주의 문화는 여성의 교회 내 리더십과 같은 공적인 역할을 반대했다. 그렇지만 이 특별한 교회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함으로써 자문화적 상황으로 만연된 읽기(해석학)에 반대하는 성경적 부름에 주의를 기울였다. 그들이 신앙공동체로서 여성안수 문제를 다뤄야만 한다는 것을 의식하게 만든 지도원리는 바로 성육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었다.

## 2. 여성 안수 문제는 전통보다 큰 문제이다.

여성 안수를 단순히 교회가 과거에 승인했다거나 또는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승인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신학적 인간학,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적이 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학문에 참여해야만 한다. 2017년 총회는 하나님을 과거에만 존재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을 고백한다. 그 주제는 곧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는 대상인 “우리“에게 향하고 있다. 개별적인 인간 존재로서 또한 공동체로서 갱신되고 변화되어야 할 존재가 바로 “우리”이다. “우리”를 지목하는 것은 또한 우리 인류의 관계가 부서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반역 때문에 슬퍼하셨고(이사야 63:10) 예수님도 예루살렘 도성 때문에 우셨다(누가 19:41). 왜냐하면, 우리가 여성을 남성과 동등하지 않게 취급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이 불평등은 어디서 나오는가?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다고 하는 신학적 정당화는 어디에 있는가?

이것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인류가 창조된 태초로 돌아가야만 한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두 가지 다른, 상반되어 보이는 설명을 하고 있다. 창세기 1장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성과 남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면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성을 암시한다. 창세기 2장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이 남자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창조하셨다. 두 번째 이야기는 여성을 남성보다 부차적인 위치에 둠으로써 여성의 열등함을 정당화하는 데 악용됐다.

이 두 이야기가 모순되게 보이지만, *에제르*(조력자)와 *아담*(인류)이란 두 단어의 성경적 의미를 검토해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 *에제르*란 단어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helper) 배필을 지으리라”(창세기 2:18) 하고 말씀하실 때 나온다. 성경학자들은 성경 전체에서 *에제르*의 다른 용법들을 조사했다. 이 단어는 히브리 성경에서 29회 나타나며, 주로 하나님을 언급할 때 나타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인 경우에(예: 출애굽기 18:4, 신명기 33:7, 시편 20:2, 33:20) 이 *에제르*란 단어가 사용되었다. 그래서 성경의 증거에 관한 한, 돕는 자로 나온 최초의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되었다거나 열등한 신분이라는 것을 암시하지 않는다. 게다가 하나님은 돕는 자를 언급하신 직후에 그 여성을 “배필(partner, 동반자, 동업자)”이라고 부르셨다. 배필은 남자와 동등한 동반자이다.

다른 중요한 단어는 *아담*이다. 이것은 종종 성경 최초의 남성의 이름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창세기 1:26-27에서 *아담*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포함되는 인간이나 인류를 가리킨다. 여성과 남성을 모두 대표하는 단수 명사는 인간의 다양성 속의 일치를 강조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남성과 여성은 온 세상을 복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 일부로서 서로서로 그리고 하나님과 협력하도록 함께 창조되었다.

요컨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나온 신학적 인간학은 상관성(relationality)을 긍정한다. 인간 존재로서 우리는 서로서로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는 혼자서 살 수 없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것을 보셨다. 우리에게만 하나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필요로 한다. 우리가 독립적이고 혼자서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자신을 속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서로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알고 있다. 세상 즉 우리의 경제·사회적 시스템이 계급과 불공평을 기존체제로 지지하면 할수록, 신앙의 사람인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불평등한 관계가 무너지고 고쳐지지 않는 한 충만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알고 있다.

### 3. 여성안수를 긍정하는 것은 모든 신자의 제사장직을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선언하는 것이다.

여성을 공적 사역에 안수하지 않는 것이 현재 상황일 수 있다. 심지어 교회사의 장구한 전통을 따라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보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어 회개하고 새로워져서 변화를 받아 예언적 발걸음을 내디디고 평등과 정의로 빛어진 세상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하나님께 경청하고 또 경청해야만 한다.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 즉 여성과 남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 때 “심히 좋았더라” 하고 말씀하셨다.

교회 역사를 통해 리더십 역할을 맡았던 여성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교회가 여성안수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단단한 얼음 밑에서 흐르고 있는 생수를 상상해 볼 수 있다. 현실이 고착되고 불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이 얼어붙은 물이 녹아서 저류와 함께 흐를 수밖에 없다. 교회와 사회에서 공적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적 은사에 대해 인정을 받은 훌륭한 기독교 여성들이 많이 있다. 성령께서 확실히 여성들을 안수사역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교인들을 지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훈련하신다는 것을 우리 커뮤니티에 속한 교회들이 확증해주었다.

초대교회가 권력의 매력에 무릎을 꿇기 전에는 뛰어난 여성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성 페르페투아(St. Perpetua)는 교육받은 사람이었고 교회 교사로 섬겼다. 그녀는 현존하는 가장 초기의 성경의 교육자료를 저술했다. 그녀는 21세가 되었을 때 당시 다른 많은 순교자처럼 대경기장(콜로세움)에 있는 감옥에 갇혔고 결국 203년에 살해당했다.\*

중세시대까지 교회에서 여성에게 허용된 유일한 공식적 역할은 수녀였다. 노르위치의 줄리안(Julian of Norwich, 1342-1416)은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데 헌신했다. 그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16개의 환상 체험을 기록했다. 그 내용은 창조와 타락,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은혜에 관한 것이었다. 그녀는 영국 최초의 여성 작가였다.\* 교회사자 제인 더글러스(Jane Douglas)의 주장에 따르면, 15세기 말에 살았던 여성 평신도 크리스틴 드 피상(Christine de Pisan)이 여성들의 본성에 관한 문학 논쟁을 터뜨려 신학자들의 전제에 도전하였고, 이 논쟁이 수백 년간 지속하였다고 한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이 논쟁을 이어받은 마리 당티에르(Marie Dentiere)는 종교개혁의 초창기에 제네바에서 해방의 복음이 여성에게 말하고 쓰도록 촉구한다고 천명하고 그렇게 했다고 더글러스는 주장한다. 캐서린 젤(Katherine Zell, 1497-1562)은 가톨릭 사제인 매튜 젤(Mathew Zell)과 만나서 결혼했고, 서로 협력하여 함께 사역을 계속했다. 혼인 때문에 가톨릭 교회가 가를 파문했지만 루터 교회가

그를 영입하였다. 그들의 혼인 때문에 사역이 방해받기 시작하자 캐서린은 자신들의 혼인을 지지하는 성경적 변증을 탁월하게 논증하는 글을 저술 출판했다. 나중에 마틴 루터가 그 글을 칭찬했다.\*

북미주에선 피비 파머(Phoebe Palmer, 1807-1874)가 월터 파머(Walter Palmer)와 결혼하긴 했지만, 성결을 고취하는 데 자신의 삶을 헌신했다. 1835년에 피비와 그녀의 자매는 여성 기도를 조직했고, 2년 뒤에는 이것이 발단이 된 갱신 운동이 급기야 미국 감리교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녀는 교훈과 설교로 매우 유명해졌다. 그녀의 영향력은 저술 때문에 커졌다. 그녀는 교회가 여성의 은사들을 토기장이의 밭에 묻어버렸다고 비판했다. 마태복음 27:1-10에서 언급된 이 밭은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받은 돈으로 외국인들을 매장하기 위해 매입된 땅을 가리킨다.\*

19세기에 수많은 선교사가 세계 전역으로 퍼졌다. 그들의 태도가 식민주의적이고 고압적일 때도 있었지만, 그들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여성 교육이 계몽되고 해방되는 측면도 있었다. 이 교육의 수혜자 중 한 사람이 양정신이다. 한반도 북부에서 태어난 그녀는 질병으로 6세에 눈이 멀었다. 그녀는 북미 선교사들이 설립한 맹인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초청을 받았고, 신체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를 통해서 1940년대 일본에서 의학을, 1950년대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 1977년 그녀는 한국기독교장로교에서 최초로 안수받은 여성이 되었다.

교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이 보이지 않게 되자 그 활력을 상실했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기독교에 편입되고 제도화되자마자 교회는 제정 국가처럼 권력을 행사했다. 교회가 사회의 지배 권력이 되면서 여성의 역할은 주변부로 밀려났다. 여성들을 침묵하게 하려는 시도들이 있었고 심지어 종교재판소의 마녀사냥처럼 처형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교회가 침묵시키지 못했던 강인하고 신실한 여성들이 있었다. 이 여성들이 구름같이 허다한 신실한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들” 살펴보고 있다. 이 똑같은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어 WCRC 역사의 새 장을 열라고 하신다.

\*자료 출처: Shannon Nicole Smythe, *Women in Ministry*.

# 젠더 정의의 성경적 비전

## 민수기 27장 성경공부

오펠리아 오르테가 Ofelia M. Ortega

필자는 “소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책에서 숙고할 본문을 선택했다. 사실, 필자는 말하자면 일종의 독서 소화불량에 걸릴 뻔했다. 분명히 민수기는 그리 매력적이지 않으며 확실히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오리게네스는 이것을 인정했다. “모든 사람이 복음서와 서신서와 시편을 즐겁게 읽는다. 그리고 기쁨으로 그것들에 착념한다. 사람들은 그것들 안에서 자기 질병에 대한 어떤 치료법을 발견하고 행복해 한다. 그러나 민수기를 읽게 되면 ... 많은 사람은 그것이 민수기가 쓸모가 없으며 자기 연약함을 치유하지 못하고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믿을 것이다. 그래서 민수기를 거부할 것이고 소화하기 힘든 음식처럼 옆에 젓혀둘 것이다.”

그런데도 캐서린 도옵 세이큰펠드(Katherine Doob Sakenfeld)는 “오늘날 민수기가 창세기나 출애굽기에 비해 잘 알려지진 않지만 고대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기초적인 종교적 안내를 제공하는 도움을 주었다.”라고 주장했다.

이 책은 여성을 “안 보이게” 만드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예배 중에 레위인과 제사장 리더십은 진정 놀랍다. 그들은 수호자로서 성소를 “에워싸고” 항상 어떤 “공간”이든 여성들의 참여를 차단한다. 그러나 여성들은 민수기 36장 중 9장에 걸쳐서 밝은 계시의 불꽃으로 가끔 등장하여 여성을 배제하는 특징을 보이는 남성 제사장직의 장애가 자신의 신앙 고백에 “용기”를 더할 수 있는 여성들에 의해서 언제나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본 게바라(Ivone Gebara)의 말로 표현하자면, “가부장제의 장벽이 높고 뚫을 수 없지만 우리는 다른 편으로 가기 위해서 그 벽에 구멍을 뚫는 작은 개미들과 같다.”<sup>3</sup>

그리고 이것이 바로 슬로브하트의 딸들인 말라와 노아, 밀가, 그리고 디르사가 모세에게 가서 개인적, 공개적으로 말했을 때 한 일이다(민수기 27장). 그러므로 이 다섯 명의 여인들이 오늘 은은히 타오르는 촛불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초는 작을지라도 주변의 어둠을 소멸한다.

### I: 이 여성들은 자기 이름이 있었다

우리 여성들은 살아가면서 처음엔 법적으로, 그다음엔 감정적으로 이름을 상실한다. 우리는 더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이름이 불리지 않음으로써 존엄성과 자존감을 상실한다. 이 여인들은 (비록 누군가의 “딸들”이긴 했지만) 고유한 이름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잃어버릴 뻔했던 유산, 즉

아들을 남기지 못하고 죽은 아버지의 유산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이 여인들은 실제로 똑똑했다. 그들은 자기 아버지의 땅을 상실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잃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사실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다면 그 땅은 마땅히 아버지에게 속해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 그런 연유로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게 되었다.

우리들, 여성들은 시간이 갈수록 첫째로는 법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우리의 이름을 잃어간다.

### II: 여성의 목소리

이 여인들은 자기 목소리를 주장하여 남성의 권위와 권력에 도전한다. 그들의 목소리가 들려져야 한다. 그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지도자들과 모든 회중을 대면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민수기 27:2). 본문은 그들은 앞에 서서(개역개정)라고 기술한다. 그들은 굽히지 않았고 비굴하게 무릎 꿇지 않았다. 그들은 “회막 문에서”, 분명히 성스러운 폐쇄구역 입구에서 그들 앞에 서 있었다. 여기 진영 가운데 있는 빈 곳에서 그리고 하나님 임재의 방 가까이에서 그들은 말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말라, 노아, 밀가, 호글라, 그리고 디르사가 했던 것처럼, 여성의 삶을 뒤덮고 있는 침묵의 마력을 깨뜨려야 한다.

### III: 거룩한 공간으로 들어가자

그리고 그들은 거룩한 공간의 입구에서 말했다! 그 거룩한 공간은 여성에게 금지된 구역이었다. 필자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 중 하나는 루마니아 정교회를 방문한 것이다. 성찬식 순서 때 성가대가 연주하는 동안 제단 곁에서 예배를 집례하던 그룹이 성찬을 들고 원형으로 움직였다. 그리고 나서 회중석의 여자들이 남성만을 위한 “거룩한 구역”으로 옮겨가더니 거기서 블라우스와 스카프와 천 조각들을 던져서(사제들의 손에 들려 있던) 성찬이 이 옷들에 유익한 영향을 미치게 했다. 이것은 거룩한 공간을 침범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그 침범은 아름다웠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열린 공간(OPEN SPACE)에



머무르셨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물질적으로, 즉 육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았다. 열린 공간이란 신학 개념은 유대인들의 예언 선포에 중심적이었다. 하나님은 그룹들의 두 날개 사이에 있는 “열린 공간”에 닿을라 말라 하게(극미세하게 분리되어) 머무르셨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열린 공간에 임재하신다는 사상의 가치를 축소했다. 그리고 “그 공간을 폐쇄했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것을 육체적인 것으로 바꾸었다. 우리는 그것을 신체에 가두었다. 우리는 그것을 물질로 바꾸었다. 그런 거룩함 개념은 성전-물체, 지성소, 성만찬, 사제, 감독, 교황 등과 같이 물질적이 될 뿐만 아니라 외부에, 즉 우리 자신 밖에 놓여 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사람이나 대상을 모독하거나 무례하게 대하는 것이 신성모독인 이유이다. 핵심은 그것들 자체가 아니라 그것들이 대변하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어떤 인간 존재의 존엄성을 홀대하고 조종(모독)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 때로는 사형 제도에 대해 아무도 비난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러나 거룩한 사람이나 물체를 모독하면 비난을 받는다. 우리는 “모든 생명이 신성하다.”고 천명해야 한다. 그 공간들을 활짝 여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몸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 몸을 불결하게 만드는 “성소와 정조대”를 깨뜨려야 한다.

**IV: 하나님께서 여인들에게 호의적인 결정을 내리셨다 (5절)**

이 결정은 정의의 행동이다. “여인들이 옳다.” 문제가 거론되었고 승리를 거두었다! 그 요구를 경청하고 수용해 주었다. 문화적, 사회적 전통을 고수하면서 그 전통이나 법이 우리 여성의 삶에 미칠 수 있는 결과들을 평가하지 않으면 심각한 불의가 과생될 수도 있다. 이 내러티브에서는 하나님의 공평이 순전한 법적 권리를 무시하는 것처럼 나타났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법에 모순되는 어떤 법도 그 제정 자체부터 과멸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생명을 확장하는 에너지가 그런 법령을 어기고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복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이야기에서 일어난 일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핫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4-7).

교회와 사회의 여성과 소녀들의 삶을 규제하고 지배하는 규칙이나 규범은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 공동체의 삶을 풍성하게 하려고 그 규칙이나 규범들을 분석·제거·변화할 용기를 내어야 하는가? 여러분에게 멕시코 장로교회(Presbyterian Church of Mexico)의 에방헬리나 코로나 카테나(Evangelina



#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모순되는 법은 그 운이 다한 것이다.

Corona Cadena)의 이야기를 짧게 나누고 싶다. 이 교회의 한 여성이 멕시코 연방 하원의원이 된다. 그녀는 국가 정치 생활에 훌륭하게 진출했다. 그 직후에 그녀는 자신의 지역 교회에서 장로로 피택받았다. 노회의 표결은 이 교회의 결정을 기각했다. 멕시코 장로교회가 여성 목사나 장로를 안수하지 않기 때문이다. 믿기지 않는 일이다! 그렇지 않은가? 여성이 멕시코 하원이 될 수 있는데 자신의 지역 교회에선 장로가 될 수 없다니. 멕시코 여성들이 에방헬라나를 거부한 교계에 그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걸표지에 그녀의 얼굴 사진이 실린 책을 출판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필자는 기뻐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시고, 민수기 27장의 성경 이야기가 이 사실을 재확인한다.

## V: 이 여인들의 행동은 유대인을 위한 권리의 규칙 혹은 규범이 되었다

그것은 새로운 입법의 공표였다! 그렇다! 우리 여성은 우리에게 압제와 배제를 의도한 법률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강간범들의 장기 수감과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실행 중인 가정폭력 처벌법과 같은 변화를. 여성들은 이전에는 사회·경제적 정책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행동 영역들을 창조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슬로브하트의 딸들이 했던 것처럼 그 방향으로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 이 성경본문은 정의 편에 선 행동 하나가 남성과 여성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증거다.

필자는 이 내러티브를 좋아한다. 다섯 자매는 정의로운 법을 변호한 것 외에도 토지권을 차지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함축하는 바는 그들이 기꺼이 집안에서 하던 역할을 벗어나 농장 운영의 책임을 졌다는 뜻이다. 그래서 그들은 특권적인 지위를 받고 동시에 큰 책임을 인수한다. 그들의 판례로 확립된 법은 이스라엘 여인들이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활발해지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재산은 사람들의 생명을 연장하고 건강하게 하는 수단으로서만 가치가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36:1-13에서 여자들의 유산이 통제받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삶의 대안들을 위해 계속 투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슬로브하트의 딸들을 위한 결정이 가진 의미는 그것이 실제로 준 것보다 그것이 함축한 바에 있다. 토지 상속을 정당화하는 원 자격은 물려받는 자원을 사용하고 모든 국가 의무에 참여하는 능력이었다. 이

사례에서의 결정은 또 다른 개념, 즉 여성의 개인적 발전 개념의 시작을 표시한다. 슬로브하트의 딸들이 요구한 주장은 허락을 받았고, 그 결과 자신들이 다른 방식으로는 열리지 않았을 방법으로 자신들의 정신과 삶을 가꾸도록 부름 받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이제부터 그들은 새로운 여성이다!

함께  
영원한 동틀 녘에  
모든 것을 에워싸는  
사랑을 통해.  
더는 피난 가서 출산하는 일이 없고,  
더는 포로의 꿈이 없고,  
더는 짙어진 정죄함이 없고.  
이제는  
햇빛 가운데 ... 즐겁게 춤추는  
자유 시간이다.

말하는 자유와 보는 자유,  
어디든 걷고 무엇이든 부를 수 있는 자유가.  
생명의 새로움!  
그들은 서로 동행하고,  
손뼉 치고,  
자신의 투쟁을 계속한다.  
그들의 만남의 리듬에 맞춰서.

레베카 몬테마요르 *Rebeca Montemayor L.*



# 예배자료

## 일치의 선언

우리는  
 한 신앙을 나누며  
 한 소명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집니다.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한 영으로 찬만하며  
 한 세례로 세례받았고  
 한 떡에서 먹고 한 잔에서 마시며  
 한 이름을 고백하고  
 한 주님께 순종하며  
 한 목적을 위해 일하고  
 한 소망을 나눕니다.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너비와 깊이를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져 새 인류가 됩니다.  
 서로의 짐을 깨닫고 짊어짐으로써  
 우리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고 서로 권면  
 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며 의를 위해 함께 고난을 겪  
 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합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함께 하  
 나님을 섬깁니다.

(놀란 팔스마(Nolan Palsma))

## 경제 정의에 관한 신앙 선언

(아크라 고백서에 근거함)

우리는 경제적 이익 때문에 지구를 착취하는 것이 옳  
 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권력의 터무니없는 축적이 옳다고 믿지 않습  
 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결정을 내리는 자들과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 사이의 간격이 커지는 것이 옳다고 믿지 않습니  
 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사 성령의 권능  
 으로 잉태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것  
 을 믿습니다.

우리는 군국화와 대량파괴 무기의 허용을 거부합니  
 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디오 빌라도  
 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죽으시고  
 매장되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세력이 승리할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어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힘 있는 자들에게 휘둘린다고 믿지 않  
 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  
 러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시장 이데올로기나 소비지상주의나 유물론이  
 옳다고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생명의 시여자이신 주 성령님을 믿습  
 니다.

우리는 계급과 편견과 차별이 옳다고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통을 믿습  
 니다.

우리는 복수나 압제자의 멸절이 옳다고 믿지 않습니  
 다.  
 오히려 우리는 죄 용서를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출처 : 당신을 위해 부서지다(Broken for You))

**목상: 그들은 나를 믿지 않았다(They didn't believe me)**

(누가복음 4:14-30에 비추어)

성령의 능력으로,  
 나만의 몸부림을 통과한 후  
 그리고 때가 찼다는 것을 깨달은 후,  
 나는 거리로 나가서  
 나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는 이들의 집을 방문했다.  
 그리고 나는 마을로 나가서  
 그들의 성소에서 선포하면서  
 변화,  
 진정한 변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삶을 바꾸고  
 완성하는  
 변화의 때가 도래했다고  
 기쁘게 선언했다.



만인의 존엄을 위하고  
가장 작은 자를 돌보는 정의를 지향하고  
밑에서부터 들려오는 진실을 지향하며  
동등한 권리를 지향하고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포용하는 사회를 지향하는  
변화.  
처음에 그들은 웃고 손뼉을 쳤으며  
기쁜 소식을 열광적으로 받아들였다 ...

그러나 그러고 나선 ... 그러고 나선 그들은 나를 모욕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나를 위협했고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했다.  
왜? 무엇이 그들을 화나게 했는가?

“나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을 가져온다”라고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아니, 우리는 당신 말을 듣고 싶지 않소.”라고 그들은 응수했다.  
“평등을 장려하고 소수에게만 혜택을 베풀지 않으며 인간이 돈보다 우선시되는 더 정의로운 경제 체제가 필요하다.”라고 나는 그들에게 제시했다.  
그러나 그들은 독재자의 멍에 아래 살기를 선호했다.  
“나는 눈먼 자가 보기를 원한다.”  
“여긴 아무도 눈이 멀지 않았고 아무도 당신이 필요하지 않소.”라고 그들은 응수했다.  
“고난을 겪는 자들을 품고 슬픈 자들에게 약간의 희망을 주고 낙담하고 근심하는 이들을 ... 위로할 기회를 내게 나오.”  
“그런데 너는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요셉의 사생아야?”  
“너희가 정말로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나?  
나는 너희를 가두고 있는 감옥의 문들을 열기 위해 무거운 공포의 창살에서 통속성이란 감방에서,  
'모든 사람이 자기만 위하는' 지하감옥(혹은 블랙홀)에서 너희를 풀어주기 위해 왔다.”

“예수여, 아무도 당신이 필요하지 않소. 당신의 사상을 어디든 다른 곳에서 전하십시오.”  
“오늘 성경이 너희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나는 그들에 설명하려고 했다. “그것은 사상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가장 힘 있는 자들의 해명과 순응만 하는 종교인들의 냉담과 많은 사람의 두려운 공포가 성공했다 ...  
그래서 나는 기쁜 소식을 품고 내 신발을 떨어 버리고 그 마을을 떠나야만 했다.

(헤라르도 오버만(Gerardo Oberman), 케이티 피겐바움(Katie Fiegenbaum) 역)

## 기도

### 고백의 기도

우리 주님께 함께 아뢰면서 오늘 이 세상에서 주님의 신실한 동역자로 살도록 도움을 구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깨닫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만나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으로 자부하며 우리 자신의 자족성에 대한 긍지로 부풀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궁핍한지 망각했습니다.

애통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만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개인적, 문화적, 민족적 죄악에 대해 애통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과 그들의 고통과 필요와 외로움과 불의와 고난으로부터 스스로 고립되었습니다. 심지어 스스로 강박하게 되어 우리 자신의 개인적, 민족적 삶을 주님을 슬프게 만든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만나니, 온 땅이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온유보다 강인함을 더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 형제자매와 우리 주변과 세계 곳곳의 이웃들보다 자신에게 관심을 두는 쪽을 택했습니다. 탕자처럼 우리는 우리 아버지보다 우리 자신을 더 만족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만나니, 그들이 의를 온전히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유한한 세상의 쾌락과 특권과 소유를 갈망했습니다. 에서처럼 우리는 우리의 즉각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선택을 함으로써 생득권을 경멸했습니다.

궁핍히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만나니, 그들이 궁핍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가혹한 재판관처럼 다른 사람들의 삶을 판단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아닌 다른 대상이나 사람을 비난하는 데 빨랐습니다. 우리는 자국이나 타국에서 불의를 겪는 이들을 돌보거나 도와야 할 의무를 회피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만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직접 선택한 이상들로 우리 마음을 더럽혔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리라는 것을 의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직업, 우리의 친구, 우리의 쾌락, 그리고

우리의 계획 속에서 의미와 안전을 발견하려 함으로써  
지속해서 진리를 타협합니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만나니, 그  
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개인적, 민족적으로 불화를 일으  
킵니다. 우리는 천 가지 하찮은 방식으로 우리 자신의  
구미를 맞추라고 요구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  
자신보다 더 중요하다는 평가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 가운데 걷기보다는 우리만의 방식  
을 요구함으로써 종종 불화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들은 하나  
님의 복을 만나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자주 다른 사람들을 거부하는 일  
을 회피했습니다. 우리는 현 상황을 거스르는 모험을  
하거나 다수가 수용한 현 질서를 뒤흔들기보다는 세상  
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의를 위한 거  
부를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할 영예가 아닌 부담스러운  
짐으로 여깁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출처 : 당신을 위해 부서지다( Broken for You))

### 정의를 위한 기도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은 자신을  
사람들 사이에 정의와 참 평화를 가져오길 원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셨나이다.  
불의를 외면하는 세상에서  
주님은 빈핍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억울한 자들에  
게 눈길을 주시나이다.  
주님은 우리더러  
주님을 따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사로잡힌 자들에게 놓임을, 눈 먼 자들에게 시력의 회  
복을 선포하고  
억눌린 자들을 해방하며  
주께서 베푸시는 복의 때를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나이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오니 주님의 교  
회에 임재하소서.  
우리의 눈을 여시어 깃밟힌 자들을 보게 하소서.  
이방인과 피난민과 이민자들의 역경을 공휟히 여기  
는 마음으로 우리를 채우소서.  
고아와 과부를 돕는 사역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불경한 자들의 길을 막을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소서.  
주님이 정하시는 참 예배를 방해하는 경건한 연습에  
서 우리를 해방하소서:  
가난한 자들과 빵을 나누고,

집 없는 자들과 집을 나누고,  
헐벗은 자들과 옷을 나누고,  
친족과 마음을 나누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하시고 주님의 공의  
가 샘솟는 물처럼 넘치게 하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끄사 가난한 자들과 함께 서게 하  
시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서게 하소서.  
오 하나님 자비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들을 홀으소서.  
강한 자들을 낮추소서.  
하찮은 이들을 높이소서.  
가난한 자들을 채우소서.  
그리고 부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소서.  
우리 아버지여, ...

(폴 얀슨(Paul G. Janssen))

### 감사와 중보의 기도

하늘과 땅의 주님, 우리는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그  
리스도 안의 일치로 부르시는 것을 듣기 시작했습니  
다.

오, 주여, 주님께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영감에 더 주의를 기울이며 서로를 더  
기꺼이 경청하도록

오, 주여, 주님께 간구하나이다.

우리는 서로 대화를 시작하였고, 우리 공동의 신앙을  
축하하며 서로 다른 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오, 주여, 주님께 감사하나이다.

목회자, 신학자 및 그리스도인들의 인내심 있는 사역  
이 계속해서 진보하고 지속적인 열매를 맺도록

오, 주여, 주님께 간구하나이다.

신학과 목양 생활 문제에 관해 맺은 일치 때문에

오, 주여, 주님께 감사하나이다.

우리를 여전히 분열시키는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직시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오, 주여, 주님께 간구하나이다.

우리를 여전히 분열시키는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직시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오, 주여, 주님께 간구하나이다.

우리가 위기의 시기에 전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  
증거와 정의와 평화와 인도주의적 도움 때문에

오, 주여, 주님께 감사하나이다.

우리의 일치를 통하여 언젠가는 온 세상이 주님께서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도록

오, 주여, 주님께 간구하나이다.

세계 곳곳에서 진전되는 종교 간 대화 때문에

오, 주여, 주님께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이 대화에 참여하여 다른 신앙인들에 대한 증  
거로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온전한 연합의 절박성을  
느낄 수 있도록

오, 주여, 주님께 간구하나이다.

창조주와 그리스도와 위로자의 사랑 안에서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모든 살아 있는 증인들 때문에

오, 주여, 주님께 감사하나이다.

그들의 가정생활이 자기 교회 회원들의 기독교적 기  
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오, 주여, 주님께 간구하나이다.

같은 식탁을 나누고 같은 잔으로 마시는 그 날에 대한  
 소망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루려는 우리 소원이 자라  
 나서 주님으로부터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오, 주여, 주님께 간구하나이다.

오늘 우리 앞에 제시된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리  
 나이다.

(놀란 팔스마 (Nolan Palsma))

폴 얀슨(Paul G. Janssen)과 헤라르도 오버만(Gerardo Oberman) 그리고 놀란 팔스마(Nolan Palsma)의 기고문의 저작권은 각 저자가 보유하고 있다. 본 자료는 교회별로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 인쇄되었으며, WCRC에서 인신매매 관련하여 제작한 기고문 “당신을 위해 부서지다”(Broken for You)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다.

찬양

Da berühren sich Himmel und Erde

Earth and heaven are meeting, rejoicing

Thomas Laubach

Christoph Lehmann

1. Wo Men - schen sich ver - ges - sen, die We - ge ver - las - sen  
 1. When we for - get our old way, our need for our own way,  
 und neu be - gin - nen, ganz neu, da be - rüh - ren sich  
 start fresh, start o - ver, start new, Earth and Heav - en are  
 Him - mel und Er - de, dass Frie - den wer - de un - ter uns,  
 meet - ing, re - joic - ing, sing - ing that Peace has found a home.  
 da be - rüh - ren sich Him - mel und Er - de, dass  
 Earth and Heav - en are meet - ing, re - joic - ing, for  
 Frie - den wer - de un - ter uns.  
 Peace has found a home with us.

2. Wo Menschen sich verschenken,  
 die Liebe bedenken  
 und neu beginnen, ganz neu,  
**Refrain**

3. Wo Menschen sich verbünden,  
 den Hass überwinden  
 und neu beginnen, ganz neu,  
**Refrain**

2. When we remember loving,  
 the way of self-giving,  
 start fresh, start over, start new,  
 Earth and Heaven are meeting, rejoicing,  
 singing that Peace has found a home.  
 Earth and Heaven are meeting, rejoicing,  
 for Peace has found a home with us.

3. When once we feared a stranger,  
 but now love a neighbour,  
 start fresh, start over, start new,  
 Earth and Heaven are meeting, rejoicing,  
 singing that Peace has found a home.  
 Earth and Heaven are meeting, rejoicing,  
 for Peace has found a home with us.

Music: Christoph Lehmann. Text: Thomas Laubach © 1989 (vd-Verlag Düsseldorf, Germany).  
 English: Andrew Donaldson, © 2016 World Council of Churches.



전세계 회원교회의 남, 여신도와 평신도 및 성직자 대표 등 각분야의 대표들이 7년마다 총회의 이름으로 모입니다. 함께 모인 대표단들은 성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앞으로 WCRC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며 또한 새로운 리더십을 선출합니다.

2017년 총회 주제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갱신하고 변화시키소서”는 단순히 WCRC의 유산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제의 핵심은 생명의 하나님의 활동에 중심을 두고, 참가자들과 교회가 그들 스스로를 새롭게 변화시킴으로써 세상 또한 변화시키기 위함에 있습니다.

이 안내책자는 다양한 성경공부의 주제들, 신학적, 신앙고백적이며 상황에 알맞는 텍스트를 비롯한 다양한 예배자료들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위원회에 참석하고자 계획하는 커뮤니티의 모든 멤버와 개인에게 활용되어지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번역본의 종류와 관계 없이 이 책자에 수록된 내용은 자유롭게 사용, 인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 이용시 저자와 출처(World Communion of Reformed Churches)에 대한 각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자료의 사본과 총회 안내에 대해서는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wcrch.ch/ko/gc2017>



**세계 개혁교회 커뮤니티언**  
**World Communion**  
**of Reformed Churches**

World Communion of Reformed Churches  
Knochenhauerstr. 42  
30159 Hannover, Germany

wcrc.ch  
facebook.com/worldcommunion  
twitter.com/Reformedcomunio